

---

# 제주시 지역주민의 복지 실태 및 욕구 조사

-인구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

2024. 12.

# 제주시 지역주민의 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4. 12. 31.**

연구 책임 :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공동 연구 : 고창우(우리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장)

김은정(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문현주(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종철(지평경영컨설팅그룹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은설(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 이사장)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목 차

<b>I</b>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4
<b>II</b>	이론적 배경	
	1. 인구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 .....	9
	2. 제주지역 내외 주민복지 실태 및 욕구 관련 선행연구 .....	14
	3. 소결 .....	19
<b>III</b>	면접조사	
	1. 조사 개요 .....	23
	2.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결과 .....	26
	3. 소결 .....	39
<b>IV</b>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	43
	2. 조사 결과 .....	43
	3. 소결 .....	133
<b>V</b>	제언 .....	139
<b>VI</b>	참고문헌 .....	145

<표 I -1> 연구 구조 .....	6
<표 II -1> 인구소멸위험지수의 기준 .....	9
<표 II -2> 제주형 인구감소 지수 기준 .....	10
<표 II -3> 제주형 인구감소 지수 측정 결과 .....	11
<표 II -4>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구 현황 .....	13
<표 II -5>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 보장 욕구 구분 .....	14
<표 II -6>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보장 욕구 구분 .....	16
<표 II -7> 제5기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보장 욕구 구분 .....	17
<표 II -8> 제5기 강릉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보장 욕구 구분 .....	17
<표 II -9>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 .....	18
<표 II -10> 사회보장 욕구별 지표의 비교 .....	18
<표 III -1> 초점집단면접 개요 .....	23
<표 III -2>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특성 .....	24
<표 III -3> 초점집단면접 질문 .....	25
<표 III -4> 노형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27
<표 III -5> 도두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29
<표 III -6> 봉개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30
<표 III -7> 삼양동, 화북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32
<표 III -8> 애월읍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33
<표 III -9> 일도2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34
<표 III -10> 연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35

<표Ⅲ-11> 외도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37
<표Ⅲ-12> 이도2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38
<표Ⅲ-13> 아라동, 오라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	39
<표Ⅳ-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44
<표Ⅳ-2> 좋은 동네라는 인식 여부 .....	47
<표Ⅳ-3>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된 이유 .....	50
<표Ⅳ-4>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	52
<표Ⅳ-5>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거주환경의 변화 .....	55
<표Ⅳ-6>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	57
<표Ⅳ-7> 현재 거주지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	58
<표Ⅳ-8>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 .....	58
<표Ⅳ-9> 현재 거주지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 .....	60
<표Ⅳ-10> 지역 간 불균형 .....	61
<표Ⅳ-11> 현재 거주지별 지역 간 불균형 .....	63
<표Ⅳ-12> 방과 후에 주로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	64
<표Ⅳ-13> 현재 아동돌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	66
<표Ⅳ-14> 우리 동네에 아동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	69
<표Ⅳ-15> 우리 지역의 청소년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	72
<표Ⅳ-16> 우리 지역의 청년 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	76
<표Ⅳ-17> 우리 지역의 중장년 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	80
<표Ⅳ-18> 주로 이용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	82
<표Ⅳ-19> 현재 노인 돌봄에 가장 필요한 것 .....	85
<표Ⅳ-20> 우리 동네에 노인 돌봄에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	89
<표Ⅳ-21> 현재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정신건강 관련 문제 .....	93
<표Ⅳ-22> 우리 동네에 주민정신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	97
<표Ⅳ-23> 현재 주민의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 .....	100

<표IV-24> 우리 동네에 주민의 신체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103
<표IV-25> 기초생활유지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	105
<표IV-26> 현재 주민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107
<표IV-27> 안전 유지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	109
<표IV-28>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09
<표IV-29> 현재 거주지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110
<표IV-30> 우리 동네에 주민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112
<표IV-31>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	114
<표IV-32>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16
<표IV-33> 현재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18
<표IV-34> 현재 거주지별 현재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19
<표IV-35> 현재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서 지난 1년간 겪은 어려움 빈도	120
<표IV-36>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123
<표IV-37> 주로 참여하는 문화(여가)활동	124
<표IV-38>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127
<표IV-39>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13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구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 인구변화는 수명과 건강, 불평등과 빈곤, 가족구조, 지역의 인구분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민의 복지 상태에 영향을 줌(신윤정 외, 2021). 특히 지역의 인구분포 변화는 지역 구성원의 돌봄과 복지 인프라 조성 등의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추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하지만 주로 복지정책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생산연령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 즉 읍면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반면에 인구 유입이 증가하여 지역이 팽창하고 있는 곳은 인구 팽창 속도에 맞춰 복지시설, 여가시설, 의료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 구축이 더디게 되거나 아직 안 되고 있어 복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켜 인구 유출이 될 가능성도 안고 있음.
- 사회복지정책 방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복지 인프라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주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제주도의 15분 도시 추진 또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처럼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 내 복지 인프라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지역별 인구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지역별 복지 인프라 공급 정책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복지 인프라를 기준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배치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박종서 외, 2022).
- 2022 제주의 사회지표에 의하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평균

6.65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나타남. 점수가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 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즉 복지 인프라 접근성이 보장되는 환경조성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즉 인구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실태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욕구를 조사하여 복지 인프라 조성 등 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토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 및 복지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 1) 지역주민의 복지 실태 및 욕구 조사

- 지역주민 복지 실태 및 욕구 조사-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위한 인구 감소 관련 지표, 제주지역의 인구 감소 지수 현황,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구 현황, 제주지역 내외 주민 복지실태 및 욕구 관련 선행연구,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지표의 비교 등 관련 복지 욕구의 범위를 선정함.

#### 2) 면접조사(초점집단면접(FGI))

- FGI는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읍면동 12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복지 욕구를 확인하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 3) 설문조사

- 설문은 지역주민의 복지 실태와 욕구를 확인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진의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함.
-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구감소 위험이 낮은 읍면동 12개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

#### 4) 제언

-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함.

### 나.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읍면동 12개 지역
  - 노형동, 도두동, 봉개동, 삼양동, 애월읍, 일도2동, 연동, 외도동, 이도2동, 오라동, 아라동, 화북동(출처: 2022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 감소 위험 수준 분석(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2023))
- 시간적 범위: 2024년 기준

### 다. 연구 방법

#### 1) 연구 기간 및 대상

- 본 연구는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복지 실태 및 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써 2024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가 수행함.
- 설문 대상은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총 12개 읍면동의 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730명을 표본으로 선정함.
- 면접 대상은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총 12개 읍면동 주민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총 56명을 대상으로 함.

#### 2) 연구 진행

- 문헌조사
  - 인구 감소 관련 지표, 제주지역의 인구 감소 지수 현황,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구 현황, 제주지역 내외 주민복지실태 및 욕구 관련 선행연구,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지표의 비교 등 이론적 내용을 고찰함.
- 면접조사(초점집단면접, FGI)
  -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관해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정리함.

○ 설문조사

- 지역주민 복지욕구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함.
- 설문시기: 2024년 7월 01일(월) ~ 2024년 8월 20일(화)
- 설문방법: 방문조사, 우편조사 등
- 설문내용: 지역주민 복지욕구 관련

3) 연구 구조

<표 1-1> 연구 구조

		문헌조사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li> <li>• 저서</li> <li>• 통계자료 등</li> </ul>	
조사내용		<p>[이론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감소 관련 지표, 제주지역의 인구 감소 지수 현황</li> <li>•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구 현황</li> <li>• 제주지역 내외 주민복지실태 및 욕구 관련 선행연구</li> <li>•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지표의 비교 등</li> </ul> <p>[FG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거주하는 곳에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거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역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li> </ul> <p>[설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사회학적 특성, 복지실태 인식, 돌봄, 정신 및 신체 건강, 기초생활유지, 보호 및 안전, 교육, 주거, 문화/여가</li> </ul>	
		면접조사(FGI)	설문조사
조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li> </ul>
표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의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읍면동 주민</li> <li>•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의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읍면동 주민</li> <li>• 19세 이상 성인남녀</li> </ul>
표본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6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21명</li> </ul>

## Ⅱ. 이론적 배경

1. 인구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
2. 제주지역 내외 주민복지 실태 및  
욕구 관련 선행연구
3. 소결



## Ⅱ. 이론적 배경

### 1.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

#### 가. 인구 감소 관련 지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제주를 비롯한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지방의 소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구 감소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 소멸 위험지수’와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수’를 활용하고 있음.

우선,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가임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그 값이 낮을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이상호, 2018).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0.2 미만부터 1.5 이상까지 분포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Ⅱ-1>과 같음.

<표Ⅱ-1> 인구소멸위험지수의 기준

구분		인구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 진입 단계	0.2 ~ 0.5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출처: 이상호(2018)

제주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2009년 ‘소멸 위험 보통 단계(1.16)’에서 2021년 ‘소멸주의 단계(0.71)’로, 인구 소멸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고태호, 2022).

이와 같이 인구 소멸 위험지수는 인구 소멸의 상황을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낮은 출산과 높은 고령인구에 중점을 두게 되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 지표로는 한계가 있음.

또 다른 지표로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수가 있음. 이 지수는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음.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개념임.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 지수’를 개발하였는데, 당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의 3에 따라 ① 인구감소율, ② 인구 감소의 지속성, ③ 인구의 이동 추이, ④ 65세 이상 고령인구, ⑤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⑥ 출생률, ⑦ 재정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구 감소 지수는 시·군·구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구분된 제주지역의 행정구역 단위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움.

위 두 지표의 한계로 인해 제주연구원에서는 2022년에 제주형 인구 감소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수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읍·면·동을 단위로 인구 감소 위험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임.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에는 ① 연평균 인구증감률(20년, 5년), ② 인구밀도(5년 평균), ③ 청년 순 이동률(5년 평균), ④ 주간인구(2020년), ⑤ 고령화 비율(5년 평균), ⑥ 유소년 비율(5년 평균), ⑦ 조출생률(5년 평균), ⑧ 재정자립도(5년 평균) 등이 설정되었음.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는 0.0 이상부터 0.7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Ⅱ-2>와 같음.

<표Ⅱ-2> 제주형 인구감소 지수 기준

구 분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감소위험 낮음		0.0 이상 ~ 0.4 미만
감소위험 주의		0.4 이상 ~ 0.5 미만
감소위험지역	감소위험진입	0.5 이상 ~ 0.7 미만
	감소고위험	0.7 이상

출처: 고태호(2022)

## 나. 제주지역의 인구 감소 지수 현황<sup>1)</sup>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를 통해 측정한 결과, 0.098(감소 위험 낮음)부터 0.977(감소 고위험)까지의 분포를 보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소 위험 낮음’ 18개 지역, ‘감소 위험 주의’ 3개 지역, ‘감소 위험 진입’ 9개 지역, ‘감소 고위험’ 13개 지역으로 나타남.

1) 제주연구원에서 2022년에 조사한 결과를 참고함

<표 II-3> 제주형 인구감소 지수 측정 결과

구 분		순위	행정구역	지수 점수
감소 위험 지역	감소 고위험	1	추자면	0.977
		2	중앙동	0.939
		3	송산동	0.918
		4	우도면	0.873
		5	정방동	0.865
		6	일도1동	0.860
		7	천지동	0.822
		8	구좌읍	0.790
		9	영천동	0.777
		10	남원읍	0.764
		11	한경면	0.758
		12	성산읍	0.741
		13	표선면	0.712
	감소 위험 진입	14	효돈동	0.692
		15	건입동	0.688
		16	용담1동	0.687
		17	예래동	0.652
		18	한림읍	0.634
		19	용담2동	0.620
		20	삼도2동	0.615
		21	대정읍	0.562
		22	안덕면	0.515
감소위험주의	23	삼도1동	0.495	
	24	이도1동	0.494	
	25	조천읍	0.422	
감소위험 낮음	26	서홍동	0.390	
	27	일도2동	0.368	
	28	중문동	0.367	
	29	애월읍	0.366	
	30	동홍동	0.355	
	31	이호동	0.353	
	32	화북동	0.337	
	33	도두동	0.331	

구 분	순위	행정구역	지수 점수
	34	연동	0.303
	35	대천동	0.297
	36	봉개동	0.294
	37	대륜동	0.265
	38	외도동	0.239
	39	노형동	0.228
	40	이도2동	0.206
	41	오라동	0.146
	42	삼양동	0.146
	43	아라동	0.098

#### 다.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

인구 감소 관련 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발표하는 것은 인구 감소의 위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원하여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함. 일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감소 위험지역에 지역특화 정책 수립 지원, 인구 감소 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지원강화, 청소년·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지역 활력 타운 조성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음.

제주지역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인구 유치'이며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구 감소 관련 지표는 인구 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위험지역에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하여 인구 감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

그러나 이에 반해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들은 인구 감소 위험이 높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마련된 지역 내 각종 시설 및 복지서비스 등이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지역 내에서의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기도 함.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 내 차량은 인구 증가에 따라 많이 증가된 반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마을 안 도로 주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에 불편하고, 스포츠센터나 문화 관련 시설이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늘어난 인구수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인구 감소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오히려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는 증가한 인구수만큼 지역 내 편의시설, 문화 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에 특정시설의 설치 여부만 확인할 뿐 인구 대비 시설의 수가 적정한지의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재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특히 제주지역 내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 중에서도 제주시 12개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음.

### 라.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구 현황

위에서 제시한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표II-4>와 같음.

<표II-4>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구 현황

(2024년 11월 기준)

(단위: 명, %)

행정구역	인구수			구성비		
	계	남	여	계	남	여
노형동	54,904	26,769	28,135	11.24	5.48	5.76
도두동	3,264	1,714	1,550	0.67	0.35	0.32
봉개동	5,139	2,670	2,469	1.05	0.55	0.51
삼양동	26,195	13,104	13,091	5.36	2.68	2.68
애월읍	38,083	19,538	18,545	7.79	4.00	3.80
일도2동	31,139	15,252	15,887	6.37	3.12	3.25
연동	42,645	21,043	21,602	8.73	4.31	4.42
외도동	22,421	11,218	11,203	4.59	2.30	2.29
이도2동	47,321	23,009	24,312	9.68	4.71	4.98
오라동	16,029	8,075	7,954	3.28	1.65	1.63
아라동	40,622	19,987	20,635	8.31	4.09	4.22
화북동	23,047	11,467	11,580	4.72	2.35	2.37

\*출처: 제주시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information/statistics/population.do>)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에 따른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지수 점수 순서’와 해당 지역의 ‘실제 인구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즉,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평균 인구증감률(20년, 5년), 인구밀도(5년 평균), 청년 순 이동률(5년 평균), 주간인구(2020년), 고령화 비율(5년 평균), 유소년 비율(5년 평균),

조출생률(5년 평균), 재정자립도(5년 평균) 등이 설정되었으므로 단순 인구수와는 차이가 있음. 또한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의 측정 시기와 위 지역의 인구수의 측정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수 점수와 실제 인구수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해석 시 주의해야 함.

## 2. 제주지역 내의 주민복지 실태 및 욕구 관련 선행연구

### 가. 제주지역 내 관련 선행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급여법)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의 수요의 측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기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제5기(2023년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13개 사회복지 욕구별로 어려움 경험정도, 외부자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을 조사하였음.

<표 II-5> 제5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복지 욕구 구분

연번	욕구 구분	연번	욕구 구분
1	아동돌봄	8	보호 안전
2	노인돌봄	9	교육
3	장애인돌봄	10	고용
4	정신건강	11	주거
5	신체건강	12	법률 및 권익보장
6	기초생활유지	13	문화 여가
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제5기(2023년 ~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아동 돌봄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양육시간 부족(3.22점)”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지원시설 서비스 부족(3.58점)”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노인 돌봄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신체적·정신적 부담(2.15점)”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2.98점)”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장애아동 돌봄 부담(4.67점)” 영역에서 어려움 경험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건강 관련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3.42점)”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정신 건강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정신건강 증진의 어려움(1.73점)”영역에서 어려움 경험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정신 건강 증진의 어려움(2.48점)”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신체 건강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일상적인 신체 건강 관리의 어려움(1.93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일상적인 신체 건강관리의 어려움(2.76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기초생활유지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가계 재정 관리의 어려움(2.26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생계비 부족(2.97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1.89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가족관계의 어려움(2.43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보호 안전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 유지의 어려움(1.58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가족 외부로부터 안전 유지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필요성(2.38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교육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학업유지의 어려움(2.08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기초학습 능력 부족에 대한 지원 필요(2.97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고용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 중 취/창업의 어려움에서는 “원하는 일자리 부족(2.80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 중 취/창업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원하는 일자리 부족에 대한 지원 필요(3.55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주거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층간방음 열악(1.96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층간방음에 대한 지원(2.61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법률 및 권익보장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1.80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법률문제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지원 필요(2.75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문화 여가 분야에서 어려움 경험정도는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의 경험(2.48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지원 및 서비스의 필요성은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3.19점)”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나. 제주지역 외 관련 선행연구

제주특별자치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경기도의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 고용, 장애인 돌봄, 주거, 교육 등 13개 사회보장 욕구별로 복지 수요를 조사하였음.

<표 II-6>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보장 욕구 구분

연번	욕구 구분	연번	욕구 구분
1	노인 돌봄	8	교육
2	고용	9	보호·안전
3	장애인 돌봄	10	신체건강
4	아동 돌봄	11	가족 및 사회적 관계
5	주거	12	법률 및 권익보장
6	기초생활유지	13	문화·여가
7	정신건강		

서울특별시의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아동 돌봄, 장애인 돌봄, 정신건강, 교육, 주거 등 13개 사회보장 욕구별로 복지 수요를 조사하였음.

<표 II-7> 제5기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보장 욕구 구분

연번	욕구 구분	연번	욕구 구분
1	아동돌봄	8	보호·안전
2	노인돌봄	9	교육
3	장애인 돌봄	10	고용
4	정신건강	11	주거
5	신체건강	12	법률 및 권익보장
6	기초생활유지	13	문화·여가
7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강릉시의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아동 돌봄, 장애인 돌봄, 정신건강, 교육, 주거 등 11개 사회보장 욕구별로 복지 수요를 조사하였음.

<표 II-8> 제5기 강릉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보장 욕구 구분

연번	욕구 구분	연번	욕구 구분
1	아동돌봄	7	가족 및 사회관계
2	노인돌봄	8	보호·안전
3	장애인돌봄	9	교육
4	정신건강	10	고용
5	신체건강	11	문화·여가
6	기초생활유지		

#### 다.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는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기적으로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여 공개하고 있음.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의 정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주거, 문화, 환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영역은 아동 및 성인 돌봄, 보호·안전으로 세부 기능별로 구분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보장 기반을 반영하기 위해 총괄 영역을 추가하여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등 총 10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

<표 II-9>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영역

연번	육구 구분	연번	육구 구분
1	돌봄(아동)	6	고용
2	돌봄(성인)	7	주거
3	보호·안전	8	문화·여가
4	건강	9	환경
5	교육	10	총괄

## 라. 사회보장지표의 비교

위에서 살펴본 제주지역 내외 주민복지 실태 및 육구 관련 선행연구와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비교하면 <표 II-10>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5기)와 경기도(5기), 서울특별시(5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보장 육구 구분은 13개로 동일하며, 강릉시(5기)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5기)와 경기도(5기), 서울특별시(5기) 지역과 비교하여 ‘주거’, ‘법률 및 권익보장’을 제외한 11개로 구분하고 있음.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는 총 10개이나, 제주특별자치도(5기)와 경기도(5기) 등의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은 돌봄(성인) 범주에 포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법률 및 권익보장은 총괄 범주에 포괄하고 있음.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에는 제주특별자치도(5기)와 경기도(5기) 등에는 포함하지 않은 환경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표 II-10> 사회보장 육구별 지표의 비교

육구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5기)	경기도 (5기)	서울특별시 (5기)	강릉시 (5기)	2023년도 지역 사회 보장 지표	본 연구
아동돌봄	0	0	0	0	0	0
노인돌봄	0	0	0	0	0	0
장애인돌봄	0	0	0	0	0	-
정신건강	0	0	0	0	0	0
신체건강	0	0	0	0	0	0
기초생활유지	0	0	0	0	0	0
가족 및 사회적 관계	0	0	0	0	0	-
보호 안전	0	0	0	0	0	0
교육	0	0	0	0	0	0
고용	0	0	0	0	0	-
주거	0	0	0	-	0	0

욕구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5기)	경기도 (5기)	서울특별시 (5기)	강릉시 (5기)	2023년도 지역 사회 보장 지표	본 연구
법률 및 권익보장	0	0	0	-	0	-
문화 여가	0	0	0	0	0	0
환경	-	-	-	-	0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5기), 경기도(5기), 서울특별시(5기), 강릉시(5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사회보장 욕구 구분과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를 고려하여 돌봄분야(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 포함), 정신 및 신체건강 분야(정신건강과 신체건강 포함), 기초생활유지 분야, 보호 및 안전 분야, 교육 분야, 주거 분야, 문화/여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실태 및 욕구 조사를 진행하였음.

### 3. 소결

- 인구 감소의 위협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 소멸 위험지수’와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수’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주연구원에서 2022년에 제주형 인구 감소 지표를 개발하였음.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지수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읍·면·동을 단위로 인구 감소 위협을 대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임.
-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에는 ① 연평균 인구증감률(20년, 5년), ② 인구밀도(5년 평균), ③ 청년 순 이동률(5년 평균), ④ 주간인구(2020년), ⑤ 고령화 비율(5년 평균), ⑥ 유소년 비율(5년 평균), ⑦ 조출생률(5년 평균), ⑧ 재정자립도(5년 평균) 등이 설정됨. 제주형 인구 감소 지수를 통해 측정한 결과, 제주지역은 0.098(감소 위험 낮음)부터 0.977(감소 고위험)까지의 분포를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 중에서 제주시의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이 지역은 노형동, 도두동, 봉개동, 삼양동, 애월읍, 일도2동, 연동, 외도동, 이도2동, 오라동, 아라동, 화북동임.
-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은 인구 감소 위험이 높은 지역에 비해 증가한 인구수 만큼 지역 내 편의시설, 문화 체육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 없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현재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실태 및 복지욕구

를 조사하여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제주지역 내외 주민복지 실태 및 욕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조사에서의 욕구 구분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정신건강, 신체건강, 기초생활유지, 가족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교육, 고용, 문화·여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주거, 법률 및 권익보장을 포함하는 지역도 있음.
- 2023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에서는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의 10개 영역으로 욕구를 구분하고 있음.

## Ⅲ. 면접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

1. 조사 개요
2. 초점집단면접(FGI) 분석결과
3. 소결



### Ⅲ. 면접조사

#### 1. 조사개요

-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질문은 현재 거주하는 곳에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거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지역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으로 총 7개의 질문으로 구성함.
- ‘지역주민의 복지실태 및 욕구’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인구소멸위기가 낮은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시 애월읍과 도두동을 비롯한 11개 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함.
- 한 개동, 한 개읍 또는 인접한 두 개동으로 나누어 총 10차례에 걸친 FGI가 진행됨.

<표Ⅲ-1> 초점집단면접 개요

회차	일시	장소	대상지역	참여자
1	7월 8일(월) 13시~15시	연동주민센터	연동	조사연구위원 2명, 연동주민 5명 협의회 실습생 2명
2	7월 8일(월) 13시~15시	노형동주민센터	노형동	협의회직원 1명, 조사연구위원 1명 노형동주민 7명, 협의회 실습생 3명
3	7월 11일(금) 19시~21시	사회복지협의회	삼양동 화북동	협의회직원 1명, 조사연구위원 3명 삼양동, 화북동 주민 11명
4	7월 12일(금) 19시~21시	이도2동 가정	이도2동	조사연구위원 1명, 이도2동주민 6명
5	7월 12일(금) 19시~20시	사랑나눔 푸드마켓	일도2동	협의회직원 1명, 조사연구위원 1명 일도2동주민 4명
6	7월 15일(월) 14시~15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외도리센터	외도동	조사연구위원 1명, 외도동주민 6명
7	7월 15일(월) 14시~15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외도리센터	도두동	조사연구위원 1명, 도두동주민 6명
8	7월 17일(수) 18시~19시	봉개동문화체육센터	봉개동	조사연구위원 1명, 봉개동주민 6명
9	7월 17일(수) 18시~19시	애월읍사무소	애월읍	협의회직원 1명, 조사연구위원 2명 애월읍주민 6명
10	7월 19일(금) 19시~21시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아라동 오라동	조사연구위원 1명, 아라동, 오라동주민 9명

○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는 동별로 4명~8명 참여하여 진행하였음. 전체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62.3세이고 노형동이 55.7세로 가장 낮았고 일도2동이 69.8세로 가장 높았음. 현 거주지 거주기간 평균은 28.1년이었고 도두동이 48년으로 가장 거주기간이 높았고 연동이 16년으로 거주기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특성

현재 거주지	구분	성별	연령(세)	현거주지 거주기간(년)	동거가족(명)	직업
노형동	A	남	50	40	2	자영업
	B	남	60	30	2	자영업
	C	남	50	15	3	주택관리사
	D	여	50	7	4	주택관리사
	E	여	50	25	4	주부
	F	남	60	40	2	자영업
	G	여	50	24	5	사회복지사
도두동	A	남	68	68	-	자영업
	B	여	72	70	-	주부
	C	여	59	59	1	자영업
	D	여	69	27	1	주부
봉개동	A	남	67	67	1	농업
	B	여	73	5	1	주부
	C	여	59	3	-	주부
	D	남	59	59	1	농업
	E	남	65	65	-	농업
	F	여	-	-	-	-
삼양동 화북동	A	여	69	20	2	주부
	B	여	64	38	3	주부
	C	여	57	15	3	주부
	D	남	52	20	3	자영업
	E	남	57	30	4	자영업
	F	남	72	10	2	농업
	G	남	59	20	1	회사원
	H	남	63	62	5	회사원
	I	여	59	10	3	회사원
	J	여	56	20	4	회사원
	K	여	64	25	2	무직
애월읍	A	남	52	52	4	상업
	B	남	69	50	2	농업
	C	여	54	9	3	상업
	D	남	31	8	1	자영업
	E	여	71	20	4	농업
	F	남	81	15	1	자영업
일도2동	A	남	79	50	2	농업
	B	남	68	41	1	무직
	C	여	66	31	-	무직
	D	남	66	31	3	무직
	E	남	63	30	1	농업

현재 거주지	구분	성별	연령(세)	현거주지 거주기간(년)	동거가족(명)	직업
연동	A	여	66	10	1	주부
	B	여	67	10	3	주부
	C	여	57	10	4	주부
	D	여	69	10	2	전문직
	E	여	69	40	2	서비스직
외도동	A	남	63	33	1	농업
	B	여	63	32	1	주부
	C	여	68	13	1	주부
	D	여	61	8	1	주부
	E	여	66	12	1	주부
	F	여	66	13	-	주부
이도2동	A	남	67	22	2	행정사
	B	여	64	40	2	주부
	C	남	60	15	4	자영업
	D	남	68	35	3	농업
	E	여	67	28	2	농업
	F	여	63	45	1	자영업
아라동 오라동	A	남	65	20	2	자영업
	B	여	53	10	4	주부
	C	여	59	16	-	주부
	D	여	62	20	-	주부
	E	여	60	7	1	주부
	F	남	72	70	1	자영업
	G	남	64	30	2	자영업
	H	여	58	25	3	주부
	I	여	62	33	2	주부
	J	여	55	10	3	주부

<표Ⅲ-3> 초점집단면접 질문

질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거주하는 곳에 언제부터 살고 계십니까? 거주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li> <li>- 지역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거주하는 지역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li> <li>- 돌봄, 정신 및 신체 건강, 기초생활유지, 보호 및 안전, 교육, 주거, 문화/여가 중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어떤 지원 및 시설을 원하십니까?</li> <li>- 지역에서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li> </ul>

## 2.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결과

### 가. 노형동

- 주상복합 건물과 원룸이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밀집도가 높아짐. 이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 체증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이 부족하며,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및 커뮤니티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됨.
- 주민 간의 큰 갈등은 없는 편이며, 공동체 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는 상태임.
- 관광객이 많아 치안에 대한 우려가 있음. 가로등 부족으로 인해 야간통행에 불편함을 겪음. 특히 골목길 및 주거지 주변의 어두운 환경이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킴.
- 주차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공공 주차 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공공 수영장, 실내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여가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수영장과 같은 공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요구됨.

저쪽 드림타워하고 이마트 사이에 그 간선도로에는 주차 단속이 아주 잘 돼요. 차가 한 대도 세우지 않아 그래서 너무 정리도 잘 되고 교통 체증도 없는데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한 중간쯤에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롯데마트 사이까지는 아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주차 단속 안 하고 그 일대에 이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주상복합이나 그런 원룸들이 굉장히 많이 21층까지 되게 많이 들어서고 있는 중이고 많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딱 그 건물 앞쪽에 삼중 주차를 해요. 그러면 사이에 승용차 한 대 정도 저녁때 되면 지나가고 거기에 보행자, 배달 오토바이, 딱 뒤섞여가지고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유사시에 그런 소방차나 응급차 진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노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사는 데만이 아닌 대부분이 아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노형동A)

교통 움직이려고 하면은 교통이 제일 문제다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한데... 수목원이 가까워서 운동하기 좋고 여기 쇼핑 뭐 여기 롯데마트나 이마트 하나로 마트니 뭐 이런 그거 좋고 불편한 게 좀 교통 말고는... (노형동B)

인프라나 교육이든 의료든 문화든 쇼핑이든 뭐 등등등등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기 편해서 살지 않을까요? 여기에 살 정도 여건이 된다 하는 분들은 (노형동C)

제주도를 3개 4개 권역으로 해서 센터를 좀 하나씩 만들어 동서남북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를 통해서 좀 지역 주민들한테 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병기 위원장 간사 시절 때부터 아니면 우리 지금 위원장 있을 때부터 노형을 어떤 센터 복지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오늘 이렇게 모처럼 왔는데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여론을 참작을 해서 정말 이게 제주도 사각지대에 노형 사각지대에 있는 이 지점을 정말 이 복지 센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형동D)

노형이 학원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쇼핑 가까운 대형 쇼핑몰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병원도 많이 돼 있고 학교도 초중고 대학까지 이렇게 밀집돼 있고 또 하나는 또 좋은 것은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살면서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좀 민오름이라도 여기에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잘 구비된 것이 이 노형이다. (노형동F)

진짜 애들 키울 때 애들 (운동)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던 거 지금은 또 이제 내가 있으니까 이제 스포츠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 이런 부분이 내가 하는데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공공시설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쪽은 없을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내가 원할 때 없는 그런 부분 (노형동G)

<표III-4> 노형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노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공간부족</li> <li>-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li> <li>- 공공 인프라 부족</li> <li>- 공기 오염이 심각함</li> <li>- 공동체 의식 결여</li> <li>- 치안에 대한 우려, 가로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주차시설 확충 요구</li> <li>- 민원응대 서비스 개선 필요</li> <li>- 공공체육시설 확충 필요</li> <li>-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요구</li> <li>- 야간에 운동장 사용 원함</li> <li>-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 요구</li> </ul>

나. 도두동

- 도두동 전체 관계가 좋았으나, 공항,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로 인한 마을발전기금 등 지원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의 마찰로 각 마을별로 인간관계가 분리됨.
- 마을 분리로 주민 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발생함. 노인 수가 타 동지역보다 많음. 어르

신들의 경로당 이용이 분리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약해짐. 주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함.

- 내과, 치과 등 병원이 없음. 병원이 부족하고 병원 위치로 인해 접근성이 어려움. 마을버스 도입을 통한 교통 해소 원함.
- 공항 소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문제가 있음. 도두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2개 방향뿐임에도 좁은 도로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이 있어 운전하기 위험함.
- 방과 후 아동 교육시설 부족과 지역아동센터 부재로 아동 돌봄에 대한 욕구를 보임
- 도심하고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좋은 편임.

노후 나이가 들어가 가지고 가니까 밖에서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옆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다 도와주려고 해 그런 계통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두동A)

여기서 사는 것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참 이런 작은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단체 활동 같은 것도 서로가 그냥 마음 놓고 할 수 있었고 또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소음에 살다 보니까 그 혜택을 지금이야 보는 거죠. 이거 그거를 협상하는 데 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도두동B)

도두일동에는 다시 또 효동마을로 나뉘었어요. 이게 옛날에는 한 동네였거든요. 예전에 도두동에 시장도 제주식 오일시장도 있을 만큼 동네 가운데 한 가운데 도두동이 되게 크고 되게 부유한 동네였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도두일동이 효동마을이라는 거랑 도두일동이랑 분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분리가 돼버렸어요. 애들도 그렇지만 특히 어르신들 경로당이 한 군데를 이용하던 어르신들이 두 군데 경로당이 생기다 보니까 딱 집을 경계선에서 너네는 효동마을이니까 너네는 거기로 가세요 하고 또 이제 딱 경계되면서 너네는 3통이니까 도두1동으로 효동마을로 들어가니까 모든 일은 거기서 하라고 해라 해서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도 인구 수도 많지 않고 한 동네에서 삼촌 조케 하면서 하는 동네에서 조금 화합이 건덕지가 생길 만한 동기부여가 있었으면 하는 게 진짜 솔직한 바람이에요. (도두동C)

도두봉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어떤 그런 자연이라든지 그러니까 도심이면서도 무조건 뭐라 그럴까 전원주택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복잡하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도두동D)

<표 III-5> 도두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도두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분리로 인한 관계 단절</li> <li>- 사회적 관계가 약함</li> <li>- 의료 인프라 부족</li> <li>- 소음 및 악취 문제</li> <li>- 주택 및 전입자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편의성 증대. 중형버스를 마을버스로 배치하기 원함</li> <li>- 마을 간의 화합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느낌</li> <li>- 돌봄 서비스 향상</li> <li>-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li> </ul>

다. 봉개동

- 청소년 대상 시설과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중장년층과 노인을 위한 체육시설, 복합 문화센터가 부족함. 기존 노인회관과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며, 이용률이 낮음.
- 지역 내 다양한 연령대 간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간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낌. 또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 및 소통 부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 문화센터가 있지만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주민 참여가 저조함.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지역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제한적임.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다양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함.
- 현재 내과, 치과 등 일부 의료시설만 존재하며, 정형외과와 같은 전문 병원의 개원이 필요함. 고령 주민을 위한 물리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가 필요함.

중장년 그런 시설들이 봉개동만 없는 게 아니고 시내도 뭐 영업으로 하는데 헬스장이네 뭐네 이런 거는 있어가지고 가지 뭐 관에서 어떤 시설로 이걸 나도 사람 없는 걸로 알아 (봉개동A)

녹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 공원같은데 (봉개동B)

한라산도 보이고 아무튼 오름들도 다 보이고 해서 야 이거 전원주택 못지않게 너무 좋다 해서 처음에 아파트 가자 할 때는 그 신랑도 조금 아예 가서 살아질까 이렇게 했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이제 절대 안 떠나겠대요. 너무 좋다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아까 교통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시외 동쪽 시외버스들 서귀포까지 시외버스가 여기서 교통이 되잖아요? (봉개동C)

어르신네들이 얘기한 거는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좀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평생을 여기서 자랐으니까 그런 건 없는데. 실제 나이 들어서 80 넘으면 일 못 가요. 80 넘어서 계신 분들이 많은데 노인회관밖에 없잖아요. 가서 할 게 없어요. 밥 먹는 거 말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긴 있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기질 않아 구미가 그러니까 맞는 걸 해야지 프로그램을 해도 (봉개동D)

버스가 시내버스 버스가 좋아요.

지금까지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병 의원 같은 게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런 금융계 정도 부족한 게 있고 그 외에는 (봉개동E)

우리 아파트는 소통이 영 안 되다가 그 경로당에 프로그램 한두 가지를 딱 끌어왔어요. 그거 이제 이제 강사들이 무료로 와서 해주는 딱 끌어오는 순간! 아이고.. 밥도 해 먹자. 돈 얼마 내봐라. 빵도 사다 먹자 딱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소통의 시작이에요. 너무 좋아졌어요. (봉개동F)

<표III-6> 봉개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봉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시설 부족</li> <li>- 사회적 관계형성 어려움</li> <li>- 문화 시설 부족</li> <li>- 인구 증가 및 자원 부족</li> <li>- 중장년 및 노인 시설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li> <li>- 보건 및 의료 서비스 개선</li> <li>- 소통의 활성화</li> <li>- 체육시설 및 공원 필요성</li> <li>-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li> <li>- 청소년 및 아동 시설 확충</li> </ul>

라. 삼양동 · 화북동

- 해수욕장, 원당봉 등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힐링과 운동을 위한 자연환경 풍부함
- 삼양동은 수영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이 존재하나 화북동은 체육시설이 전무함.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
- 삼화지구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관이 없음. 어린이·청소년 시설(도서관, 놀이 공간 등)이 전무하여 학생과 젊은 세대의 여가 활용이 어려움.
- 해수욕장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문제 발생과 삼양동 발전소와 삼화지구 하수처리 문제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를 나타냄.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환경 관리 및 단속 강화가 필요함.

-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여 자가용 없이도 이동이 가능함. 화북동 도로 폭 협소로 주차와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하고 삼화지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함.
-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존재함. 삼화지구와 구도심 간 생활 양식 차이가 있으나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재함.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문화 활동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

삼양은 첫째 좋은 게 조건이 해수욕장이 있고요. 이 힐링할 수 있는 산이 원당봉이라는 데에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때는 대중교통이 아주 좋았습니다.

단지 좀 부족하다면 복지 이런 시설이 좀 없다는 점이 (삼양동, 화북동A)

조용하고 아직까지는 되게 한적하고 녹지 공간도 많고 되게 그런 거는 되게 좋은데 이제 좀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도시 계획상에서 보면은 이제 기반 시설 도로 폭을 좀 작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주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도련에도 그래서 주정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하고 이주민하고 현 주민하고 좀 그런 소통의 갈등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살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종합복지관이나 그런 시설들이 좀 부족한 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삼양동, 화북동D)

삼양 같은 데는 해수욕장 수영장도 있고 넓은 축구장도 있고 다목적 체육관도 있고 많고 그런데 우리 화북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복지가 삼화지구 전체 우리가 인구가 6만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복지관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인 거 그리고 다른 동은 있는데 (삼양동, 화북동E)

이제 고령 인구들이 더 많이 그쪽에 집중돼 있고 이제 고향을 지키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 우리가 협의체 이렇게 하면서 보편은 좀 많이 고령화돼있고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런 좀 케어라든가 섬기는 거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양동, 화북동I)

해수욕장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관광객들 오면 쓰레기 문제도 있고 또 저희 삼양 같은 경우는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 저희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꼭 발전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삼양동, 화북동J)

원당봉이 있고 운동 매일 7천 보 그거 할 수 있고 또 해수욕장 요즘 맨발 걷기도 유행이잖아요. 해수욕장 맨발 걷기 그리고 자가용 몰고 갈 필요 없이 대중교통 삼양초등학교 앞에서 타면 그냥 법원까지도 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대중교통이 잘 돼 있고 그런 부분

에서 삼양에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불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습니다. (삼양동, 화북동K)

<표III-7> 삼양동, 화북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삼양동 화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환경에 만족</li> <li>- 복지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부족</li> <li>- 삼양동 인구증가, 화북동 인구감소</li> <li>-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문제,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li> <li>- 고령화 문제</li> <li>- 주차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소통의 장 필요</li> <li>- 청소년 시설 확충</li> <li>- 상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실거주인구 증가</li> <li>- 주차 및 교통 문제 해결</li> <li>- 복지 시설 확충</li> <li>-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li> </ul>

#### 마. 애월읍

-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화합이 잘되는 등 소통이 원활함. 그러나 토착민과 이주민 간 융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해안도로나, 고내봉, 수산봉, 저수지 등 자연환경이 좋으며, 걷기 등의 운동을 하기에 좋음.
- 노인 인구가 많은 편이나, 경로당 인력 지원이 되지 않아 식사 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애월읍 인구가 많은 편이나 복지관이 없음. 복지관 신설 또는 분소 운영이 필요하며,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아동 돌봄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하여 돌봄에 어려움이 있음.
- 과거에 비해 거주 인원이 늘어나면서 주차 문제가 심각해짐.

저는 지금 대체적으로 만족하는데 그 이유는 소통이 조금 자유롭게 잘 되는 것 같고 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의 라면 빵 그런 식으로 이제 점심을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한명만 하더라도 식사 그런 거 뜨거운 거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배치됐으면 하는 마음이 그게 조금 경로당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문제가 좀 더 있어요.

서부복지관이 있는데 다들 한림복지관인줄 알아요. 그리고 애월에서 가기가 되게 그래서 저기 또 얘기하는 게 복지관 하나가 더 생기던지 분점식으로 하나 해야지 저기 애월읍 인구 수가 더 많은데. (애월읍A)

저는 불편한거는 주차 문제 마을 안에 가보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차가 이렇게 접촉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주차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애월읍B)

애월읍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정말 그거 있잖아 아침에 눈 일찍 뜨면 해안도로를 한 바퀴 걸을 수 있고 나름대로 그냥 오름 같은 거 고내봉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운동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천혜 장소인 것 같아요. (애월읍C)

아동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들이 있는데 지금 애월에 3군데인가 있어요. 동네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동 돌봄이 열악하죠. 교육 상황을 볼 때. (애월읍F)

<표III-8> 애월읍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애월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통이 잘되며, 자발적 참여가 많음</li> <li>- 동네화합, 이웃 간 연계 등 거주하는 데 불편함 없음</li> <li>- 자연환경이 좋음(해안도로, 고내봉, 수산봉, 저수지)</li> <li>- 대중교통 발달</li> <li>- 가로등 부족으로 인도가 어두움</li> <li>- 주차 구역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와 소통 필요함</li> <li>- 경로당 식사지원, 인력배치 등 활성화 지원</li> <li>- 복지관 설립 또는 분소 필요</li> <li>- 애월체육관 등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한 복지관 또는 복합시설</li> <li>- 지역아동센터 추가 신설</li> <li>- 주차 문제 해결</li> </ul>

바. 일도2동

- 부모세대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어 젊은 세대는 부족함. 젊은 세대를 유인하려면 주거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좁은 도로와 주차난, 차고지 증명 등의 문제가 있음. 실거주는 일도2동에 하면서 주소는 다른 곳에 두고 차고지 증명을 다른 곳에 하는 경우가 있음.
- 신산공원 등 근린공원이 다수 존재함.
- 여름이나 겨울철 개별 냉난방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여드는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부족함.
- 경로당 식사지원과 관련한 인력지원이 필요하며, 경로당 기능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주차 문제로 구도심권에 살면서 주소를 자기 고향으로 옮겨서 차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구도심 거리는 시에서 주차 시설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구도심 살리기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경로당에 가 주 5일 급식하기 위해서 쌀만 갖다 주면 누가 밥하고 반찬은 무신결로 하느냐 이거예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틀린 게 서울 같은 데는 이런 공원 같은 데서 아침에 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그 강사가 와서 그 마을 사람들 모여놓고 운동도 시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일도2동A)

경로당을 복합 단지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일도2동B)

노인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게 읍면동마다의 어떤 센터를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마련해 주셨으면. (일도2동C)

<표III-9> 일도2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일도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세대 중심</li> <li>- 좁은 도로, 주차 문제, 차고지 증명 문제</li> <li>- 신산공원 등 근린공원 다수</li> <li>-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을 복합시설로 기능 전환하여 소통 공간으로 활용</li> <li>- 무더위쉼터 마련</li> <li>-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li> <li>- 고령자 일자리 확대</li> <li>- 청년 일자리 창출</li> <li>- 경로당 식사 지원(인력)</li> </ul>

사. 연동

- 인구가 많고 주거 환경이 복잡하여 주민들이 이웃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웃 간 소통을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있음.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과 여가시설이 필요함.
- 주차장 문제와 도로가 좁아 차들이 세우게 되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공간이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로 인해 주차 시설 확충에 대한 욕구가 있음.
-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늘어나기를 원함.
-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높아 복지시설의 필요성을 이야기 함. 복지관을 통해 어르신들 프

로그랩이 필요하다고 느낌. 학교가 끝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필요함.

- 구도심에 대한 투자 대비 연동은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가 없어 돌봄 공간,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인프라가 생기기를 원함.

연동이 좀 웬만한 거는 도보로도 차를 안 타고도 잘 다닐 수가 있고 또 여기 이제 모든 시설이 목욕탕이나 병원이나 마트 같은 게 있어서 살기가 엄청 좀 그런 점은 편리한데 수목원 부근이라 모기가 많아서 지겹습니다. 정말 4시부터 이제 6시까지 2시간 간격이 학교에서 하면 아이들은 다 가블면 혼자 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자기 혼자 남으면 며 할수도 없고 그래서 동동 굴리다가 이제 어떨 때는 자기 근무지에 와서 조용히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데리러가서 데려올때도 있고 그거 한 가지고 예. 이제 초등학생들은 거기 끝나면 또 학원으로 뽕뽕이 돌려에 엄마올때까지 (연동A)

주차문제가 제일 크죠. 주차 시설이 좀 많이 있었음..

시설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됐는데 주차시설이 여기 공용주차장 하나밖에 없으니가 차가 많으니가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한거지 (연동B)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반상회에서 저들 다세대라 하는 경우는 다 모여서 이제 얼굴을 보고 그런 뭐가 있었는데 요새는 라인도 무활중도 모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인사 안 하고 가는 확률이 있어요 (연동C)

교통 주차장 차 주장이 문제 주차장이 제일 문제라서 제주도도 지금 예를 들어서 50만 인구의 40 몇만 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25% 이상이 10만대 이상이 연동에서 차가 연동 사람이 갖고 있는 차에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주차장에도 문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쉬움... 문화여가 시설이 있으면 아까 고랐주게. 40~50대가 문화 여가를 즐기면서 자기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적다. 물론 40~50대만이 아니지만 이 문화 여가 시설이라하는거는 40~50대부터 노인 시설까지 이제 80나도 이해 할머니렌 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나도 젊어버리니까 이 문화시설이 제일 중요한데 연동은 문화가 굉장히 모잘라예. (연동E)

<표III-10> 연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연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가 많고 주거환경이 복잡함</li> <li>- 이웃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여가 시설 확충</li> <li>-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li> </ul>

지역	실태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인구 증가,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높음</li> <li>- 경로당 및 문화시설 부족, 아동돌봄공간 부재</li> <li>-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곳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li> <li>- 주차장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 관계 개선 및 이웃 간의 소통 활성화</li> <li>- 안전한 보호를 위한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필요</li> <li>- 주차장 시설 확충 요구</li> <li>- 고령인구를 위한 운동시설</li> </ul>

### 아. 외도동

- 도농복합도시로 자연친화적이며, 자연 경관이 좋음.
- 급증한 인구로 인해 하수구나 생활쓰레기 문제가 있음.
- 공원 내 운동기구가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음.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함.
- 쓰레기 주변이나 낡은 가게 등의 방역 문제.
- 근처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멀리 다녀야 하는 학군 문제.

현재는 포화 상태예요. 지금 여기 한마디로 이제 깔려 있는 하수구 이런 것들이 오버가 돼가지고 지금 자체 소비를 못해요.

어린이공원 내에 몇 개의 운동기구만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닻지도 안고 페인트도 안 하고 노화되고 이렇게 해서 또 힘들고. 실내에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 대규모의 시설이 좀 필요하다. (외도동A)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까워서 외도는 바로 식사하고 밖에 나가면 산책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외도동B)

무료 주차장에서 유료가 돼버리니까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 길거리 밖에 세워버리니까 좀 위험해요. 사거리 같은 경우는. (외도동C)

외지에서 왔을 때 어떤 동네 행사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직접 주민센터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외도동E)

고등학교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우리 00이도 여기 외도에 살다가 고등학교가 이제 저쪽에 끝에 저기 봉개 아니 대기고를 가게 되는데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스쿨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갔다 데려다 주고 해야 되니까 결국 이사를 갔어. (외도동F)

<표III-11> 외도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외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농복합도시로 자연친화적</li> <li>- 자연경관 좋음</li> <li>- 하수구 부족</li> <li>- 생활쓰레기 문제</li> <li>- 공원 내 운동기구 관리 소홀로 방치</li> <li>- 학군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내 운동기구 관리 필요</li> <li>- 대규모 실내체육시설 설치</li> <li>- 주차 문제 해결</li> <li>- 관계 형성, 소통의 장 마련</li> <li>-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li> <li>- 복지관 설치</li> </ul>

자. 이도2동

- 시청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함.
- 공원 등 근린시설은 좋으나, 실내 체육시설이 없음.
- 병원 접근성이 좋으며,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하기에 편리함.
-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텃새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움.
- 이웃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의 부활과 같은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함.
-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함.

건강을 위해서 종합복지관 신설이 필요하다. 마을에 하나씩은 있었으면 좋겠다. 체육시설 스포츠센터 같은 것도 필요 복지관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었으면. (이도2동A)

일중 뒤애가 양쪽으로 주차하게끔 돼 있어요. 일방통행로인데 애들이 차 때문에 아침에 차로로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게 또 운전하는 사람은 아이들 오면 차 세웠다가 아이들이 차 틈새로 들어가면 운행하고 완전 둘 다. (이도2동B)

처음에는 되게 교통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우리 동네 불편한 점은 경로당이 없다는 것.. 어르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하지 말고 아니라 좀 새벽형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찍 할 수도 있고 왜냐면 그 시간대가 좀 다양해야 되는데. 시간대를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 좋겠다. (이도2동C)

사실상 땡 퇴근이 없으면 보통 한 7시 8시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애들을 진짜 늦게까지 봐줄 수 있는 이런 케어 시스템이 필요해요.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365일. 최소

한 10시간 이상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이도2동E)

옆집이 진짜 누구 돌아가셔도 전화 안 오면 몰라. 통 단위 어떤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이도2동F)

<표III-12> 이도2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이도2동	- 시청을 중심으로 교통 편리 - 공원 등 근린시설 - 병원 접근성 좋으며, 의식주 등 일상 생활의 편리함 - 통행로 주차 문제 - 이웃 간의 무관심	- 대규모 실내 체육시설 설치 - 야간에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필요 - 야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필요 - 주차 문제 해결(주차빌딩 설치) - 종합복지관 신설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통' 부활

차. 아라동 · 오라동

- 동네가 조용하며, 숙박업이나 술집이 적어 주거환경이 좋음.
- 학군이 좋은 편이라 아이들 교육 때문에 생활하기 시작한 경우가 많음.
- 대학교가 있어 산책, 운동하기에 좋음.
- 아라동은 소규모 병원이 많고 가까이에 있으나, 오라동은 병원이 거의 없음.
- 도로가 너무 어두우며, 안내판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치안 등 안전 문제가 있음.
-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이원화 문제가 있음. 한 동네에 살지만 같은 동네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이 필요함.

여기는 이제 뭐냐 숙박업이 없어요. 숙박이 없고 그다음에 술집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로 조용한 곳이에요. (아라동, 오라동A)

지금 아라동이 학군이 좋으니까. 애들이 학교를 다 이쪽에 다녔어요. (아라동, 오라동B)

오라동은 체육시설이나 공설 운동장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아라동이 없어요. 인구는 평창 데 많은데 체육시설이 없어요. (아라동, 오라동C)

저희 애들이 아라동에는 학교도 많고 그런데 왜 도서관이 없냐고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라동, 오라동D)

아라동만큼 교통 좋고 병원이 가까운 데가 어디 있겠냐 나이를 한살 한 살 먹어갈수록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병원 가까운 데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사실 아라동이 여기 병원이 되게 좋잖아요. 병원 인프라가 그리고 버스도 좋고.

20년이면 그리고 꽤 긴 세월인데 보면 여기 원래 우리 위원장님처럼 토박이 우리가 애기하는 토박이신 분들하고 와서 이주 우리는 이제 해서 돌 다 들어온 사람들하고는 약간 이원화가 되는 거 같아요. (아라동, 오라동E)

학교 인근 쪽에 보행자.. 보행자의 길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 옆에만 있어요. 학교 그 주변만 다른 데는 그냥... (아라동, 오라동F)

경로당 복지관 이런 게 필요한데 없어요. 또 어르신을 위한 운동기구도 잘 없고.. 어르신들이 밤에나 저녁에나 아침에나 편안하게 안전하게 걷기 운동이라든가 가벼운 운동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좁 넓고 환한 공간이 필요하다. (아라동, 오라동H)

<표III-13> 아라동, 오라동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

지역	실태	욕구
아라동 오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환경이 좋음(숙박업, 술집이 적음)</li> <li>- 학군이 좋음. 자녀들 학교 때문에 거주</li> <li>- 동네가 조용하며, 산책, 운동하기에 좋음</li> <li>- 교통편의</li> <li>- 병원이 가까이에 있음</li> <li>- 주차 공간이 타지역보다 많음</li> <li>-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이원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건립</li> <li>- 체육시설이나 축구장, 운동장 건립(아라동)</li> <li>- 노인을 위한 소통 공간 및 운동 공간 마련</li> <li>- 의료시설 확충(오라동)</li> <li>- 안전한 보행로 확보</li> <li>- 주차빌딩 건립(오라동)</li> <li>- 청소년문화의집 확대</li> <li>- 공동체 활동 활성화</li> </ul>

### 3. 소결

- 지역에 따라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주차문제와 복지관,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 돌봄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확충, 어린이집의 돌봄 시간 확대, 경로당 지원 확대, 읍과 동마다 복지관 신설 등의 욕구가 나타남.
- 주민들은 안전과 관련해서 보행로 확보, 가로등 설치, 주차 문제 해결 등의 욕구가 있음.

- 건강과 관련해서 병원 확충, 문화체육시설 확충, 수영장 또는 축구장 건립 등의 욕구를 보임.
- 또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 소통의 장 마련, 통의 부활 등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대한 욕구도 나타남.
- 노형동은 주차에 대한 불만, 교통 체증과 안전 문제를 이야기 함. 이에 따라 공영 주차시설 확보가 요구되고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됨.
- 도두동은 마을 분리와 경로당의 분리로 주민화합에 문제가 발생함. 주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나타남. 공항,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로 인한 마을발전기금 등 지원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함.
- 봉개동은 전반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중장년, 노인 시설 부족을 이야기 함. 인구 증가 대비 복지 및 공공서비스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삼양동과 화북동은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높게 나타남. 또한 삼화지구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문제로 나타남.
- 애월읍은 경로당 인력 지원과 복지관 신설,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통한 아동돌봄 확대,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 등의 욕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도2동은 주차 문제 해결과 경로당 냉난방비와 식사 지원, 인력지원, 특히 경로당 기능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욕구를 나타냄.
- 연동은 인구가 많고 주거환경이 다양하여 이웃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노인인구 증가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 외도동은 대규모 실내체육시설 설치와 복지관 설립, 병원 설립 등의 인프라 확충과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에 대한 욕구가 있음.
- 이도2동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시간 확대, 대규모 실내체육시설 설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주차 문제 해결, 복지관 설치 등의 욕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됨.
- 아라동과 오라동은 노인을 위한 소통 공간 및 운동 공간 마련,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의 공통적인 욕구와 함께 아라동은 도서관 설립,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욕구가, 오라동은 의료시설 확충과 주차빌딩 건립 등에 대한 욕구를 보임.

## IV.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3. 소결



## IV. 설문조사

###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구감소 위험이 낮은 12개 읍면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실태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욕구를 조사하여 복지 인프라 조성 등 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7월 01일(월) ~ 2024년 8월 20일(화)까지 7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2. 조사 결과

####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는 <표IV-1>과 같음.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485명(67.5%), 남성은 234명(32.5%),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76명(10.7%), 30대는 81명(11.4%), 40대는 129명(17.9%), 50대는 239명(33.5%), 60대는 138명(19.4%), 70대 이상은 50명(7.0%),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144명(20.2%), 기혼은 510명(71.4%), 이혼은 23명(3.2%), 사별은 36명(5.0%), 기타는 1명(0.1%),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328명(53.5%), 맞벌이 아님은 285명(46.5%)로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24명(3.5%), 고졸은 185명(26.6%), (전문)대졸은 407명(58.6%), 대학원 졸은 79명(11.45%)으로 나타났고, 현 지역 거주기간은 0.5~5년은 134명(20.2%), 6~10년은 152명(22.9%), 16~20년은 82명(12.3%), 11~15년은 65명(9.8%), 26~30년은 64명(9.6%)순으로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71명(9.8%), 2명은 159명(22.1%), 3명은 150명(20.8%), 4명은 235명(32.6%), 5명 이상은 106명(14.7%)으로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54명(7.5%), 도두동은 41명(7.1%), 봉개동은 56명(7.8%), 삼양동은 59명(8.2%), 애월읍은 50명(7.0%), 일도2동은 53명(7.4%),

연동은 52명(7.2%), 외도동은 72명(10.0%), 이도2동은 68명(9.5%), 오라동은 54명(7.5%), 아라동은 83명(11.5%), 화북동은 67명(9.3%)으로 나타났고,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 127명(18.4%), 관리/사무직 121명(17.5%), 서비스/판매직 96명(13.9%), 기타 90명(13.0%)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721)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여성	485	67.5
	남성	234	32.5
	<b>합계</b>	<b>719</b>	<b>100.0</b>
연령대	20대	76	10.7
	30대	81	11.4
	40대	129	17.9
	50대	239	33.5
	60대	138	19.4
	70대 이상	50	7.0
	<b>합계</b>	<b>713</b>	<b>100.0</b>
결혼 여부	미혼	144	20.2
	기혼	510	71.4
	이혼	23	3.2
	사별	36	5.0
	기타	1	0.1
	<b>합계</b>	<b>714</b>	<b>100.0</b>
맞벌이 유무	맞벌이	328	53.5
	맞벌이 아님	285	46.5
	<b>합계</b>	<b>613</b>	<b>100.0</b>
학력	중졸 이하	24	3.5
	고졸	185	26.6
	(전문)대졸	407	58.6
	대학원 졸	79	11.4
	<b>합계</b>	<b>695</b>	<b>100.0</b>
현 지역 거주기간	0.5~5년	134	20.2
	6~10년	152	22.9
	11~15년	65	9.8

	구분	빈도(명)	비율(%)
	16-20년	82	12.3
	21-25년	48	7.2
	26-30년	64	9.6
	31-35년	21	3.2
	36-40년	28	4.2
	41-45년	10	1.5
	46-50년	23	3.5
	51년 이상	37	5.6
	<b>합계</b>	<b>664</b>	<b>100.0</b>
가족 구성원 수	1명(본인)	71	9.8
	2명	159	22.1
	3명	150	20.8
	4명	235	32.6
	5명 이상	106	14.7
	<b>합계</b>	<b>721</b>	<b>100.0</b>
현재 거주지	노형동	54	7.5
	도두동	41	7.1
	봉개동	56	7.8
	삼양동	59	8.2
	애월읍	50	7.0
	일도2동	53	7.4
	연동	52	7.2
	외도동	72	10.0
	이도2동	68	9.5
	오라동	54	7.5
	아라동	83	11.5
	화북동	67	9.3
<b>합계</b>	<b>719</b>	<b>100.0</b>	
직업	전문직	127	18.4
	관리/사무직	121	17.5
	서비스/판매직	96	13.9
	기술/기능직	20	2.9
	농업/임업/어업 종사	31	4.5
	단순/노무직	44	6.4

구분	빈도(명)	비율(%)
전업주부	35	5.1
학생	36	5.2
고용주/자영업자	32	4.6
무급가족종사자	4	0.6
일시 휴직	8	1.2
구직 활동 중	12	1.7
무직	35	5.1
기타	90	13.0
<b>합계</b>	<b>691</b>	<b>100.0</b>

## 나. 복지실태 인식

### 1) 좋은 동네라는 인식 여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IV-2>와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네 668명(93.7%), 아니오 45명(6.3%)로 네라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네 450명(93.9%), 아니오 29명(6.1%), 남성은 네 216명(93.1%), 아니오 16명(6.9%),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네 70명(93.3%), 아니오 5명(6.7%), 30대는 네 74명(92.5%) 40대는 네 118명(91.5%), 아니오 11명(8.5%), 50대는 네 215명(91.5%), 아니오 20명(8.5%), 60대는 네 136명(99.3%), 아니오 1명(0.7%), 70대 이상은 네 47명(95.9%), 아니오 2명(4.1%),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네 134명(93.1%), 아니오 10명(6.9%), 기혼은 네 471명(93.6%), 아니오 32명(6.4%), 이혼은 네 22명(100.0%), 아니오 0명(0.0%), 사별은 네 35명(97.2%), 아니오 1명(2.8%),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 네 304명(93.8%), 아니오 20명(6.2%), 맞벌이 아님은 네 268명(94.4%), 아니오 16명(5.6%)으로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네 24명(100.0%), 아니오 0명(0.0%), 고졸은 네 174명(94.6%), 아니오 10명(5.4%), (전문)대졸은 네 374명(93.5%), 아니오 26명(6.5%), 대학원 졸은 네 73명(92.4%), 아니오 6명(7.6%),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네 62명(88.6%), 아니오 8명(11.4%), 2명은 네 149명(94.9%), 아니오 8명(5.1%), 3명은 네 141명(95.3%), 아니오 7명(4.7%), 4명은 네 217명(93.1%), 아니오 16명(6.9%), 5명 이상은 네 99명(94.3%), 아니오 6명(5.7%)으로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네 50명(92.6%), 아니오 4명(7.4%), 도두동은

네 46명(90.2%), 아니오 5명(9.8%), 봉개동은 네 50명(90.9%), 아니오 5명(9.1%), 삼양동은 네 59명(100.0%), 아니오 0명(0.0%), 애월읍은 네 46명(95.8%), 아니오 2명(4.2%), 일도2동은 네 49명(92.5%), 아니오 4명(7.5%), 연동은 네 47명(90.4%), 아니오 5명(9.6%), 외도동은 네 69명(98.6%), 아니오 1명(1.4%), 이도2동은 네 63명(94.0%), 아니오 4명(6.0%), 오라동은 네 45명(84.9%), 아니오 8명(15.1%), 아라동은 네 78명(94.0%), 아니오 5명(6.0%), 화북동은 네 64명(97.0%), 아니오 2명(3.0%)으로 나타남.

<표 IV-2> 좋은 동네라는 인식 여부

(단위: 명, %)

구분		네	아니오	총계
전체		668(93.7)	45(6.3)	713(100.0)
성별	여성	450(93.9)	29(6.1)	479(100.0)
	남성	216(93.1)	16(6.9)	232(100.0)
연령대	20대	70(93.3)	5(6.7)	75(100.0)
	30대	74(92.5)	6(7.5)	80(100.0)
	40대	118(91.5)	11(8.5)	129(100.0)
	50대	215(91.5)	20(8.5)	235(100.0)
	60대	136(99.3)	1(0.7)	137(100.0)
	70대 이상	47(95.9)	2(4.1)	49(100.0)
결혼 여부	미혼	134(93.1)	10(6.9)	144(100.0)
	기혼	471(93.6)	32(6.4)	503(100.0)
	이혼	22(100.0)	0(0.0)	22(100.0)
	사별	35(97.2)	1(2.8)	36(100.0)
	기타	1(100.0)	0(0.0)	1(10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304(93.8)	20(6.2)	324(100.0)
	맞벌이 아님	268(94.4)	16(5.6)	284(100.0)
학력	중졸 이하	24(100.0)	0(0.0)	24(100.0)
	고졸	174(94.6)	10(5.4)	184(100.0)
	(전문)대졸	374(93.5)	26(6.5)	400(100.0)
	대학원 졸	73(92.4)	6(7.6)	79(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본인)	62(88.6)	8(11.4)	70(100.0)
	2명	149(94.9)	8(5.1)	157(100.0)
	3명	141(95.3)	7(4.7)	148(100.0)
	4명	217(93.1)	16(6.9)	233(100.0)

구분		네	아니오	총계
	5명 이상	99(94.3)	6(5.7)	105(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50(92.6)	4(7.4)	54(100.0)
	도두동	46(90.2)	5(9.8)	51(100.0)
	봉개동	50(90.9)	5(9.1)	55(100.0)
	삼양동	59(100.0)	0(0.0)	59(100.0)
	애월읍	46(95.8)	2(4.2)	48(100.0)
	일도2동	49(92.5)	4(7.5)	53(100.0)
	연동	47(90.4)	5(9.6)	52(100.0)
	외도동	69(98.6)	1(1.4)	70(100.0)
	이도2동	63(94.0)	4(6.0)	67(100.0)
	오라동	45(84.9)	8(15.1)	53(100.0)
	아라동	78(94.0)	5(6.0)	83(100.0)
	화북동	64(97.0)	2(3.0)	66(100.0)

## 2)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된 이유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3>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230명(32.1%), 가족(고향, 결혼 등) 156명(21.8%)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63명(33.8%), 가족(고향, 결혼 등) 94명(19.5%)순으로, 남성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67명(28.8%), 가족(고향, 결혼 등) 60명(25.8%)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가족(고향, 결혼 등) 28명(37.3%),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9명(25.3%)순으로, 30대는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28명(34.6%), 가족(고향, 결혼 등) 23명(28.4%)순으로, 40대는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33명(25.6%), 가족(고향, 결혼 등) 24명(18.6%), 직장(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24명(18.6%), 교육(자녀 교육, 학업 등) 24명(18.6%)순으로, 50대는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90명(38.0%), 가족(고향, 결혼 등) 46명(19.4%)순으로, 60대는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45명(32.8%),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34명(14.3%)순으로, 70대 이상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4명(28.0%), 가족(고향, 결혼 등) 14명(28.0%)순으로,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6명(12.0%)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가족(고향, 결혼 등) 46명(32.2%), 주택(주택 구

입, 전세, 월세 등) 37명(25.9%)순으로, 기혼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67명(32.9%), 가족(고향, 결혼 등) 97명(19.1%)순으로, 이혼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1명(50.0%), 가족(고향, 결혼 등) 4명(18.2%)순으로, 사별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4명(38.9%), 가족(고향, 결혼 등) 7명(19.4%),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7명(19.4%)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15명(35.2%), 가족(고향, 결혼 등) 59명(18.0%)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87명(30.8%), 가족(고향, 결혼 등) 74명(26.2%)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가족(고향, 결혼 등) 11명(45.8%),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4명(16.7%)순으로, 고졸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61명(33.2%), 가족(고향, 결혼 등) 45명(24.5%)순으로, (전문)대졸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40명(34.7%), 가족(고향, 결혼 등) 81명(20.0%)순으로, 대학원 졸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7명(21.5%), 직장(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17명(21.5%),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15명(19.0%)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20명(28.2%), 직장(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16명(22.5%)순으로, 2명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63명(39.9%), 가족(고향, 결혼 등) 30명(19.0%)순으로, 3명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51명(34.0%),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31명(20.7%)순으로, 4명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67명(28.9%), 가족(고향, 결혼 등) 46명(19.8%)순으로, 5명 이상은 가족(고향, 결혼 등) 38명(35.8%),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29명(27.4%)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4명(25.9%),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10명(18.5%)순으로, 도두동은 가족(고향, 결혼 등) 24명(47.1%),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4명(27.5%)순으로, 봉개동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9명(34.5%), 가족(고향, 결혼 등) 14명(25.5%)순으로, 삼양동은 가족(고향, 결혼 등) 21명(35.6%),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20명(33.9%)순으로, 애월읍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6명(32.0%), 가족(고향, 결혼 등) 10명(20.0%)순으로, 일도2동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6명(30.2%),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13명(24.5%)순으로, 연동은 직장(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14명(26.9%),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2명(23.1%),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12명(23.1%)순으로, 외도동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22명(31.0%), 가족(고향, 결혼 등) 20명(28.2%)순으로, 이도2동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20명(29.4%),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19명(27.9%)순으로, 오라동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18명(34.0%), 직장(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9명(17.0%)순으로, 아라동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38명(45.8%),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16명(19.3%)순으로, 화북동은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21명(31.8%), 가족(고향, 결혼 등) 16명(24.2%),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16명(24.2%)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전체		93 (13.0)	156 (21.8)	230 (32.1)	57 (7.9)	117 (16.3)	55 (7.7)	9 (1.3)	717 (100.0)
성별	여성	59 (12.2)	94 (19.5)	163 (33.8)	36 (7.5)	88 (18.3)	35 (7.3)	7 (1.5)	482 (100.0)
	남성	34 (14.6)	60 (25.8)	67 (28.8)	21 (9.0)	29 (12.4)	20 (8.6)	2 (0.9)	233 (100.0)
연령대	20대	9 (12.0)	28 (37.3)	19 (25.3)	5 (6.7)	12 (16.0)	1 (1.3)	1 (1.3)	715 (100.0)
	30대	14 (17.3)	23 (28.4)	28 (34.6)	3 (3.7)	10 (12.3)	2 (2.5)	1 (1.2)	81 (100.0)
	40대	24 (18.6)	24 (18.6)	33 (25.6)	24 (18.6)	17 (13.2)	7 (5.4)	-	129 (100.0)
	50대	30 (12.7)	46 (19.4)	90 (38.0)	19 (8.0)	34 (14.3)	17 (7.2)	1 (0.4)	237 (100.0)
	60대	13 (9.5)	20 (14.6)	45 (32.8)	4 (2.9)	34 (14.3)	16 (11.7)	5 (3.6)	137 (100.0)
	70대 이상	3 (6.0)	14 (28.0)	14 (28.0)	1 (2.0)	6 (12.0)	11 (22.0)	1 (2.0)	50 (100.0)
결혼 여부	미혼	27 (18.9)	46 (32.2)	37 (25.9)	6 (4.2)	22 (15.4)	3 (2.1)	2 (1.4)	143 (100.0)
	기혼	61 (12.0)	97 (19.1)	167 (32.9)	50 (9.8)	86 (16.9)	42 (8.3)	5 (1.0)	58 (100.0)
	이혼	2 (9.1)	4 (18.2)	11 (50.0)	1 (4.5)	1 (4.5)	2 (9.1)	1 (4.5)	22 (100.0)
	사별	3 (8.3)	7 (19.4)	14 (38.9)	-	7 (19.4)	4 (11.1)	1 (2.8)	36 (100.0)
	기타	-	-	-	-	-	1 (100.0)	-	1 (10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43 (13.1)	59 (18.0)	115 (35.2)	39 (11.9)	50 (15.3)	20 (6.1)	1 (0.3)	327 (100.0)
	맞벌이 아님	31 (11.1)	74 (26.2)	87 (30.8)	13 (4.6)	45 (16.0)	24 (8.5)	8 (2.8)	282 (100.0)
학력	중졸 이하	2 (8.3)	11 (45.8)	4 (16.7)	-	3 (12.5)	3 (12.5)	1 (4.2)	24 (100.0)
	고졸	18 (9.8)	45 (24.5)	61 (33.2)	13 (7.1)	29 (15.8)	15 (8.2)	3 (1.6)	184 (100.0)
	(전문) 대졸	51 (12.6)	81 (20.0)	140 (34.7)	35 (8.7)	68 (16.8)	24 (5.9)	5 (1.2)	404 (100.0)
	대학원 졸	17 (21.5)	14 (17.7)	17 (21.5)	7 (8.9)	15 (19.0)	9 (11.4)	-	79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본인)	16 (22.5)	15 (21.1)	20 (28.2)	1 (1.4)	9 (12.7)	8 (11.3)	2 (2.8)	71 (100.0)
	2명	17 (19.8)	30 (19.0)	63 (39.9)	5 (3.2)	28 (17.7)	14 (8.9)	1 (0.6)	158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3명	16 (10.7)	27 (18.0)	51 (34.0)	9 (6.0)	31 (20.7)	15 (10.0)	1 (0.7)	150 (100.0)
	4명	31 (13.4)	46 (19.8)	67 (28.9)	31 (13.4)	35 (15.1)	17 (7.3)	5 (2.2)	232 (100.0)
	5명 이상	13 (12.3)	38 (35.8)	29 (27.4)	11 (10.4)	14 (13.2)	1 (0.9)	-	106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9 (16.7)	8 (14.8)	14 (25.9)	9 (16.7)	10 (18.5)	2 (3.7)	2 (3.7)	54 (100.0)
	도두동	7 (13.7)	24 (47.1)	14 (27.5)	1 (2.0)	1 (2.0)	3 (5.9)	1 (2.0)	51 (100.0)
	봉개동	7 (12.7)	14 (25.5)	19 (34.5)	4 (7.3)	4 (7.3)	7 (12.7)	-	55 (100.0)
	삼양동	1 (1.7)	21 (35.6)	20 (33.9)	3 (5.1)	8 (13.6)	5 (8.5)	1 (1.7)	59 (100.0)
	애월읍	7 (14.0)	10 (20.0)	16 (32.0)	4 (8.0)	3 (6.0)	9 (18.0)	1 (2.0)	50 (100.0)
	일도2동	1 (1.9)	12 (22.6)	16 (30.2)	6 (11.3)	13 (24.5)	3 (5.7)	2 (3.8)	53 (100.0)
	연동	14 (26.9)	5 (9.6)	12 (23.1)	9 (17.3)	12 (23.1)	-	-	52 (100.0)
	외도동	11 (15.5)	20 (28.2)	22 (31.0)	1 (1.4)	12 (16.9)	5 (7.0)	-	71 (100.0)
	이도2동	11 (16.2)	12 (17.6)	20 (29.4)	4 (5.9)	19 (27.9)	2 (2.9)	-	68 (100.0)
	오라동	9 (17.0)	8 (15.1)	18 (34.0)	7 (3.2)	2 (3.8)	8 (15.6)	1 (0.9)	53 (100.0)
	아라동	11 (13.3)	5 (6.0)	38 (45.8)	6 (7.2)	16 (19.3)	7 (8.4)	-	83 (100.0)
	화북동	5 (7.6)	16 (24.2)	21 (31.8)	3 (4.5)	16 (24.2)	4 (6.1)	1 (1.5)	66 (100.0)

- ① 직장(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② 가족(고향, 결혼 등)      ③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④ 교육(자녀 교육, 학업 등)      ⑤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⑥ 자연환경(건강, 좋은 공기, 전원 생활 등)  
 ⑦ 기타

### 3)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4>와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조금 만족 310명(43.1%), 매우 만족 286명(39.7%)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조금 만족 202명(41.7%), 매우 만족 195명(40.3%)순으로, 남성은 조금 만족 107명(45.7%), 매우 만족 90명(38.5%)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매우 만족 37명(48.7%), 조금 만족 28명(36.8%)순으로, 30대는 조금 만족 38명(46.9%), 매우 만족 33명(40.7%)순으로, 40대는 조금 만족 72명(55.8%), 매우 만족 40명(31.0%)순으로, 50대는 조금 만족 99명(41.6%), 매우 만족 88명(37.0%)순으로, 60대는 매우 만족 60명(43.5%), 조금 만족 54명(39.1%)순으로, 70대 이상은 매우 만족 25명(50.0%), 조금 만족 15명(30.0%)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조금 만족 65명(45.1%), 매우 만족 60명(41.7%)

순으로, 기혼은 조금 만족 222명(43.6%), 매우 만족 193명(37.9%)순으로, 이혼은 조금 만족 11명(47.8%), 매우 만족 8명(34.8%)순으로, 사별은 매우 만족 21명(58.3%), 조금 만족 8명(22.2%)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조금 만족 146명(44.5%), 매우 만족 127명(38.7%)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조금 만족 123명(43.2%), 매우 만족 112명(39.3%)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매우 만족 14명(58.3%), 조금 만족 10명(41.7%)순으로, 고졸은 조금 만족 82명(44.3%), 매우 만족 76명(41.1%)순으로, (전문)대졸은 조금 만족 173명(42.5%), 매우 만족 161명(39.6%)순으로, 대학원 졸은 조금 만족 34명(43.6%), 매우 만족 29명(37.2%)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조금 만족 37명(52.1%), 매우 만족 24명(33.8%)순으로, 2명은 조금 만족 67명(42.1%), 매우 만족 62명(39.0%)순으로, 3명은 조금 만족 64명(43.0%), 매우 만족 58명(38.9%)순으로, 4명은 조금 만족 104명(44.3%), 매우 만족 93명(39.6%)순으로, 5명 이상은 매우 만족 49명(46.2%), 조금 만족 38명(35.8%)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매우 만족 24명(44.4%), 조금 만족 17명(31.5%)순으로, 도두동은 조금 만족 24명(47.1%), 매우 만족 18명(35.3%)순으로, 봉개동은 조금 만족 28명(50.0%), 매우 만족 15명(26.8%)순으로, 삼양동은 매우 만족 37명(62.7%), 조금 만족 16명(27.1%)순으로, 애월읍은 조금 만족 24명(48.0%), 매우 만족 19명(38.0%)순으로, 일도2동은 조금 만족 28명(53.8%), 매우 만족 12명(23.1%)순으로, 연동은 조금 만족 29명(55.8%), 매우 만족 13명(25.0%)순으로, 외도동은 매우 만족 31명(43.1%), 조금 만족 29명(40.3%)순으로, 이도2동은 매우 만족 37명(54.4%), 조금 만족 21명(30.9%)순으로, 오라동은 조금 만족 27명(50.0%), 매우 만족 14명(25.9%)순으로, 아라동은 매우 만족 41명(49.4%), 조금 만족 30명(36.1%)순으로, 화북동은 조금 만족 36명(53.7%), 매우 만족 24명(35.8%)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4>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총계
전체		26 (3.6)	98 (13.6)	310 (43.1)	286 (39.7)	720 (100.0)
성별	여성	21 (4.3)	66 (13.6)	202 (41.7)	195 (40.3)	484 (100.0)
	남성	5 (2.1)	32 (13.7)	107 (45.7)	90 (38.5)	234 (100.0)
연령대	20대	1 (1.3)	10 (13.2)	28 (36.8)	37 (48.7)	76 (100.0)

구분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총계
	30대	2 (2.5)	8 (9.9)	38 (46.9)	33 (40.7)	81 (100.0)
	40대	1 (0.8)	16 (12.4)	72 (55.8)	40 (31.0)	129 (100.0)
	50대	9 (3.8)	42 (17.6)	99 (41.6)	88 (37.0)	238 (100.0)
	60대	7 (5.1)	17 (12.3)	54 (39.1)	60 (43.5)	138 (100.0)
	70대 이상	6 (12.0)	4 (8.0)	15 (30.0)	25 (50.0)	50 (100.0)
결혼 여부	미혼	3 (2.1)	16 (11.1)	65 (45.1)	60 (41.7)	144 (100.0)
	기혼	22 (4.3)	72 (14.1)	222 (43.6)	193 (37.9)	509 (100.0)
	이혼	-	4 (17.4)	11 (47.8)	8 (34.8)	23 (100.0)
	사별	1 (2.8)	6 (16.7)	8 (22.2)	21 (58.3)	36 (100.0)
	기타	-	-	1 (100.0)	-	1 (10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0 (3.0)	45 (13.7)	146 (44.5)	127 (38.7)	328 (100.0)
	맞벌이 아님	11 (3.9)	39 (13.7)	123 (43.2)	112 (39.3)	285 (100.0)
학력	중졸 이하	-	-	10 (41.7)	14 (58.3)	24 (100.0)
	고졸	7 (3.8)	20 (10.8)	82 (44.3)	76 (41.1)	185 (100.0)
	(전문)대졸	13 (3.2)	60 (14.7)	173 (42.5)	161 (39.6)	407 (100.0)
	대학원 졸	4 (5.1)	11 (14.1)	34 (43.6)	29 (37.2)	78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본인)	3 (4.2)	7 (9.9)	37 (52.1)	24 (33.8)	71 (100.0)
	2명	11 (6.9)	19 (11.9)	67 (42.1)	62 (39.0)	159 (100.0)
	3명	5 (3.4)	22 (14.8)	64 (43.0)	58 (38.9)	149 (100.0)
	4명	6 (2.6)	32 (13.6)	104 (44.3)	93 (39.6)	235 (100.0)
	5명 이상	1 (0.9)	18 (17.0)	38 (35.8)	49 (46.2)	106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4 (7.4)	9 (16.7)	17 (31.5)	24 (44.4)	54 (100.0)
	도두동	2 (3.9)	7 (13.7)	24 (47.1)	18 (35.3)	51 (100.0)
	봉개동	1 (1.8)	12 (21.4)	28 (50.0)	15 (26.8)	56 (100.0)
	삼양동	2 (3.4)	4 (6.8)	16 (27.1)	37 (62.7)	59 (100.0)
	애월읍	-	7 (14.0)	24 (48.0)	19 (38.0)	50 (100.0)
	일도2동	4 (7.7)	8 (15.4)	28 (53.8)	12 (23.1)	52 (100.0)
	연동	1 (1.9)	9 (17.3)	29 (55.8)	13 (25.0)	52 (100.0)
	외도동	2 (2.8)	10 (13.9)	29 (40.3)	31 (43.1)	72 (100.0)
	이도2동	3 (4.4)	7 (10.3)	21 (30.9)	37 (54.4)	68 (100.0)

구분	매우 불만족	조금 불만족	조금 만족	매우 만족	총계
오라동	3 (5.6)	10 (18.5)	27 (50.0)	14 (25.9)	54 (100.0)
아라동	3 (3.6)	9 (10.8)	30 (36.1)	41 (49.4)	83 (100.0)
화북동	1 (1.5)	6 (9.0)	36 (53.7)	24 (35.8)	67 (100.0)

#### 4)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거주환경의 변화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5>와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433명(60.6%), 매우 좋아질 것이다 129명(18.0%)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296명(61.5%), 매우 좋아질 것이다 87명(18.1%), 조금 나빠질 것이다 87명(18.1%)순으로, 남성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36명(58.6%), 조금 나빠질 것이다 47명(20.3%)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44명(57.9%), 매우 좋아질 것이다 22명(28.9%)순으로, 30대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52명(64.2%), 매우 좋아질 것이다 18명(22.2%)순으로, 40대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76명(59.4%), 조금 나빠질 것이다 27명(21.1%)순으로, 50대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47명(62.0%), 조금 나빠질 것이다 49명(20.7%)순으로, 60대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75명(55.1%), 조금 나빠질 것이다 34명(25.0%)순으로, 70대 이상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33명(67.3%), 매우 좋아질 것이다 9명(18.4%)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84명(58.3%), 매우 좋아질 것이다 37명(25.7%)순으로, 기혼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312명(62.7%), 조금 나빠질 것이다 102명(20.2%)순으로, 이혼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3명(61.9%), 매우 좋아질 것이다 4명(19.0%), 조금 나빠질 것이다 4명(19.0%)순으로, 사별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9명(52.8%), 매우 좋아질 것이다 9명(25.0%)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209명(63.9%), 조금 나빠질 것이다 60명(18.3%)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58명(56.4%), 매우 좋아질 것이다 61명(21.8%)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5명(62.5%), 매우 좋아질 것이다 5명(20.8%)순으로, 고졸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10명(60.1%), 매우 좋아질 것이다 36명(19.7%)순으로, (전문)대졸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251명(62.0%), 매우 좋아질 것이다 74명(18.3%)순으로, 대학원 졸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44명(57.1%), 조금 나빠질 것이다 18명(23.4%)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40명(57.1%), 매우 좋아질 것이다 15명(21.4%)순

으로, 2명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00명(63.3%), 매우 좋아질 것이다 28명(17.7%) 순으로, 3명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85명(57.4%), 조금 나빠질 것이다 38명(25.7%) 순으로, 4명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146명(62.7%), 매우 좋아질 것이다 129명(18.0%) 순으로, 5명 이상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62명(58.8%), 매우 좋아질 것이다 25명(23.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26명(52.0%), 조금 나빠질 것이다 14명(25.9%) 순으로, 도두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26명(52.0%), 조금 나빠질 것이다 17명(34.0%) 순으로, 봉개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44명(78.6%), 매우 좋아질 것이다 7명(12.5%) 순으로, 삼양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28명(48.3%), 매우 좋아질 것이다 19명(32.8%) 순으로, 애월읍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30명(62.5%), 매우 좋아질 것이다 9명(18.8%) 순으로, 일도2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31명(59.6%), 조금 나빠질 것이다 12명(23.1%) 순으로, 연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22명(42.3%), 조금 나빠질 것이다 18명(34.6%) 순으로, 외도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49명(68.1%), 매우 좋아질 것이다 14명(19.4%) 순으로, 이도2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36명(53.7%), 조금 나빠질 것이다 18명(26.9%) 순으로, 오라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36명(66.7%), 조금 나빠질 것이다 9명(16.7%) 순으로, 아라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62명(74.7%), 매우 좋아질 것이다 17명(20.5%) 순으로, 화북동은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42명(62.7%), 매우 좋아질 것이다 13명(1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5>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 거주환경의 변화

(단위: 명, %)

구분		매우 나빠질 것이다	조금 나빠질 것이다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총계
전체		19 (2.7)	134 (18.6)	433 (60.6)	129 (18.0)	715 (100.0)
성별	여성	11 (2.3)	87 (18.1)	296 (61.5)	87 (18.1)	481 (100.0)
	남성	8 (3.4)	47 (20.3)	136 (58.6)	41 (17.7)	232 (100.0)
연령대	20대	1 (1.3)	9 (11.8)	44 (57.9)	22 (28.9)	76 (100.0)
	30대	4 (4.9)	7 (8.6)	52 (64.2)	18 (22.2)	81 (100.0)
	40대	5 (3.9)	27 (21.1)	76 (59.4)	20 (15.6)	128 (100.0)
	50대	6 (2.5)	49 (20.7)	147 (62.0)	35 (14.8)	237 (100.0)
	60대	2 (1.5)	34 (25.0)	75 (55.1)	25 (18.4)	136 (100.0)
	70대 이상	1 (2.0)	6 (12.2)	33 (67.3)	9 (18.4)	49 (100.0)
결혼 여부	미혼	4 (2.8)	19 (13.2)	84 (58.3)	37 (25.7)	144 (100.0)

구분		매우 나빠질 것이다	조금 나빠질 것이다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매우 좋아질 것이다	총계
	기혼	14 (2.8)	102 (20.2)	312 (61.7)	78 (15.4)	506 (100.0)
	이혼	-	4 (19.0)	13 (61.9)	4 (19.0)	21 (100.0)
	사별	1 (2.8)	7 (19.4)	19 (52.8)	9 (25.0)	36 (100.0)
	기타	-	-	1 (100.0)	-	1 (10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11 (3.4)	60 (18.3)	209 (63.9)	47 (14.4)	327 (100.0)
	맞벌이 아님	7 (2.5)	54 (19.3)	158 (56.4)	61 (21.8)	280 (100.0)
학력	중졸 이하	1 (4.2)	3 (12.5)	15 (62.5)	5 (20.8)	24 (100.0)
	고졸	3 (1.6)	34 (18.6)	110 (60.1)	36 (19.7)	183 (100.0)
	(전문)대졸	10 (2.5)	70 (17.3)	251 (62.0)	74 (18.3)	405 (100.0)
	대학원 졸	5 (6.5)	18 (23.4)	44 (57.1)	10 (13.0)	77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본인)	1 (1.4)	14 (20.0)	40 (57.1)	15 (21.4)	70 (100.0)
	2명	4 (2.5)	26 (16.5)	100 (63.3)	28 (17.7)	158 (100.0)
	3명	4 (2.7)	38 (25.7)	85 (57.4)	21 (14.2)	148 (100.0)
	4명	8 (3.4)	39 (16.7)	146 (62.7)	40 (17.2)	233 (100.0)
	5명 이상	2 (1.9)	17 (16.0)	62 (58.5)	25 (23.6)	106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2 (3.7)	14 (25.9)	26 (52.0)	12 (22.2)	54 (100.0)
	도두동	1 (2.0)	17 (34.0)	26 (52.0)	6 (12.0)	50 (100.0)
	봉개동	-	5 (8.9)	44 (78.6)	7 (12.5)	56 (100.0)
	삼양동	1 (1.7)	10 (17.2)	28 (48.3)	19 (32.8)	58 (100.0)
	애월읍	3 (6.3)	6 (12.5)	30 (62.5)	9 (18.8)	48 (100.0)
	일도2동	6 (11.5)	12 (23.1)	31 (59.6)	3 (5.8)	52 (100.0)
	연동	3 (5.8)	18 (34.6)	22 (42.3)	9 (17.3)	52 (100.0)
	외도동	1 (1.4)	8 (11.1)	49 (68.1)	14 (19.4)	72 (100.0)
	이도2동	-	18 (26.9)	36 (53.7)	13 (19.4)	67 (100.0)
	오라동	2 (3.7)	9 (16.7)	36 (66.7)	7 (13.0)	54 (100.0)
	아라동	-	4 (4.8)	62 (74.7)	17 (20.5)	83 (100.0)
화북동	-	12 (17.9)	42 (62.7)	13 (19.4)	67 (100.0)	

###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순위에

2%, 2순위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순위별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표IV-6>과 같음. 그 결과 교통 문제(주차, 대중교통 불편 등)가 42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민 문화(여가, 스포츠 등)시설 및 (평생)교육 시설 부족이 299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등 주민(선주민과 이주민) 소통 부족 문제가 216점으로 나타남.

<표IV-6>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총계
① 어르신,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 문제	106	27	133
② 의료시설 부족 등 주민건강 문제	114	25	139
③ 이웃에 대한 무관심 등 주민(선주민과 이주민) 소통 부족 문제	156	60	216
④ 쓰레기 등 환경 문제	130	58	188
⑤ 노후된 주택 등 열악한 주거(생활)환경 문제	98	32	130
⑥ 치안 불안 등 안전 문제	28	26	54
⑦ 주민 문화(여가, 스포츠 등)시설 및 (평생)교육 시설 부족	208	91	299
⑧ 자녀 교육의 어려움	46	21	67
⑨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설치 미흡	102	53	155
⑩ 교통 문제(주차, 대중교통 불편 등)	304	122	426
⑪ 공원 등 녹지공간 부족	92	75	167
⑫ 기타	24	9	33
전체	704	599	-

\*다중응답

### 5-1) 현재 거주지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현재 거주지별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표IV-7>과 같음.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24명, 44.4%), 도두동(15명, 29.4%), 일도2동(24명, 45.3%), 연동(25명, 48.1%), 외도동(33명, 45.8%), 이도2동(24명, 36.9%), 오라동(32명, 60.4%), 아라동(36명, 44.4%) 총 8개 지역에서 교통문제(주차, 대중교통 불편 등)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특히 오라동에서는 60% 넘게 나타남. 봉개동(18명, 32.1%), 삼양동(18명, 31.0%), 애월읍(19명, 40.4%), 화북동(25명, 38.5%) 총 4개 지역에서는 주민문화(여가, 스포츠 등) 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됨.

<표 IV-7> 현재 거주지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총계	
현재 거주지	노형동	3 (5.6)	2 (3.7)	18 (33.3)	16 (29.6)	6 (11.1)	5 (9.3)	7 (13.0)	0 (0.0)	8 (14.8)	24 (44.4)	9 (16.7)	1 (1.9)	54
	도두동	7 (13.7)	17 (33.3)	7 (13.7)	7 (13.7)	6 (11.8)	1 (2.0)	7 (13.7)	4 (7.8)	4 (7.8)	15 (29.4)	11 (2.6)	6 (11.8)	51
	봉개동	10 (17.9)	14 (25.0)	7 (12.5)	8 (14.3)	1 (1.8)	0 (0.0)	18 (32.1)	16 (28.6)	8 (14.3)	15 (26.8)	9 (16.1)	1 (1.8)	56
	삼양동	9 (15.5)	9 (15.5)	16 (27.6)	15 (25.9)	2 (3.4)	7 (12.1)	18 (31.0)	2 (3.4)	6 (10.3)	14 (24.1)	8 (13.8)	2 (3.4)	58
	애월읍	7 (14.9)	9 (19.1)	8 (17.0)	6 (12.8)	8 (17.0)	2 (4.3)	19 (40.4)	2 (4.3)	6 (12.8)	11 (23.4)	8 (17.0)	0 (0.0)	47
	일도2동	8 (15.1)	3 (5.7)	8 (15.1)	7 (13.2)	16 (30.2)	3 (5.7)	9 (17.0)	1 (1.9)	12 (22.6)	24 (45.3)	7 (13.2)	1 (1.9)	53
	연동	4 (7.7)	0 (0.0)	12 (23.1)	12 (23.1)	3 (5.8)	5 (9.6)	8 (15.4)	4 (7.7)	8 (15.4)	25 (48.1)	9 (17.3)	2 (3.8)	52
	외도동	6 (8.3)	6 (8.3)	12 (16.7)	11 (15.3)	6 (8.3)	3 (4.2)	25 (34.7)	6 (8.3)	11 (15.3)	33 (45.8)	12 (16.7)	5 (6.9)	72
	이도2동	6 (9.2)	3 (4.6)	18 (27.7)	12 (18.5)	14 (21.5)	2 (3.1)	13 (20.0)	1 (1.5)	9 (13.8)	24 (36.9)	10 (15.4)	0 (0.0)	65
	오라동	4 (7.5)	9 (17.0)	3 (5.7)	3 (5.7)	3 (5.7)	2 (3.8)	15 (28.3)	2 (3.8)	17 (32.1)	32 (60.4)	12 (22.6)	0 (0.0)	53
	아라동	7 (8.6)	1 (1.2)	14 (17.3)	13 (16.0)	3 (3.7)	8 (9.9)	30 (37.0)	5 (6.2)	12 (14.8)	36 (44.4)	19 (23.5)	3 (3.7)	81
	화북동	8 (12.3)	9 (13.8)	15 (23.1)	12 (18.5)	13 (20.0)	2 (3.1)	25 (38.5)	1 (1.5)	3 (4.6)	21 (32.3)	6 (9.2)	0 (0.0)	65
	전체	79 (11.2)	82 (11.6)	138 (19.5)	122 (17.3)	81 (11.5)	40 (5.7)	194 (27.4)	44 (6.2)	104 (14.7)	274 (38.8)	120 (17.0)	21 (3.0)	707 (100.0)

\*다중응답

- ① 어르신,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 문제      ② 의료시설 부족 등 주민건강 문제      ③ 이웃에 대한 무관심 등 주민 (선주민과 이주민) 소통 부족 문제
- ④ 쓰레기 등 환경 문제      ⑤ 노후된 주택 등 열악한 주거생활환경 문제      ⑥ 치안 불안 등 안전 문제
- ⑦ 주민 문화(여가, 스포츠 등) 시설 및 (평생)교육시설 부족      ⑧ 자녀 교육의 어려움      ⑨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로 설치 미흡
- ⑩ 교통 문제(주차, 대중교통 불편 등)      ⑪ 공원 등 녹지공간 부족      ⑫ 기타

### 6)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1순위에 2%, 2순위에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순위별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표IV-8>과 같음. 그 결과 주차 시설이 370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 활동시설이 26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세 번째로는 대중교통 시설이 136점으로 나타났다.

<표 IV-8>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

(단위: 명)

구분	1순위	2순위	총계
① 영유아 돌봄 시설	46	12	58

구분	1순위	2순위	총계
② 아동청소년 돌봄 및 교육 시설	88	30	118
③ 어르신 돌봄 시설	98	18	116
④ 장애인 돌봄 시설	12	11	23
⑤ 종합사회복지관	94	22	116
⑥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 등 안전 시설	116	55	171
⑦ 문화 활동 시설	180	87	267
⑧ 동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	48	44	92
⑨ 주민건강을 위한 의료 시설	68	29	97
⑩ 대중교통 시설	92	44	136
⑪ 주차 시설	296	74	370
⑫ 주민(평생)교육 시설	34	54	88
⑬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	92	30	122
⑭ 공원 등 녹지공간	76	57	133
⑮ 쓰레기 해결 등을 위한 환경 시설	40	33	73
⑯ 체육 시설	32	42	74
⑰ 기타	2	5	7
전체	707	647	-

\*다중응답

### 6-1) 현재 거주지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현재 거주지별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표Ⅳ-9>와 같음.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25명, 46.3%), 일도2동(30명, 56.6%), 연동(28명, 53.8%), 이도2동(24명, 35.8%), 오라동(27명, 50.0%), 아라동(24명, 29.6%) 총 6개 지역에서 주차 시설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꼽았고, 특히 오라동에서는 50% 넘게 나타남. 도두동(12명, 23.5%), 봉개동(15명, 27.3%) 총 2개 지역에서는 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 시설을, 삼양동(16명, 27.6%), 애월읍(12명, 25.0%), 외도동(25명, 34.7%), 아라동(24명, 29.6%), 화북동(25명, 38.5%) 총 5개 지역에서는 문화 활동 시설을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선택함.

<표 IV-9> 현재 거주지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총계		
현재 거주지	노형동	3 (5.6)	6 (11.1)	2 (3.7)	2 (3.7)	10 (18.5)	12 (22.2)	8 (14.8)	4 (7.4)	2 (3.7)	3 (5.6)	25 (46.3)	6 (11.1)	8 (14.8)	5 (9.3)	7 (13.0)	3 (5.6)	0 (0.0)	54	
	도두동	3 (5.9)	8 (15.7)	8 (15.7)	3 (5.9)	7 (13.7)	5 (9.8)	5 (9.8)	6 (11.8)	12 (23.5)	10 (19.6)	5 (9.8)	1 (2.0)	6 (11.8)	8 (15.7)	3 (5.9)	7 (13.7)	0 (0.0)	51	
	봉개동	2 (3.6)	14 (25.5)	6 (10.9)	1 (1.8)	3 (5.5)	8 (14.5)	16 (29.1)	6 (10.9)	15 (27.3)	11 (20.0)	5 (9.1)	3 (5.5)	4 (7.3)	8 (14.5)	2 (3.6)	3 (5.5)	3 (5.5)	1 (1.8)	55
	삼양동	5 (8.6)	8 (13.8)	5 (8.6)	1 (1.7)	8 (13.8)	12 (20.7)	16 (27.6)	3 (5.2)	8 (13.8)	2 (3.4)	14 (24.1)	8 (13.8)	6 (10.3)	1 (1.7)	7 (12.7)	2 (3.4)	2 (3.4)	1 (1.7)	58
	애월읍	1 (2.1)	6 (12.5)	10 (20.8)	1 (2.1)	7 (14.6)	8 (16.7)	12 (25.0)	9 (18.8)	4 (8.3)	9 (18.8)	3 (6.3)	4 (8.3)	4 (8.3)	7 (14.6)	1 (2.1)	3 (6.3)	0 (0.0)	48	
	일도2동	3 (5.7)	8 (15.1)	5 (9.4)	1 (1.9)	1 (1.9)	5 (9.4)	9 (17.0)	3 (5.7)	1 (1.9)	4 (7.5)	30 (56.6)	5 (9.4)	8 (15.1)	6 (11.3)	4 (7.5)	6 (11.3)	0 (0.0)	53	
	연동	3 (5.8)	2 (3.8)	4 (7.7)	2 (3.8)	5 (9.6)	12 (23.1)	10 (19.2)	4 (7.7)	1 (1.9)	6 (11.5)	28 (53.8)	3 (5.8)	1 (1.9)	4 (7.7)	7 (13.5)	3 (5.8)	0 (0.0)	52	
	외도동	4 (5.6)	9 (12.5)	6 (8.3)	1 (1.4)	8 (11.1)	13 (18.1)	25 (34.7)	5 (6.9)	7 (9.7)	10 (13.9)	16 (22.2)	6 (8.3)	6 (8.3)	11 (15.3)	4 (5.6)	4 (5.6)	3 (4.2)	72	
	이도2동	6 (9.0)	5 (7.5)	6 (9.0)	1 (1.5)	4 (6.0)	14 (20.9)	13 (19.4)	10 (14.9)	2 (3.0)	7 (10.4)	24 (35.8)	7 (10.4)	9 (13.4)	5 (7.5)	4 (6.0)	7 (10.4)	0 (0.0)	67	
	오라동	0 (0.0)	1 (1.9)	2 (3.7)	1 (1.9)	4 (7.4)	3 (5.6)	14 (25.9)	1 (1.9)	3 (5.6)	14 (25.9)	27 (50.0)	6 (11.1)	12 (22.2)	12 (22.2)	1 (1.9)	3 (5.6)	0 (0.0)	54	
	아라동	1 (1.2)	4 (4.9)	8 (9.9)	0 (0.0)	2 (2.5)	14 (17.3)	24 (29.6)	10 (12.3)	2 (2.5)	10 (12.3)	24 (29.6)	11 (13.6)	8 (9.9)	19 (23.5)	9 (11.1)	10 (12.3)	0 (0.0)	81	
	화북동	4 (6.2)	3 (4.6)	5 (7.7)	3 (4.6)	9 (13.8)	7 (10.8)	25 (38.5)	7 (10.8)	6 (9.2)	4 (6.2)	19 (29.2)	11 (16.9)	3 (4.6)	9 (13.8)	4 (6.2)	7 (10.8)	0 (0.0)	65	
	전체	35 (4.9)	74 (10.4)	67 (9.4)	17 (2.4)	68 (9.6)	113 (15.9)	177 (24.9)	68 (9.6)	63 (8.9)	90 (12.7)	220 (31.0)	71 (10.0)	75 (10.6)	95 (13.4)	53 (7.5)	58 (8.2)	6 (0.8)	710 (100.0)	

\*다중응답

- |                      |                            |                      |                        |
|----------------------|----------------------------|----------------------|------------------------|
| ① 영유아 돌봄 시설          | ② 아동청소년 돌봄 및 교육 시설         | ③ 어르신 돌봄 시설          | ④ 장애인 돌봄 시설            |
| ⑤ 종합사회복지관            | ⑥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 등 안전 시설 | ⑦ 문화 활동 시설           | ⑧ 동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 |
| ⑨ 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 시설    | ⑩ 대중교통 시설                  | ⑪ 주차 시설              | ⑫ 주민(평생)교육 시설          |
| ⑬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 | ⑭ 공원 등 녹지공간                | ⑮ 쓰레기 해결 등을 위한 환경 시설 | ⑯ 체육 시설                |
| ⑰ 기타                 |                            |                      |                        |

## 7) 지역 간 불균형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제주도내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10>과 같음.

소득 및 자산(거주지역 주민의 평균적 소득 수준 등)은 조금 심각함(220명, 31.6%), 매우 심각함(35명, 5.0%), 주거(주택 및 주변시설 낙후 정도 등)는 조금 심각함(222명, 32.0%), 매우 심각함(36명, 5.2%), 일자리(일자리 수, 일자리 질, 임금 수준 등)는 조금 심각함(263명, 38.3%), 매우 심각함(85명, 12.4%), 교육시설 및 서비스(초중고등학교, 사설학원 등)는 조금 심각함(184명, 26.7%), 매우 심각함(43명, 6.2%), 사회복지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제공 서비스 등)는 조금 심각함(249명, 36.1%), 매우 심각함(40명, 5.8%), 의료시설 및 서비스(병원, 의원 등)는 조금 심각함(168명, 24.2%), 매우 심각함(75명, 10.8%), 생활편의시설(마트, 편의점, 미용실, 식당 등)은 조금 심각함(132명, 19.0%), 매우 심각함(30명, 4.3%), 문화(여가)시설(문화센터 등)은 조금 심각함(275명, 39.9%), 매우 심각함(79명, 11.4%), 대중교통은 조금 심각함(171명, 24.6%), 매우 심각함(57명, 8.2%), 공원 등 녹지공간은 조금 심각함(197명, 28.6%), 매우 심각함(69명, 10.0%), 체육 시설(걷기 시설, 공원 내 운동기구, 체육관 등)은 조금 심각함(229명, 34.1%), 매우 심각함(66명, 10.0%),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은 조금 심각함(160명, 25.3%), 매우 심각함(14명, 2.2%)과 같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표Ⅳ-10> 지역 간 불균형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② 별로 심각하지 않음	③ 조금 심각함	④ 매우 심각함	총계	평균
① 소득 및 자산 (거주지역 주민의 평균적 소득 수준 등)	59 (8.5)	382 (54.9)	220 (31.6)	35 (5.0)	696 (100.0)	2.33
② 주거 (주택 및 주변시설 낙후 정도 등)	67 (9.7)	368 (53.1)	222 (32.0)	36 (5.2)	693 (100.0)	2.33
③ 일자리 (일자리 수, 일자리 질, 임금 수준 등)	54 (7.9)	285 (41.5)	263 (38.3)	85 (12.4)	687 (100.0)	2.55
④ 교육시설 및 서비스 (초중고등학교, 사설학원 등)	118 (17.1)	344 (49.9)	184 (26.7)	43 (6.2)	689 (100.0)	2.22
⑤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제공 서비스 등)	67 (9.7)	333 (48.3)	249 (36.1)	40 (5.8)	689 (100.0)	2.38
⑥ 의료시설 및 서비스 (병원, 의원 등)	105 (15.2)	345 (49.8)	168 (24.2)	75 (10.8)	693 (100.0)	2.31
⑦ 생활편의시설 (마트, 편의점, 미용실, 식당 등)	160 (23.0)	373 (53.7)	132 (19.0)	30 (4.3)	695 (100.0)	2.05
⑧ 문화(여가)시설(문화센터 등)	80 (11.6)	256 (37.1)	275 (39.9)	79 (11.4)	690 (100.0)	2.51
⑨ 대중교통	139 (20.0)	328 (47.2)	171 (24.6)	57 (8.2)	695 (100.0)	2.21

구분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② 별로 심각하지 않음	③ 조금 심각함	④ 매우 심각함	총계	평균
⑩ 공원 등 녹지공간	104 (15.1)	320 (46.4)	197 (28.6)	69 (10.0)	690 (100.0)	2.33
⑪ 체육 시설 (걷기 시설, 공원 내 운동기구, 체육관 등)	89 (13.3)	287 (42.8)	229 (34.1)	66 (9.8)	671 (100.0)	2.41
⑫ 기타	-	-	-	-	-	-
⑬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	71 (11.2)	388 (61.3)	160 (25.3)	14 (2.2)	633 (100.0)	2.18

### 7-1) 현재 거주지별 지역 간 불균형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제주도내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현재 거주지별 분석 결과는 <표Ⅳ-11>과 같음.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도두동은 대중교통(2.57) 총 1개 항목에서, 애월읍은 소득 및 자산(거주 지역 주민의 평균적 소득 수준 등)(2.53),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2.49) 총 2개 항목에서, 일도2동은 주거(주택 및 주변시설 낙후 정도 등)(2.61) 총 1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특히 봉개동은 일자리(일자리 수, 일자리 질, 임금 수준 등)(3.00), 교육시설 및 서비스(초중고등학교, 사설학원 등)(2.84), 사회복지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제공 서비스 등)(2.89), 의료시설 및 서비스(병원, 의원 등)(3.00) 총 4개 항목에서, 오라동은 생활편의시설(마트, 편의점, 미용실, 식당 등)(2.55), 문화(여가)시설(문화센터 등)(2.87), 공원 등 녹지공간(2.94), 체육 시설(걷기 시설, 공원 내 운동기구, 체육관 등)(2.94) 총 4개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노형동, 삼양동, 연동, 외도동, 이도2동, 아라동, 화북동은 타 동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낮게 나타남.

<표 IV-11> 현재 거주지별 지역 간 불균형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현재 거주지	노형동	52(2.46)	52(2.23)	51(2.49)	51(2.04)	50(2.30)	50(1.86)	49(1.69)	50(2.36)	51(1.94)	49(2.29)	49(2.41)	0(0.0)	46(2.13)
	도두동	48(2.40)	48(2.42)	47(2.62)	46(2.39)	49(2.53)	48(2.75)	48(2.19)	48(2.52)	49(2.57)	49(2.37)	46(2.39)	0(0.0)	44(2.20)
	봉개동	55(2.45)	55(2.47)	55(3.00)	55(2.84)	55(2.89)	55(3.00)	55(2.27)	55(2.82)	55(2.29)	55(2.58)	54(2.78)	0(0.0)	47(2.45)
	삼양동	57(2.25)	57(2.05)	55(2.58)	57(1.86)	57(2.21)	57(2.33)	57(1.96)	57(2.33)	56(1.96)	57(2.00)	58(2.05)	0(0.0)	51(1.98)
	애월읍	47(2.53)	46(2.48)	46(2.80)	46(2.61)	46(2.50)	46(2.67)	47(2.32)	48(2.83)	46(2.35)	45(2.58)	40(2.60)	0(0.0)	39(2.49)
	일도2동	51(2.22)	51(2.61)	52(2.44)	51(2.20)	51(2.27)	51(2.12)	51(2.10)	49(2.37)	51(2.08)	51(2.02)	50(2.16)	0(0.0)	49(2.16)
	연동	50(2.32)	50(2.42)	50(2.54)	51(2.08)	50(2.60)	51(2.20)	51(2.00)	50(2.52)	52(2.29)	51(2.37)	47(2.43)	0(0.0)	48(2.31)
	외도동	69(2.26)	69(2.10)	69(2.42)	68(2.32)	68(2.35)	69(2.25)	70(2.06)	69(2.46)	69(2.39)	70(2.31)	69(2.30)	0(0.0)	66(2.12)
	이도2동	64(2.14)	65(2.23)	62(2.21)	65(1.80)	63(2.11)	65(1.89)	66(1.77)	64(2.09)	65(2.02)	63(2.06)	60(2.03)	0(0.0)	60(1.90)
	오라동	53(2.19)	53(2.45)	53(2.72)	53(2.66)	53(2.62)	53(2.79)	53(2.55)	53(2.87)	53(2.75)	53(2.94)	53(2.94)	0(0.0)	46(2.41)
	아라동	83(2.45)	81(2.22)	80(2.44)	81(2.04)	80(2.11)	81(1.91)	81(1.93)	81(2.60)	81(2.10)	80(2.33)	79(2.58)	0(0.0)	74(2.09)
화북동	65(2.35)	64(2.42)	65(2.54)	63(2.08)	65(2.26)	65(2.28)	65(1.91)	64(2.41)	65(1.94)	65(2.25)	64(2.25)	0(0.0)	61(2.18)	
전체	694(2.33)	691(2.33)	685(2.55)	687(2.22)	687(2.38)	691(2.31)	693(2.05)	688(2.51)	693(2.21)	688(2.33)	669(2.40)	0(0.0)	631(2.18)	
	F=1.825*	F=3.315**	F=3.776***	F=10.769***	F=6.434***	F=13.562***	F=5.724***	F=4.544***	F=5.636***	F=5.756***	F=6.756***	-	F=4.110***	

① 소득 및 자산  
(거주 지역 주민의 평균적 소득 수준 등)

② 주거(주택 및 주변시설 낙후 정도 등)

③ 일자리  
(일자리 수, 일자리 질, 임금 수준 등)

④ 교육시설 및 서비스  
(초중고등학교, 사설학원 등)

⑤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제공 서비스 등)

⑥ 의료시설 및 서비스(병원, 의원 등)

⑦ 생활편의시설  
(마트, 편의점, 미용실, 식당 등)

⑧ 문화(여가)시설(문화센터 등)

⑨ 대중교통

⑩ 공원 등 녹지공간

⑪ 체육 시설  
(걷기 시설, 공원 내 운동기구, 체육관 등)

⑫ 기타

⑬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

## 다. 돌봄

### [아동 돌봄]

#### 1) 방과 후에 주로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방과 후에 주로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표Ⅳ-12>와 같음.

분석 결과를 보면,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방과후 학교(167(24.9))가 높게 나타났고, 초등돌봄교실(96(14.3))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Ⅳ-12> 방과 후에 주로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  
(n=671)

구분	빈도(명)	비율(%)
① 늘봄학교	31	3.3
② 꿈나눔 초등주말돌봄센터	11	1.2
③ 초등돌봄교실	96	10.2
④ 방과후 학교	167	17.8
⑤ 지역아동센터	57	6.1
⑥ 다함께돌봄센터	31	3.3
⑦ 공동육아나눔터	21	2.2
⑧ 아동돌봄서비스	39	4.2
⑨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9	3.1
⑩ 아동청소년보호사업(종합사회복지관 등)	28	3.0
⑪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26	2.8
⑫ 기타	30	3.2
⑬ 해당 없음	371	39.6
전체	937	100.0

\*다중응답

#### 2) 현재 아동돌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현재 아동돌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13>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양육비, 교육비 지원 174명(26.6%),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11명(17.0%)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00명(23.0%),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76명(17.5%)순으로, 남성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74명(33.9%),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35명(16.1%)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양육비, 교육비 지원 24명(33%),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21명(29.2%)순으로, 30대는 양육비, 교육비 지원 26명(33.3%),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2명(15.4%)순으로, 40대는 양육비, 교육비 지원 33명(27.0%),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9명(15.6%)순으로, 50대는 양육비, 교육비 지원 46명(22.4%),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37명(18.0%)순으로, 60대는 양육비, 교육비 지원 30명(24.2%),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23명(18.5%)순으로, 70대 이상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3명(28.3%), 기타 10명(21.7%)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41명(30.8%),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22명(16.5%)순으로, 기혼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15명(25.0%),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82명(17.8%)순으로, 이혼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4명(19.0%), (공적)돌봄 제공 시간 확대 3명(14.3%),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3명(14.3),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3명(14.3%),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3명(14.3%)순으로, 사별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4명(42.4%), (공적)돌봄 제공 시간 확대 5명(15.2%)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양육비, 교육비 지원 80명(26.9%),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48명(16.2%)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67명(25.3%),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46명(17.4%)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양육비, 교육비 지원 9명(39.1%), 기타 6명(26.1%)순으로, 고졸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48명(28.4%),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37명(21.9%)순으로, (전문)대졸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90명(24.7%),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59명(16.2%)순으로, 대학원 졸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21명(28.8%),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3명(17.8%)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6명(24.2%),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5명(22.7%)순으로, 2명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46명(22.4%),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37명(18.0%)순으로, 3명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36명(25.7%),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23명(16.4%)순으로, 4명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61명(28.9%),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33명(15.6%)순으로, 5명 이상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28명(28.9%),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7명(17.5%)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4명(28.6%), (공적)돌봄 제공 시간 확대 7명(14.3%)순으로, 도두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9명(38.8%), (공적)돌봄 시간 확대 6명(12.2%)순으로, 봉개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7명(30.9%),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6명(29.1%)순으로, 삼양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0명(19.6%), 돌봄 인력 전문성 향상 8명(15.7%)순으로, 애월읍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0명(21.7%),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9명(19.6%)순으로, 일도2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2명(26.1%),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8명(17.4%)순으로, 연동은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2명(26.7%), 양육비, 교육비 지원 10명(22.2%),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10명(22.2%)순으로, 외도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20명(27.8%),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1명(15.3%)순으로, 이도2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8명(33.3%),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 8명(14.8%)순으로, 오라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3명(27.1%),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8명(16.7%)순으로 아라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7명(22.7%),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1명(14.7%)순으로, 화북동은 양육비, 교육비 지원 13명(21.0%),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13명(21.0%), (공적) 돌봄 제공 시간 확대 10명(16.1%)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3> 현재 아동돌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총계	
전체	174 (26.6)	72 (11.0)	40 (6.1)	111 (17.0)	46 (7.0)	3 (0.5)	10 (1.5)	30 (4.6)	40 (6.1)	88 (13.5)	40 (5.5)	654 (100.0)	
성별	여성	100 (23.0)	50 (11.5)	28 (6.5)	76 (17.5)	35 (8.1)	3 (0.7)	7 (1.6)	21 (4.8)	29 (6.7)	58 (13.4)	27 (6.2)	434 (100.0)
	남성	74 (33.9)	22 (10.1)	12 (5.5)	35 (16.1)	11 (5.0)	0 (0.0)	2 (0.9)	9 (4.1)	11 (5.0)	29 (13.3)	13 (6.0)	218 (100.0)
연령대	20대	24 (33.3)	3 (4.2)	2 (2.8)	9 (12.5)	3 (4.2)	0 (0.0)	2 (2.8)	2 (2.8)	3 (4.2)	21 (29.2)	3 (4.2)	72 (100.0)
	30대	26 (33.3)	11 (14.1)	3 (3.8)	12 (15.4)	3 (3.8)	0 (0.0)	0 (0.0)	2 (2.6)	9 (11.5)	10 (12.8)	2 (2.6)	78 (100.0)
	40대	33 (27.0)	18 (14.8)	13 (10.7)	19 (15.6)	12 (9.8)	1 (0.8)	0 (0.0)	4 (3.3)	5 (4.1)	10 (8.2)	7 (5.7)	122 (100.0)
	50대	46 (22.4)	25 (12.2)	10 (4.9)	37 (18.0)	18 (8.8)	0 (0.0)	5 (2.4)	13 (6.3)	9 (4.4)	31 (15.1)	11 (5.4)	205 (100.0)
	60대	30 (24.2)	13 (10.5)	10 (8.1)	23 (18.5)	10 (8.1)	1 (0.8)	3 (2.4)	5 (4.0)	11 (8.9)	11 (8.9)	7 (5.6)	124 (100.0)
	70대 이상	13 (28.3)	1 (2.2)	2 (4.3)	9 (19.6)	0 (0.0)	0 (0.0)	0 (0.0)	3 (6.5)	3 (6.5)	5 (10.9)	10 (21.7)	46 (100.0)
결혼부	미혼	41 (30.8)	13 (9.8)	8 (6.0)	22 (16.5)	6 (4.5)	0 (0.0)	2 (1.5)	5 (3.8)	5 (3.8)	22 (16.5)	9 (6.8)	133 (100.0)
	기혼	115 (25.0)	51 (11.1)	26 (5.7)	82 (17.8)	35 (7.6)	3 (0.7)	6 (1.3)	20 (4.3)	34 (7.4)	61 (13.3)	27 (5.9)	460 (100.0)
	이혼	4 (19.0)	3 (14.3)	3 (14.3)	3 (14.3)	2 (9.5)	0 (0.0)	0 (0.0)	3 (14.3)	0 (0.0)	1 (4.8)	2 (9.5)	21 (100.0)
	사별	14 (42.4)	5 (15.2)	2 (6.1)	3 (9.1)	1 (3.0)	0 (0.0)	2 (6.1)	1 (3.0)	1 (3.0)	3 (9.1)	1 (3.0)	33 (10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80 (26.9)	40 (13.5)	16 (5.4)	48 (16.2)	23 (7.7)	0 (0.0)	3 (1.0)	11 (3.7)	18 (6.1)	42 (14.1)	16 (5.4)	297 (100.0)
	맞벌이 아님	67 (25.3)	26 (9.8)	19 (7.2)	46 (17.4)	14 (5.3)	1 (0.4)	3 (1.1)	14 (5.3)	16 (6.0)	37 (14.0)	22 (8.3)	265 (100.0)
학력	중졸 이하	9 (39.1)	1 (4.3)	1 (4.3)	1 (4.3)	1 (4.3)	0 (0.0)	0 (0.0)	0 (0.0)	0 (0.0)	4 (17.4)	6 (26.1)	23 (100.0)
	고졸	48 (28.4)	15 (8.9)	10 (5.9)	37 (21.9)	7 (4.1)	0 (0.0)	4 (2.4)	8 (4.7)	8 (4.7)	21 (12.4)	11 (6.5)	169 (100.0)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4명(18.9%),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14명(18.9%),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13명(17.6%), 지역아동센터 13명(17.6%)순으로, 30대는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16명(20.8%), 지역아동센터 15명(19.5%)순으로, 40대는 지역아동센터 24명(19.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1명(17.4%)순으로, 50대는 다함께돌봄센터 42명(20.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0명(19.7%)순으로, 60대는 다함께돌봄센터 22명(17.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2명(17.6%),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16명(12.8%)순으로, 70대 이상은 기타 10명(20.8%),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8명(16.7%)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지역아동센터 26명(19.4%),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25명(18.7%)순으로, 기혼은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70명(15.3%), 다함께돌봄센터 65명(14.2%)순으로, 이혼은 다함께돌봄센터 5명(22.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명(18.2%)순으로, 사별은 지역아동센터 8명(22.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명(20.0%)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55명(18.7%),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44명(15.0%)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지역아동센터 51명(19.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2명(15.7%)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기타 5명(20.8%),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4명(16.7%)순으로, 고졸은 다함께돌봄센터 29명(17.0%),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26명(15.2%)순으로, (전문)대졸은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65명(17.9%),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47명(12.9%), 지역아동센터 47명(12.9%)순으로, 대학원 졸업은 다함께돌봄센터 14명(19.7%), 지역아동센터 14명(19.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3명(18.3%)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2명(18.2%),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11명(16.7%)순으로, 2명은 다함께돌봄센터 24명(17.0%),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23명(16.3%)순으로, 3명은 지역아동센터 24명(17.1%),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21명(15.0%)순으로, 4명은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40명(19.0%),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34명(16.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4명(16.1%)순으로, 5명 이상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7명(27.8%), 지역아동센터 23명(23.7%)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2명(23.1%),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9명(17.3%)순으로, 도두동은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14명(27.5%), 지역아동센터 9명(17.6%)순으로, 봉개동은 지역아동센터 15명(27.3%),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9명(16.4%)순으로, 삼양동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4명(27.5%),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9명(17.6%)순으로, 애월읍은 다함께돌봄센터 9명(20.5%),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8명(18.2%)순으로, 일도2동은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9명(19.6%), 지역아동센터 8명(17.4%)순으로, 연동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명(22.7%),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7명(15.9%), 지역아동센터 7명(15.9%),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7명(15.9%)순으로, 의도동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2명(30.6%),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11명(15.3%)순으로, 이도2동은 다함께돌봄센터 12명(20.7%),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10명(17.2%)순으로, 오라동은 지역아동센터 10명(21.3%), 다함께돌봄센터 8명(17.0%)순으로, 아라동은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11명(15.5%), 다함께돌봄센터 10명(14.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명(14.1%)순으로, 화북동은 지역아동센터 12명(19.4%),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11명(17.7%)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4> 우리 동네에 아동돌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총계	
전체	81 (12.4)	87 (13.3)	100 (15.3)	112 (17.1)	60 (9.2)	27 (4.1)	102 (15.6)	47 (7.2)	39 (6.0)	655 (100.0)	
성별	여성	41 (9.4)	62 (14.3)	61 (14.0)	72 (16.6)	39 (9.0)	16 (3.7)	76 (17.5)	39 (9.0)	435 (100.0)	
	남성	40 (18.3)	24 (11.0)	39 (17.9)	39 (17.9)	21 (9.6)	11 (5.0)	26 (11.9)	8 (3.7)	218 (100.0)	
연령대	20대	13 (17.6)	5 (6.8)	13 (17.6)	14 (18.9)	8 (10.8)	0 (0.0)	14 (18.9)	4 (5.4)	3 (4.1)	74 (100.0)
	30대	14 (18.2)	3 (3.9)	15 (19.5)	11 (14.3)	6 (7.8)	2 (2.6)	16 (20.8)	9 (11.7)	1 (1.3)	77 (100.0)
	40대	11 (9.1)	9 (7.4)	24 (19.8)	21 (17.4)	20 (16.5)	8 (6.6)	16 (13.2)	5 (4.1)	7 (5.8)	121 (100.0)
	50대	21 (10.3)	42 (20.7)	27 (13.3)	40 (19.7)	15 (7.4)	7 (3.4)	30 (14.8)	11 (5.4)	10 (4.9)	203 (100.0)
	60대	15 (12.0)	22 (17.6)	14 (11.2)	22 (17.6)	9 (7.2)	5 (4.0)	16 (12.8)	14 (11.2)	8 (6.4)	125 (100.0)
	70대 이상	5 (10.4)	5 (10.4)	6 (12.5)	4 (8.3)	2 (4.2)	5 (10.4)	8 (16.7)	3 (6.3)	10 (20.8)	48 (100.0)
결혼여부	미혼	20 (14.9)	11 (8.2)	26 (19.4)	22 (16.4)	13 (9.7)	1 (0.7)	25 (18.7)	9 (6.7)	7 (5.2)	134 (100.0)
	기혼	56 (12.3)	65 (14.2)	63 (13.8)	77 (16.8)	40 (8.8)	24 (5.3)	70 (15.3)	33 (7.2)	29 (6.3)	457 (100.0)
	이혼	1 (4.5)	5 (22.7)	3 (13.6)	4 (18.2)	2 (9.1)	1 (4.5)	2 (9.1)	3 (13.6)	1 (4.5)	22 (100.0)
	사별	3 (8.6)	4 (11.4)	8 (22.9)	7 (20.0)	3 (8.6)	1 (2.9)	5 (14.3)	2 (5.7)	2 (5.7)	35 (100.0)
	기타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37 (12.6)	35 (11.9)	38 (12.9)	55 (18.7)	33 (11.2)	17 (5.8)	44 (15.0)	18 (6.1)	17 (5.8)	294 (100.0)
	맞벌이 아님	32 (12.0)	35 (13.1)	51 (19.1)	42 (15.7)	22 (8.2)	7 (2.6)	37 (13.9)	22 (8.2)	19 (7.1)	267 (100.0)
학력	중졸 이하	4 (16.7)	2 (8.3)	3 (12.5)	2 (8.3)	3 (12.5)	2 (8.3)	3 (12.5)	0 (0.0)	5 (20.8)	24 (100.0)
	고졸	15 (8.8)	29 (17.0)	31 (18.1)	25 (14.6)	16 (9.4)	4 (2.3)	26 (15.2)	15 (8.8)	10 (5.8)	171 (100.0)
	(전문) 대졸	47 (12.9)	38 (10.4)	47 (12.9)	70 (19.2)	34 (9.3)	16 (4.4)	65 (17.9)	26 (7.1)	21 (5.8)	364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총계
가족 구성원 수	대학원 졸	11 (15.5)	14 (19.7)	14 (19.7)	13 (18.3)	6 (8.5)	2 (2.8)	5 (7.0)	5 (7.0)	1 (1.1)	71 (100.0)
	1명 (본인)	4 (6.1)	9 (13.6)	9 (13.6)	12 (18.2)	4 (6.1)	2 (3.0)	11 (16.7)	6 (9.1)	9 (13.6)	66 (100.0)
	2명	23 (16.3)	24 (17.0)	16 (11.3)	19 (13.5)	14 (9.9)	7 (5.0)	20 (14.2)	8 (5.7)	10 (7.1)	141 (100.0)
	3명	16 (11.4)	20 (14.3)	24 (17.1)	20 (14.3)	15 (10.7)	7 (5.0)	21 (15.0)	9 (6.4)	8 (5.7)	140 (100.0)
	4명	34 (16.1)	24 (11.4)	28 (13.3)	34 (16.1)	17 (8.1)	4 (1.9)	40 (19.0)	19 (9.0)	11 (5.2)	211 (100.0)
	5명 이상	4 (4.1)	10 (10.3)	23 (23.7)	27 (27.8)	10 (10.3)	7 (7.2)	10 (10.3)	5 (5.2)	1 (1.0)	97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4 (7.7)	8 (15.4)	6 (11.5)	12 (23.1)	4 (7.7)	2 (3.8)	9 (17.3)	4 (7.7)	3 (5.8)	52 (100.0)
	도두동	14 (27.5)	4 (7.8)	9 (17.6)	3 (5.9)	2 (3.9)	2 (3.9)	7 (13.7)	3 (5.9)	7 (13.7)	51 (100.0)
	봉개동	5 (9.1)	6 (10.9)	15 (27.3)	5 (9.1)	6 (10.9)	2 (3.6)	9 (16.4)	4 (7.3)	3 (5.5)	55 (100.0)
	삼양동	5 (9.8)	7 (13.7)	4 (7.8)	14 (27.5)	4 (7.8)	0 (0.0)	9 (17.6)	3 (5.9)	5 (9.8)	51 (100.0)
	애월읍	4 (9.1)	9 (20.5)	5 (11.4)	7 (15.9)	5 (11.4)	3 (6.8)	8 (18.2)	1 (2.3)	2 (4.5)	44 (100.0)
	일도2동	6 (13.0)	4 (8.7)	8 (17.4)	6 (13.0)	6 (13.0)	3 (6.5)	9 (19.6)	1 (2.2)	3 (6.5)	46 (100.0)
	연동	7 (15.9)	3 (6.8)	7 (15.9)	10 (22.7)	3 (6.8)	2 (4.5)	7 (15.9)	4 (9.1)	1 (2.3)	44 (100.0)
	외도동	3 (4.2)	8 (11.1)	7 (9.7)	22 (30.6)	4 (5.6)	2 (2.8)	11 (15.3)	8 (11.1)	7 (9.7)	72 (100.0)
	이도2동	10 (17.2)	12 (20.7)	9 (15.5)	8 (13.8)	2 (3.4)	4 (6.9)	6 (10.3)	7 (12.1)	0 (0.0)	58 (100.0)
	오라동	4 (8.5)	8 (17.0)	10 (21.3)	6 (12.8)	7 (14.9)	2 (4.3)	6 (12.8)	4 (8.5)	0 (0.0)	47 (100.0)
	아라동	11 (15.5)	10 (14.1)	8 (11.3)	10 (14.1)	9 (12.7)	3 (4.2)	9 (12.7)	3 (4.2)	8 (11.3)	71 (100.0)
	화북동	8 (12.9)	8 (12.9)	12 (19.4)	9 (14.5)	7 (11.3)	2 (3.2)	11 (17.7)	5 (8.1)	0 (0.0)	62 (100.0)

- ①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② 다함께돌봄센터      ③ 지역아동센터  
 ④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⑤ 초등주말돌봄센터      ⑥ 늘봄학교  
 ⑦ 일시돌봄 및 긴급돌봄 시설      ⑧ 공동육아나눔터      ⑨ 기타

## [청소년 돌봄]

### 4) 우리 지역의 청소년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우리 지역의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15>와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222명(32.6%),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112명(16.5%)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49명(33.0%),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81명(18.0%)순으로, 남성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73명(32.2%),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30명

(13.2%)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23명(31.5%),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12명(16.4%)순으로, 30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25명(32.1%),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14명(17.9%)순으로, 40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52명(40.9%),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20명(15.7%)순으로, 50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79명(35.9%),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32명(14.5%)순으로, 60대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32명(24.8%),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22명(17.1%)순으로, 70대 이상은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11명(23.9%), 기타 8명(17.4%)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44명(32.1%),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25명(18.2%)순으로, 기혼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59명(33.1%),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77명(16.0%)순으로, 이혼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6명(27.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4명(18.2%)순으로, 사별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1명(33.3%),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6명(18.2%)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11명(35.7%),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52명(16.7%)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77명(28.6%),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49명(18.2%)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청소년학습 지원 확대(학습프로그램, 교재비 등) 6명(25.0%), 기타 5명(20.8%)순으로, 고졸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55명(31.8%),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27명(15.6%)순으로, (전문)대졸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37명(35.8%),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64명(16.7%)순으로, 대학원 졸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20명(27.0%),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문화의집 등) 14명(18.9%),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14명(18.9%)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23명(32.9%),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10명(14.3%)순으로, 2명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43명(29.5%),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30명(20.5%)순으로, 3명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35명(24.6%),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26명(18.3%)순으로, 4명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77명(34.7%),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35명(15.8%)순으로, 5명 이상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44명(44.0%), 청소년학습 지원 확대(학습프로

그램, 교재비 등) 12명(12.0%)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24명(45.3%),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7명(13.2%)순으로, 도두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2명(23.5%), 청소년학습 지원 확대(학습프로그램, 교재비 등) 10명(19.6%)순으로, 봉개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5명(27.3%),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문화의집 등) 9명(16.4%)순으로, 삼양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20명(39.2%),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9명(17.6%)순으로, 애월읍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6명(34.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8명(17.0%),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8명(17.0%)순으로, 일도2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4명(28.6%),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11명(22.4%)순으로, 연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9명(19.1%),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8명(17.0%)순으로, 외도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30명(4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8명(11.1%)순으로, 이도2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9명(32.2%),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13명(22.0%)순으로, 오라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18명(35.3%), 청소년학습 지원 확대(학습프로그램, 교재비 등) 6명(11.8%)순으로, 아라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23명(28.7%),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20명(25.0%)순으로, 화북동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23명(36.5%),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확대 16명(25.4%)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5> 우리 지역의 청소년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총계	
전체	222 (32.6)	71 (10.4)	64 (9.4)	112 (16.5)	40 (5.9)	62 (9.1)	32 (4.7)	22 (3.2)	15 (2.2)	22 (3.2)	18 (2.6)	680 (100.0)	
성별	여성	149 (33.0)	50 (11.1)	46 (10.2)	81 (18.0)	23 (5.1)	35 (7.8)	16 (3.5)	15 (3.3)	10 (2.2)	14 (3.1)	12 (2.7)	451 (100.0)
	남성	73 (32.2)	21 (9.3)	18 (7.9)	30 (13.2)	17 (7.5)	26 (11.5)	16 (7.0)	7 (3.1)	5 (2.2)	8 (3.5)	6 (2.6)	227 (100.0)
연령대	20대	23 (31.5)	6 (8.2)	9 (12.3)	12 (16.4)	5 (6.8)	4 (5.5)	0 (0.0)	3 (4.1)	1 (1.4)	8 (11.0)	2 (2.7)	73 (100.0)
	30대	25 (32.1)	9 (11.5)	5 (6.4)	14 (17.9)	10 (12.8)	7 (9.0)	4 (5.1)	1 (1.3)	1 (1.3)	1 (1.3)	1 (1.3)	78 (100.0)
	40대	52 (40.9)	9 (7.1)	5 (3.9)	20 (15.7)	10 (7.9)	15 (11.8)	3 (2.4)	1 (0.8)	7 (5.5)	4 (3.1)	1 (0.8)	127 (100.0)
	50대	79 (35.9)	25 (11.4)	26 (11.8)	32 (14.5)	8 (3.6)	18 (8.2)	13 (5.9)	6 (2.7)	4 (1.8)	6 (2.7)	3 (1.4)	220 (100.0)
	60대	32 (24.8)	20 (15.5)	18 (14.0)	22 (17.1)	5 (3.9)	9 (7.0)	9 (7.0)	9 (7.0)	1 (0.8)	1 (0.8)	3 (2.3)	129 (100.0)
	70대 이상	7 (15.2)	2 (4.3)	1 (2.2)	11 (23.9)	1 (2.2)	8 (17.4)	3 (6.5)	2 (4.3)	1 (2.2)	2 (4.3)	8 (17.4)	46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총계	
결혼여부	미혼	44 (32.1)	11 (8.0)	14 (10.2)	25 (18.2)	14 (10.2)	8 (5.8)	2 (1.5)	6 (4.4)	1 (0.7)	10 (7.3)	2 (1.5)	137 (100.0)	
	기혼	159 (33.1)	57 (11.9)	41 (8.5)	77 (16.0)	23 (4.8)	45 (9.4)	28 (5.8)	12 (2.5)	14 (2.9)	11 (2.3)	14 (2.9)	481 (100.0)	
	이혼	6 (27.3)	2 (9.1)	4 (18.2)	3 (13.6)	2 (9.1)	2 (9.1)	1 (4.5)	1 (4.5)	0 (0.0)	0 (0.0)	0 (0.0)	1 (4.5)	22 (100.0)
	사별	11 (33.3)	1 (3.0)	5 (15.2)	6 (18.2)	0 (0.0)	6 (18.2)	0 (0.0)	0 (9.1)	3 (0.0)	0 (0.0)	0 (0.0)	1 (4.5)	33 (100.0)
	기타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111 (35.7)	35 (11.3)	28 (9.0)	52 (16.7)	15 (4.8)	29 (9.3)	15 (4.8)	6 (1.9)	10 (3.2)	6 (1.9)	4 (1.3)	311 (100.0)	
	맞벌이아님	77 (28.6)	26 (9.7)	27 (10.0)	49 (18.2)	17 (6.3)	25 (9.3)	12 (4.5)	11 (4.1)	2 (0.7)	11 (4.1)	12 (4.5)	269 (100.0)	
학력	중졸이하	1 (4.2)	0 (0.0)	3 (12.5)	3 (12.5)	0 (0.0)	6 (25.0)	3 (12.5)	1 (4.2)	0 (0.0)	2 (8.3)	5 (20.8)	24 (100.0)	
	고졸	55 (31.8)	19 (11.0)	20 (11.6)	27 (15.6)	7 (4.0)	13 (7.5)	11 (6.4)	8 (4.6)	2 (1.2)	7 (4.0)	4 (2.3)	173 (100.0)	
	(전문)대졸	137 (35.8)	37 (9.7)	35 (9.1)	64 (16.7)	30 (7.8)	32 (8.4)	12 (3.1)	11 (2.9)	11 (2.9)	7 (1.8)	7 (1.8)	383 (100.0)	
	대학원	20 (27.0)	14 (18.9)	5 (6.8)	14 (18.9)	3 (4.1)	7 (9.5)	3 (4.1)	2 (2.7)	1 (1.4)	4 (5.4)	1 (1.4)	74 (100.0)	
가족구성원수	1명(본인)	23 (32.9)	6 (8.6)	3 (4.3)	10 (14.3)	5 (7.1)	7 (10.0)	4 (5.7)	3 (4.3)	1 (1.4)	3 (4.3)	5 (7.1)	70 (100.0)	
	2명	43 (29.5)	14 (9.6)	13 (8.9)	30 (20.5)	9 (6.2)	13 (8.9)	6 (4.1)	5 (3.4)	4 (2.7)	2 (1.4)	7 (4.8)	146 (100.0)	
	3명	35 (24.6)	18 (12.7)	14 (9.9)	26 (18.3)	11 (7.7)	14 (9.9)	7 (4.9)	9 (6.3)	0 (0.0)	4 (2.8)	4 (2.8)	142 (100.0)	
	4명	77 (34.7)	25 (11.3)	26 (11.7)	35 (15.8)	13 (5.9)	16 (7.2)	10 (4.5)	3 (1.4)	6 (2.7)	9 (4.1)	2 (0.9)	222 (100.0)	
	5명이상	44 (44.0)	8 (8.0)	8 (8.0)	11 (11.0)	2 (2.0)	12 (12.0)	5 (5.0)	2 (2.0)	4 (4.0)	4 (4.0)	0 (0.0)	100 (100.0)	
현재거주지	노형동	24 (45.3)	3 (5.7)	5 (9.4)	7 (13.2)	3 (5.7)	3 (5.7)	1 (1.9)	3 (5.7)	1 (1.9)	3 (5.7)	0 (0.0)	53 (100.0)	
	도두동	12 (23.5)	5 (9.8)	2 (3.9)	5 (9.8)	2 (3.9)	10 (19.6)	5 (9.8)	2 (3.9)	1 (2.0)	2 (3.9)	5 (9.8)	51 (100.0)	
	봉개동	15 (27.3)	9 (16.4)	6 (10.9)	7 (12.7)	1 (1.8)	6 (10.9)	3 (5.5)	3 (5.5)	3 (5.5)	2 (3.6)	0 (0.0)	55 (100.0)	
	삼양동	20 (39.2)	7 (13.7)	6 (11.8)	9 (17.6)	4 (7.8)	2 (3.9)	0 (0.0)	0 (0.0)	0 (0.0)	1 (2.0)	2 (3.9)	51 (100.0)	
	애월읍	16 (34.0)	2 (4.3)	8 (17.0)	8 (17.0)	1 (2.1)	4 (8.5)	6 (12.8)	0 (0.0)	0 (0.0)	1 (2.1)	1 (2.1)	47 (100.0)	
	일도2동	14 (28.6)	3 (6.1)	6 (12.2)	11 (22.4)	4 (8.2)	5 (10.2)	2 (4.1)	2 (4.1)	2 (4.1)	0 (0.0)	0 (0.0)	49 (100.0)	
	연동	7 (14.9)	7 (14.9)	9 (19.1)	8 (17.0)	4 (8.5)	4 (8.5)	3 (6.4)	1 (2.1)	1 (2.1)	3 (6.4)	0 (0.0)	47 (100.0)	
	외도동	30 (41.7)	6 (8.3)	8 (11.1)	3 (4.2)	4 (5.6)	5 (6.9)	5 (6.9)	3 (4.2)	1 (1.4)	3 (4.2)	4 (5.6)	72 (100.0)	
	이도2동	19 (32.2)	9 (15.3)	3 (5.1)	13 (22.0)	4 (6.8)	6 (10.2)	3 (5.1)	2 (3.4)	0 (0.0)	0 (0.0)	0 (0.0)	59 (100.0)	
	오라동	18 (35.3)	5 (9.8)	2 (3.9)	5 (9.8)	5 (9.8)	6 (11.8)	3 (5.9)	2 (3.9)	1 (2.0)	4 (7.8)	0 (0.0)	51 (100.0)	
	아라동	23 (28.7)	10 (12.5)	7 (8.8)	20 (25.0)	3 (3.8)	6 (7.5)	0 (0.0)	2 (2.5)	3 (3.8)	0 (0.0)	6 (7.5)	80 (100.0)	
	화북동	23 (36.5)	5 (7.9)	2 (3.2)	16 (25.4)	4 (6.3)	5 (7.9)	1 (1.6)	2 (3.2)	2 (3.2)	3 (4.8)	0 (0.0)	63 (100.0)	

- ① 청소년활동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
- ②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문화의집 등)
-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 ④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확대
- 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⑥ 청소년 학습 지원 확대(학습프로그램, 교재비 등)
- ⑦ 근로청소년 지원 확대
- ⑧ 다문화청소년 지원 확대
- ⑨ 청소년 수당 지원
- ⑩ 교통비 지원(버스 등)
- ⑪ 기타

## [청년 돌봄]

### 5) 우리 지역의 청년 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우리 지역의 청년 복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16>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94명(28.2%),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94명(13.7%)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36명(29.7%),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64명(14.0%)순으로, 남성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57명(25.1%),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30명(13.2%),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30명(13.2%)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4명(19.2%),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10명(13.7%)순으로, 30대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5명(32.1%), 주거 지원(임대주택, 월세 등) 9명(11.5%)순으로, 40대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9명(22.8%),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19명(15.0%)순으로, 50대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66명(29.6%),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36명(16.1%)순으로, 60대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47명(35.6%),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17명(12.9%)순으로, 70대 이상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1명(23.4%), 기타 8명(17.0%)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17명(12.9%), 주거 지원(임대주택, 월세 등) 16명(11.8%)순으로, 기혼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41명(29.0%),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72명(14.8%)순으로, 이혼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7명(31.8%),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4명(18.2%)순으로, 사별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1명(31.4%),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4명(11.4%)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91명(29.0%),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55명(17.5%)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80명(29.4%),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28명(10.3%)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6명(25.0%), 기타 5명

(20.8%)순으로, 고졸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50명(28.2%),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27명(15.3%)순으로, (전문)대졸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15명(29.8%),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57명(14.8%)순으로, 대학원 졸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6명(21.3%),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12명(16.0%)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6명(23.5%), 주거 지원(임대주택, 월세 등) 9명(13.2%)순으로, 2명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40명(27.0%),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23명(15.6%)순으로, 3명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40명(27.4%),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15명(10.3%)순으로, 4명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67명(29.9%),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31명(13.8%)순으로, 5명 이상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31명(30.7%),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17명(16.8%)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0명(38.5%), 주거 지원(임대주택, 월세 등) 7명(13.5%)순으로, 도두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6명(31.4%), 주거 지원(임대주택, 월세 등) 6명(11.8%)순으로, 봉개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1명(37.5%), 문화(여가)활동 지원 7명(12.5%)순으로, 삼양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2명(22.6%),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10명(18.9%)순으로, 애월읍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2명(25.0%),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10명(20.8%)순으로, 일도2동은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15명(30.6%),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0명(20.4%)순으로, 연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5명(31.9%),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7명(14.9%)순으로, 외도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1명(29.2%), 주거 지원(임대주택, 월세 등) 12명(16.7%)순으로, 이도2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2명(36.1%),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9명(14.8%)순으로, 오라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0명(19.6%),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9명(17.6%), 문화(여가)활동 지원 9명(17.6%)순으로, 아라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0명(24.4%),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12명(14.6%)순으로, 화북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4명(22.2%),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11명(17.5%)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6> 우리 지역의 청년 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총계	
전체	94 (13.7)	81 (11.8)	194 (28.2)	30 (4.4)	66 (9.6)	63 (9.2)	11 (1.6)	36 (5.2)	27 (3.9)	22 (3.2)	19 (2.8)	14 (2.0)	10 (1.5)	20 (2.8)	687 (100.0)	
성별	여성	64 (14.0)	51 (11.1)	136 (29.7)	18 (3.9)	38 (8.3)	40 (8.7)	7 (1.5)	25 (5.5)	22 (4.8)	16 (3.5)	10 (2.2)	12 (2.6)	5 (1.1)	14 (3.1)	458 (100.0)
	남성	30 (13.2)	30 (13.2)	57 (25.1)	12 (5.3)	27 (11.9)	23 (10.1)	4 (1.8)	11 (4.8)	5 (2.2)	6 (2.6)	9 (4.0)	2 (0.9)	5 (2.2)	6 (2.6)	227 (100.0)
연령대	20대	10 (13.7)	8 (11.0)	14 (19.2)	4 (5.5)	8 (11.0)	4 (5.5)	2 (2.7)	5 (6.8)	6 (8.2)	5 (6.8)	1 (1.4)	0 (0.0)	4 (5.5)	2 (2.7)	73 (100.0)
	30대	8 (10.3)	4 (5.1)	25 (32.1)	6 (7.7)	9 (11.5)	8 (10.3)	0 (0.0)	4 (5.1)	1 (1.3)	5 (6.4)	4 (5.1)	2 (2.6)	1 (1.3)	1 (1.3)	78 (100.0)
	40대	19 (15.0)	12 (9.4)	29 (22.8)	10 (7.9)	11 (8.7)	18 (14.2)	2 (1.6)	6 (4.7)	5 (3.9)	1 (0.8)	5 (3.9)	5 (3.9)	3 (2.4)	1 (0.8)	127 (100.0)
	50대	32 (14.3)	36 (16.1)	66 (29.6)	5 (2.2)	21 (9.4)	16 (7.2)	3 (1.3)	15 (6.7)	8 (3.6)	7 (3.1)	4 (1.8)	4 (1.8)	2 (0.9)	4 (1.8)	223 (100.0)
	60대	17 (12.9)	15 (11.4)	47 (35.6)	4 (3.0)	12 (9.1)	13 (9.8)	4 (3.0)	2 (1.5)	7 (5.3)	1 (0.8)	4 (3.0)	2 (1.5)	0 (0.0)	4 (3.0)	132 (100.0)
	70대 이상	6 (12.8)	6 (12.8)	11 (23.4)	1 (2.1)	4 (8.5)	3 (6.4)	0 (0.0)	4 (8.5)	0 (0.0)	3 (6.4)	2 (2.1)	0 (0.0)	0 (0.0)	8 (17.0)	47 (100.0)
결혼여부	미혼	15 (11.0)	14 (10.3)	34 (25.0)	7 (5.1)	16 (11.8)	13 (9.6)	2 (1.5)	8 (5.9)	7 (5.1)	7 (5.1)	4 (2.9)	1 (0.7)	5 (3.7)	3 (2.2)	136 (100.0)
	기혼	72 (14.8)	60 (12.3)	141 (29.0)	19 (3.9)	46 (9.4)	45 (9.2)	8 (1.8)	20 (4.1)	19 (3.9)	13 (2.7)	13 (2.7)	12 (2.5)	4 (0.8)	14 (2.9)	487 (100.0)
	이혼	4 (18.2)	1 (4.5)	7 (31.8)	1 (4.5)	1 (4.5)	2 (9.1)	0 (0.0)	3 (13.6)	1 (4.5)	0 (0.0)	0 (0.0)	0 (0.0)	1 (4.5)	1 (4.5)	22 (100.0)
	사별	3 (8.6)	4 (11.4)	11 (31.4)	3 (8.6)	3 (8.6)	2 (5.7)	0 (0.0)	4 (11.4)	0 (0.0)	1 (2.9)	1 (2.9)	1 (2.9)	0 (0.0)	2 (5.7)	35 (100.0)
	기타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55 (17.5)	41 (13.1)	91 (29.0)	13 (4.1)	30 (9.6)	28 (8.9)	5 (1.6)	14 (4.5)	9 (2.9)	5 (1.6)	6 (1.9)	10 (3.2)	3 (1.0)	4 (1.3)	314 (100.0)
	맞벌이 아님	22 (8.1)	30 (11.0)	80 (29.4)	12 (4.4)	23 (8.5)	28 (10.3)	4 (1.5)	17 (6.3)	13 (4.8)	13 (4.8)	10 (3.7)	2 (0.7)	5 (1.8)	13 (4.8)	272 (100.0)
학력	중졸	2	1	6	2	3	1	0	2	0	1	1	0	0	5	24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총계
	이하	(8.3)	(4.2)	(25.0)	(8.3)	(12.5)	(4.2)	(0.0)	(8.3)	(0.0)	(4.2)	(4.2)	(0.0)	(0.0)	(20.8)	(100.0)
	고졸	20 (11.3)	27 (15.3)	50 (28.2)	8 (4.5)	17 (9.6)	17 (9.6)	4 (2.3)	12 (6.8)	5 (2.8)	2 (1.1)	5 (2.8)	0 (0.0)	5 (2.8)	5 (2.8)	177 (100.0)
	(전문) 대졸	57 (14.8)	44 (11.4)	115 (29.8)	12 (3.1)	37 (9.6)	37 (9.6)	5 (1.3)	20 (5.2)	14 (3.6)	13 (3.4)	10 (2.6)	11 (2.8)	4 (1.0)	7 (1.8)	386 (100.0)
	대학원 졸	12 (16.0)	8 (10.7)	16 (21.3)	7 (9.3)	8 (10.7)	4 (5.3)	2 (2.7)	2 (2.7)	4 (5.3)	4 (5.3)	2 (2.7)	3 (4.0)	1 (1.3)	2 (2.7)	75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본인)	8 (11.8)	8 (11.8)	16 (23.5)	1 (1.5)	9 (13.2)	5 (7.4)	0 (0.0)	3 (4.4)	1 (1.5)	3 (4.4)	5 (7.4)	1 (1.5)	1 (1.5)	7 (10.3)	68 (100.0)
	2명	23 (15.5)	17 (11.5)	40 (27.0)	4 (2.7)	12 (8.1)	12 (8.1)	2 (1.4)	11 (7.4)	8 (5.4)	1 (0.7)	7 (4.7)	4 (2.7)	0 (0.0)	7 (4.7)	148 (100.0)
	3명	15 (10.3)	21 (14.4)	40 (27.4)	14 (9.6)	13 (8.9)	10 (6.8)	3 (2.1)	8 (5.5)	6 (4.1)	6 (4.1)	1 (0.7)	3 (2.1)	2 (1.4)	4 (2.7)	146 (100.0)
	4명	31 (13.8)	20 (8.9)	67 (29.9)	7 (3.1)	25 (11.2)	26 (11.6)	5 (2.2)	12 (5.4)	9 (4.0)	6 (2.7)	6 (2.7)	4 (1.8)	4 (1.8)	2 (0.9)	224 (100.0)
	5명 이상	17 (16.8)	15 (14.9)	31 (30.7)	4 (4.0)	7 (6.9)	10 (9.9)	1 (1.0)	2 (2.0)	3 (3.0)	6 (5.9)	0 (0.0)	2 (2.0)	3 (3.0)	0 (0.0)	101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6 (11.5)	4 (7.7)	20 (38.5)	1 (1.9)	7 (13.5)	3 (5.8)	1 (1.9)	4 (7.7)	0 (0.0)	3 (5.8)	1 (1.9)	2 (3.8)	0 (0.0)	0 (0.0)	52 (100.0)
	도두동	4 (7.8)	5 (9.8)	16 (31.4)	4 (7.8)	6 (11.8)	5 (9.8)	0 (0.0)	2 (3.9)	0 (0.0)	1 (2.0)	1 (2.0)	0 (0.0)	1 (2.0)	6 (11.8)	51 (100.0)
	봉개동	4 (7.1)	6 (10.7)	21 (37.5)	5 (8.9)	1 (1.8)	7 (12.5)	2 (3.6)	2 (3.6)	3 (5.4)	0 (0.0)	4 (7.1)	1 (1.8)	0 (0.0)	0 (0.0)	56 (100.0)
	삼양동	5 (9.4)	10 (18.9)	12 (22.6)	1 (1.9)	9 (17.0)	6 (11.3)	0 (0.0)	4 (7.5)	1 (1.9)	0 (0.0)	1 (1.9)	1 (1.9)	1 (1.9)	2 (3.8)	53 (100.0)
	애월읍	9 (18.8)	10 (20.8)	12 (25.0)	0 (0.0)	5 (10.4)	0 (0.0)	0 (0.0)	4 (8.3)	2 (4.2)	1 (2.1)	4 (8.3)	0 (0.0)	0 (0.0)	1 (2.1)	48 (100.0)
	일도2동	15 (30.6)	4 (8.2)	10 (20.4)	2 (4.1)	1 (2.0)	6 (12.2)	1 (2.0)	4 (8.2)	2 (4.1)	2 (4.1)	0 (0.0)	2 (4.1)	0 (0.0)	0 (0.0)	49 (100.0)
	연동	6 (12.8)	7 (14.9)	15 (31.9)	4 (8.5)	5 (10.6)	3 (6.4)	0 (0.0)	1 (2.1)	4 (8.5)	0 (0.0)	1 (2.1)	0 (0.0)	1 (2.1)	0 (0.0)	47 (100.0)
	외도동	6 (8.3)	6 (8.3)	21 (29.2)	2 (2.8)	12 (16.7)	8 (11.1)	2 (2.8)	3 (4.2)	4 (5.6)	1 (1.4)	1 (1.4)	0 (0.0)	2 (2.8)	4 (5.6)	72 (100.0)
	이도2동	9 (14.8)	5 (8.2)	22 (36.1)	2 (3.3)	6 (9.8)	4 (6.6)	1 (1.6)	1 (1.6)	3 (4.9)	4 (6.6)	2 (3.3)	1 (2.0)	0 (0.0)	1 (1.6)	61 (100.0)
	오라동	9	6	10	1	4	9	1	2	1	4	2	1	1	0	51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총계
	(17.6)	(11.8)	(19.6)	(2.0)	(7.8)	(17.6)	(2.0)	(3.9)	(2.0)	(7.8)	(3.9)	(2.0)	(2.0)	(0.0)	(100.0)
아라동	12 (14.6)	7 (8.5)	20 (24.4)	4 (4.9)	4 (4.9)	6 (7.3)	2 (2.4)	4 (4.9)	3 (3.7)	4 (4.9)	2 (2.4)	4 (4.9)	4 (4.9)	6 (7.3)	82 (100.0)
화북동	9 (14.6)	11 (17.5)	14 (22.2)	4 (6.3)	5 (7.9)	6 (9.5)	1 (1.6)	5 (7.9)	4 (6.3)	2 (3.2)	0 (0.0)	2 (93.2)	0 (0.0)	0 (0.0)	63 (100.0)

- ①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②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③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④ 생활비 지원(식비, 교통비 등)      ⑤ 주거 지원(임대주택, 월세 등)  
 ⑥ 문화(여가)활동 지원      ⑦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등)      ⑧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⑨ 은둔 고립 청년 지원      ⑩ 청년 수당 지원  
 ⑪ 청년 지역 정착 지원      ⑫ 영케어러(가족돌봄) 청년 지원      ⑬ 학자금 지원      ⑭ 기타

## [중장년 돌봄]

### 6) 우리 지역의 중장년 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우리 지역의 중장년 복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IV-17>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70명(38.5%),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118명(16.8%)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94명(41.1%),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77명(16.3%)순으로, 남성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75명(32.9%),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지원 등) 52명(22.8%)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22명(30.1%),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등) 17명(23.3%)순으로, 30대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3명(29.5%),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17명(21.0%)순으로, 40대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39명(30.7%),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등) 27명(21.3%)순으로, 50대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06명(45.7%),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31명(13.4%)순으로, 60대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69명(50.4%),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등) 22명(16.1%)순으로, 70대 이상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4명(29.2%),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11명(22.9%)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37명(27.0%),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33명(24.1%)순으로, 기혼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11명(42.3%),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등) 74명(14.8%)순으로, 이혼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2명(52.2%),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등) 7명(30.4%)순으로, 사별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9명(25.7%),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등) 7명(20.0%)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30명(40.8%),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등) 53명(16.6%)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07명(38.2%),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58명(20.7%)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7명(29.2%),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5명(20.8%), 기타 5명(20.8%)순으로, 고졸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74명(40.7%),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29명(15.9%)순으로, (전문)대졸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49명(37.8%),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등) 67명(17.0%)순으로, 대학원 졸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9명(38.2%), 자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17명(22.4%)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1명(29.6%),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 형성 등) 18명(25.4%)순으로, 2명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70명(46.1%),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30명(19.7%)순으로, 3명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58명(38.7%),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27명(18.0%)순으로, 4명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89명(39.2%),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37명(16.3%)순으로, 5명 이상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32명(31.4%),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 형성 등) 22명(21.6%)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6명(49.1%),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9명(17.0%)순으로, 도두동은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14명(27.5%),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3명(25.5%)순으로, 봉개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8명(32.1%),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 형성 등) 12명(21.4%)순으로, 삼양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0명(36.4%),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 형성 등) 10명(18.2%)순으로, 애월읍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16명(33.3%),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8명(16.7%)순으로, 일도2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1명(41.2%),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12명(23.5%)순으로, 연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1명(42.9%),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10명(20.4%)순으로, 외도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8명(38.9%),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 형성 등) 15명(20.8%)순으로, 이도2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3명(35.4%), 건강관련 지원(정신, 신체 등) 14명(21.5%)순으로, 오라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2명(41.5%), 문화(여가)활동 지원 15명(28.3%), 문화(여가)활동 지원 9명(17.6%)순으로, 아라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37명(45.1%),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 형성 등) 10명(12.2%), 교육 훈련 지원 10명(12.2%)순으로, 화북동은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24명(36.9%), 문화(여가)활동 지원 11명(16.9%)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7> 우리 지역의 중장년 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전체	270 (38.5)	115 (16.4)	83 (11.8)	42 (6.0)	64 (9.1)	118 (16.8)	10 (1.4)	702 (100.0)
성별	여성	194 (41.1)	62 (13.1)	57 (12.1)	28 (5.9)	46 (9.7)	77 (16.3)	472 (100.0)
	남성	75 (32.9)	52 (22.8)	26 (11.4)	14 (6.1)	18 (7.9)	41 (18.0)	228 (100.0)
연령대	20대	16 (21.9)	17 (23.3)	8 (11.0)	3 (4.1)	7 (9.6)	22 (30.1)	73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총계
	30대	23 (29.5)	14 (17.9)	9 (11.5)	5 (6.4)	10 (12.8)	17 (21.8)	0 (0.0)	78 (100.0)
	40대	39 (30.7)	27 (21.3)	15 (11.8)	12 (9.4)	15 (11.8)	19 (15.0)	0 (0.0)	127 (100.0)
	50대	106 (45.7)	30 (12.9)	30 (12.9)	16 (6.9)	19 (8.2)	31 (13.4)	0 (0.0)	232 (100.0)
	60대	69 (50.4)	22 (16.1)	15 (10.9)	3 (2.2)	9 (6.6)	16 (11.7)	3 (2.2)	137 (100.0)
	70대 이상	14 (29.2)	5 (10.4)	6 (12.5)	3 (6.3)	2 (4.2)	11 (22.9)	7 (14.6)	48 (100.0)
결혼여부	미혼	37 (27.0)	25 (18.2)	21 (15.3)	6 (4.4)	15 (10.9)	33 (24.1)	0 (0.0)	137 (100.0)
	기혼	211 (42.3)	74 (14.8)	57 (11.4)	34 (6.8)	40 (8.0)	73 (14.6)	10 (2.0)	499 (100.0)
	이혼	12 (52.2)	7 (30.4)	0 (0.0)	0 (0.0)	2 (8.7)	2 (8.7)	0 (0.0)	23 (100.0)
	사별	9 (25.7)	7 (20.0)	5 (14.3)	1 (2.9)	4 (11.4)	9 (25.7)	0 (0.0)	35 (100.0)
	기타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130 (40.8)	53 (16.6)	38 (11.9)	28 (8.8)	29 (9.1)	41 (12.9)	0 (0.0)	319 (100.0)
	맞벌이아님	107 (38.2)	44 (15.7)	28 (10.0)	10 (3.6)	24 (8.6)	58 (20.7)	9 (3.2)	280 (100.0)
학력	중졸이하	7 (29.2)	4 (16.7)	1 (4.2)	1 (4.2)	1 (4.2)	5 (20.8)	5 (20.8)	24 (100.0)
	고졸	74 (40.7)	25 (13.7)	24 (13.2)	7 (3.8)	23 (12.6)	29 (15.9)	0 (0.0)	182 (100.0)
	(전문)대졸	149 (37.8)	67 (17.0)	49 (12.4)	29 (7.4)	36 (9.1)	60 (15.2)	4 (1.0)	394 (100.0)
	대학원졸	29 (38.2)	15 (19.7)	9 (11.8)	3 (3.9)	3 (3.9)	17 (22.4)	0 (0.0)	76 (100.0)
가족구성원수	1명(본인)	21 (29.6)	18 (25.4)	7 (9.9)	4 (5.6)	7 (9.9)	10 (14.1)	4 (5.6)	71 (100.0)
	2명	70 (46.1)	16 (10.5)	11 (7.2)	6 (3.9)	15 (9.9)	30 (19.7)	4 (2.6)	152 (100.0)
	3명	58 (38.7)	23 (15.3)	15 (10.0)	10 (6.7)	16 (10.7)	27 (18.0)	1 (0.7)	150 (100.0)
	4명	89 (39.2)	36 (15.9)	30 (13.2)	16 (7.0)	18 (7.9)	37 (16.3)	1 (0.4)	227 (100.0)
	5명 이상	32 (31.4)	22 (21.6)	20 (19.6)	6 (5.9)	8 (7.8)	14 (13.7)	0 (0.0)	102 (100.0)
현재거주지	노형동	26 (49.1)	5 (9.4)	5 (9.4)	3 (5.7)	5 (9.4)	9 (17.0)	0 (0.0)	53 (100.0)
	도두동	13 (25.5)	11 (21.6)	2 (3.9)	3 (5.9)	3 (5.9)	14 (27.5)	5 (9.8)	51 (100.0)
	봉개동	18 (32.1)	12 (21.4)	6 (10.7)	2 (3.6)	8 (14.3)	10 (17.9)	0 (0.0)	56 (100.0)
	삼양동	20 (36.4)	10 (18.2)	6 (10.9)	5 (9.1)	6 (10.9)	7 (12.7)	1 (1.8)	55 (100.0)
	애월읍	16 (33.3)	7 (14.6)	7 (14.6)	4 (8.3)	5 (10.4)	8 (16.7)	1 (2.1)	48 (100.0)
	일도2동	21 (41.2)	10 (19.6)	3 (5.9)	1 (2.0)	4 (7.8)	12 (23.5)	0 (0.0)	51 (100.0)
	연동	21 (42.9)	9 (18.4)	4 (8.2)	2 (4.1)	3 (6.1)	10 (20.4)	0 (0.0)	49 (100.0)
	외도동	28 (38.9)	15 (20.8)	5 (6.9)	4 (5.6)	9 (12.5)	10 (13.9)	1 (1.4)	72 (100.0)
	이도2동	23	12	10	3	3	14	0	65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69명(15.0%),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63명(13.7%)순으로, 남성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47명(21.1%),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23명(10.3%)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2명(16.2%),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11명(14.9%)순으로, 30대는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6명(20.8%),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10명(13.0%)순으로, 40대는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22명(17.7%),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16명(12.9%)순으로, 50대는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34명(15.6%),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33명(15.1%)순으로, 60대는 방문돌봄 서비스 19명(14.1%),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17명(12.6%),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7명(12.6%),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17명(12.6%)순으로, 70대 이상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2명(24.0%), 방문돌봄 서비스 8명(16.0%)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24명(17.4%),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20명(14.5%)순으로, 기혼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66명(13.7%),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65명(13.5%)순으로, 이혼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6명(27.3%),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3명(13.6%),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3명(13.6%), 방문돌봄 서비스 3명(13.6%)순으로, 사별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6명(17.1%),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6명(17.1%), 방문돌봄 서비스 5명(14.3%)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49명(15.9%),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40명(13.0%)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49명(17.7%),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33명(11.9%)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8명(33.3%),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4명(16.7%)순으로, 고졸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29명(16.4%),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25명(14.1%)순으로, (전문)대졸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56명(14.5%),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52명(13.4%)순으로, 대학원 졸은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13명(18.1%), 노인돌봄시설 확대(주간보호센터 등) 12명(16.7%)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11명(15.7%),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0명(14.3%)순으로, 2명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22명(14.8%),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20명(13.4%)순으로, 3명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25명(17.4%),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19명(13.2%), 방문돌봄 서비스 19명(13.2%) 순으로, 4명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34명(15.2%),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32명(14.3%)순으로, 5명 이상은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14명(14.0%),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3명(13.0%)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14명(27.5%), 방문돌봄 서비스 6명(11.8%)순으로, 도두동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6명(31.4%),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7명(13.7%)순으로, 봉개동은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11명(21.2%),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0명(19.2%)순으로, 삼양동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0명(18.5%),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8명(14.8%)순으로, 애월읍은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8명(17.4%),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7명(15.2%), 방문돌봄 서비스 7명(15.2%)순으로, 일도2동은 돌봄 비용 지원 9명(18.0%),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7명(14.0%),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7명(14.0%)순으로, 연동은 노인돌봄시설 확대(주간보호센터 등) 8명(16.7%),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7명(14.6%)순으로, 외도동은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14명(19.7%),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10명(14.1%),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10명(14.1%)순으로, 이도2동은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15명(23.1%),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11명(16.9%)순으로, 오라동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2명(23.5%),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7명(13.7%)순으로, 아라동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3명(16.3%), (기본 식생활 유지를 위한)식사 지원 서비스 10명(12.5%)순으로, 화북동은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12명(18.5%), (기본 식생활 유지를 위한)식사 지원 서비스 8명(12.3%),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8명(12.3%), 노인돌봄시설 확대(주간보호센터 등) 8명(12.3%)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19> 현재 노인 돌봄에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총계	
전체	84 (12.2)	66 (9.6)	88 (12.8)	55 (8.0)	33 (4.8)	29 (4.2)	104 (15.2)	74 (10.8)	61 (8.9)	13 (1.9)	14 (2.0)	57 (8.3)	8 (1.2)	686 (100.0)	
성별	여성	63 (13.7)	52 (11.3)	69 (15.0)	34 (7.4)	25 (5.4)	21 (4.6)	57 (12.4)	51 (11.1)	39 (8.5)	6 (1.3)	9 (2.0)	34 (7.4)	1 (0.2)	461 (100.0)
	남성	21 (9.4)	14 (6.3)	18 (8.1)	21 (9.4)	8 (3.6)	8 (3.6)	47 (21.1)	23 (10.3)	21 (9.4)	7 (3.1)	5 (2.2)	23 (10.3)	7 (3.1)	223 (100.0)
연령대	20대	11 (14.9)	6 (8.1)	9 (12.2)	7 (9.5)	3 (4.1)	1 (1.4)	12 (16.2)	8 (10.8)	4 (5.4)	4 (5.4)	2 (2.7)	7 (9.5)	0 (0.0)	74 (100.0)
	30대	10 (13.0)	6 (7.8)	8 (10.4)	6 (7.8)	4 (5.2)	5 (6.5)	16 (20.8)	6 (7.8)	7 (9.1)	3 (3.9)	0 (0.0)	4 (5.2)	2 (2.6)	77 (100.0)
	40대	16 (12.9)	12 (9.7)	14 (11.3)	13 (10.5)	5 (4.0)	6 (4.8)	22 (17.7)	7 (5.6)	7 (5.6)	3 (2.4)	3 (2.4)	11 (8.9)	5 (4.0)	124 (100.0)
	50대	25 (11.5)	27 (12.4)	34 (15.6)	18 (8.3)	13 (6.0)	5 (2.3)	24 (11.0)	33 (15.1)	15 (6.9)	2 (0.9)	3 (1.4)	18 (8.3)	1 (0.5)	218 (100.0)
	60대	14 (10.4)	12 (8.9)	17 (12.6)	10 (7.4)	6 (4.4)	7 (5.2)	17 (12.6)	17 (12.6)	19 (14.1)	0 (0.0)	3 (2.2)	13 (9.6)	0 (0.0)	135 (100.0)
	70대 이상	4 (8.0)	3 (6.0)	4 (8.0)	1 (2.0)	2 (4.0)	5 (10.0)	12 (24.0)	3 (6.0)	8 (16.0)	1 (2.0)	3 (6.0)	4 (8.0)	0 (0.0)	50 (100.0)
결혼여부	미혼	20 (14.5)	8 (5.8)	14 (10.1)	10 (7.2)	6 (4.3)	2 (1.4)	24 (17.4)	18 (13.0)	8 (5.8)	9 (6.5)	1 (0.7)	15 (10.9)	3 (2.2)	138 (100.0)
	기혼	57 (11.8)	54 (11.2)	65 (13.5)	41 (8.5)	23 (4.8)	25 (5.2)	66 (13.7)	50 (10.4)	45 (9.3)	4 (0.8)	11 (2.3)	38 (7.9)	4 (0.8)	483 (100.0)
	이혼	0 (0.0)	2 (9.1)	3 (13.6)	2 (9.1)	0 (0.0)	0 (0.0)	6 (27.3)	3 (13.6)	3 (13.6)	0 (0.0)	1 (4.5)	1 (4.5)	1 (4.5)	22 (100.0)
	사별	6 (17.1)	2 (5.7)	4 (11.4)	1 (2.9)	4 (11.4)	2 (5.7)	6 (17.1)	3 (8.6)	5 (14.3)	0 (0.0)	0 (0.00)	2 (5.7)	0 (0.0)	35 (100.0)
	기타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35 (11.4)	39 (12.7)	49 (15.9)	27 (8.8)	15 (4.9)	10 (3.2)	40 (13.0)	35 (11.4)	22 (7.1)	3 (1.0)	6 (1.9)	23 (7.5)	4 (1.3)	308 (100.0)
	맞벌이 아님	32 (11.6)	16 (5.8)	27 (9.7)	16 (5.8)	15 (5.4)	15 (5.4)	49 (17.7)	33 (11.9)	31 (11.2)	8 (2.9)	6 (2.2)	26 (9.4)	3 (1.1)	277 (100.0)
학력	중졸	4	2	2	2	1	0	8	0	1	1	1	2	0	24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총계
	이하	(16.7)	(8.3)	(8.3)	(8.3)	(4.2)	(0.0)	(33.3)	(0.0)	(4.2)	(4.2)	(4.2)	(8.3)	(0.0)	(100.0)
	고졸	25 (14.1)	18 (10.2)	16 (9.0)	14 (7.9)	7 (4.0)	5 (2.8)	29 (16.4)	22 (12.4)	19 (10.7)	2 (1.1)	2 (1.1)	14 (7.9)	4 (2.3)	177 (100.0)
	(전문) 대졸	47 (12.1)	42 (10.9)	52 (13.4)	30 (7.8)	20 (5.2)	17 (4.4)	56 (14.5)	41 (10.6)	35 (9.0)	8 (2.1)	9 (2.3)	27 (7.0)	3 (0.8)	387 (100.0)
	대학원 졸	4 (5.6)	3 (4.2)	13 (18.1)	7 (9.7)	4 (5.6)	4 (5.6)	8 (11.1)	8 (11.1)	5 (6.9)	2 (2.8)	1 (1.4)	12 (16.7)	1 (1.4)	72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본인)	11 (15.7)	4 (5.7)	9 (12.9)	3 (4.3)	3 (4.3)	4 (5.7)	10 (14.3)	6 (8.6)	5 (7.1)	5 (7.1)	0 (0.0)	9 (12.9)	1 (1.4)	70 (100.0)
	2명	20 (13.4)	10 (6.7)	18 (12.1)	14 (9.4)	8 (5.4)	10 (6.7)	22 (14.8)	16 (10.7)	11 (7.4)	2 (1.3)	4 (2.7)	12 (8.1)	2 (1.3)	149 (100.0)
	3명	10 (6.9)	12 (8.3)	17 (11.8)	10 (6.9)	4 (2.8)	5 (3.5)	25 (17.4)	19 (13.2)	19 (13.2)	2 (1.4)	4 (2.8)	14 (9.7)	3 (2.1)	144 (100.0)
	4명	32 (14.3)	29 (13.0)	30 (13.5)	17 (7.6)	12 (5.4)	9 (4.0)	34 (15.2)	21 (9.4)	18 (8.1)	2 (0.9)	4 (1.8)	14 (6.3)	1 (0.4)	223 (100.0)
	5명 이상	11 (11.0)	11 (11.0)	14 (14.0)	11 (11.0)	6 (6.0)	1 (1.0)	13 (13.0)	12 (12.0)	8 (8.0)	2 (2.0)	2 (2.0)	8 (8.0)	1 (1.0)	100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5 (9.8)	5 (9.8)	14 (27.5)	2 (3.9)	3 (5.9)	1 (2.0)	5 (9.8)	3 (5.9)	6 (11.8)	2 (3.9)	0 (0.0)	5 (9.8)	0 (0.0)	51 (100.0)
	도두동	7 (13.7)	5 (9.8)	3 (5.9)	3 (5.9)	6 (11.8)	2 (3.9)	16 (31.4)	1 (2.0)	4 (7.8)	0 (0.0)	0 (0.0)	3 (5.9)	1 (2.0)	51 (100.0)
	봉개동	4 (7.7)	4 (7.7)	11 (21.2)	6 (11.5)	1 (1.9)	2 (3.8)	10 (19.2)	3 (5.8)	4 (7.7)	0 (0.0)	1 (1.9)	6 (11.5)	0 (0.0)	52 (100.0)
	삼양동	6 (11.1)	4 (7.4)	8 (14.8)	3 (5.6)	2 (3.7)	1 (1.9)	10 (18.5)	3 (5.6)	4 (7.4)	4 (7.4)	0 (0.0)	4 (7.4)	5 (9.3)	54 (100.0)
	애월읍	7 (15.2)	4 (8.7)	5 (10.9)	3 (6.5)	0 (0.0)	3 (6.5)	3 (6.5)	8 (17.4)	7 (15.2)	0 (0.0)	0 (0.0)	6 (13.0)	0 (0.0)	46 (100.0)
	일도2동	7 (14.0)	3 (6.0)	6 (12.0)	9 (18.0)	1 (2.0)	3 (6.0)	7 (14.0)	3 (6.0)	5 (10.0)	0 (0.0)	2 (4.0)	4 (8.0)	0 (0.0)	50 (100.0)
	연동	5 (10.4)	4 (8.3)	7 (14.6)	6 (12.5)	1 (2.1)	2 (4.2)	5 (10.4)	3 (6.3)	3 (6.3)	3 (6.3)	1 (2.1)	8 (16.7)	0 (0.0)	48 (100.0)
	외도동	10 (14.1)	6 (8.5)	10 (14.1)	6 (8.5)	5 (7.0)	3 (4.2)	6 (8.5)	14 (19.7)	3 (4.2)	1 (1.4)	3 (4.2)	2 (2.8)	2 (2.8)	71 (100.0)
	이도2동	15 (23.1)	8 (12.3)	9 (13.8)	0 (0.0)	6 (9.2)	5 (7.7)	4 (6.2)	11 (16.9)	3 (4.6)	1 (1.5)	1 (1.5)	2 (3.1)	0 (0.0)	65 (100.0)
	오라동	5	5	4	5	2	0	12	7	4	0	1	6	0	51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총계
	(9.8)	(9.8)	(7.8)	(9.8)	(3.9)	(0.0)	(23.5)	(13.7)	(7.8)	(0.0)	(2.0)	(11.8)	(0.0)	(100.0)
아라동	8 (10.0)	10 (12.5)	7 (8.8)	6 (7.5)	4 (5.0)	4 (5.0)	13 (16.3)	9 (11.3)	12 (15.0)	2 (2.5)	2 (2.5)	3 (3.8)	0 (0.0)	80 (100.0)
화북동	5 (7.7)	8 (12.3)	4 (6.2)	6 (9.2)	2 (3.1)	3 (4.6)	12 (18.5)	8 (12.3)	6 (9.2)	0 (0.0)	3 (4.6)	8 (12.3)	0 (0.0)	65 (100.0)

- ①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② (기본 식생활 유지를 위한)식사 지원 서비스    ③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④ 돌봄 비용 지원  
 ⑤ 이동지원 서비스(교통약자이동 지원 등)    ⑥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⑦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⑧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⑨ 방문돌봄 서비스    ⑩ 안전 보장(학대, 치안 등)    ⑪ 단기시설 서비스(주야간과 주말, 긴급 돌봄 등)    ⑫ 노인돌봄시설 확대(주간보호센터 등)  
 ⑬ 기타

### 9) 우리 동네에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우리 동네에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20>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145명(21.4%), 노인복지관 141명(20.8%)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노인복지관 101명(22.4%), 노인주간보호센터 85명(18.8%)순으로, 남성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63명(28.1%), 노인복지관 40명(17.9%)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15명(20.3%),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보호 등) 12명(16.2%), 노인주간보호센터 12명(16.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등) 12명(16.2%), 노인복지관 12명(16.2%)순으로, 30대는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27명(35.1%),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15명(19.5%)순으로, 40대는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34명(27.4%), 노인주간보호센터 27명(21.8%)순으로, 50대는 노인복지관 60명(28.2%), 노인주간보호센터 36명(16.9%), 순으로, 60대는 노인복지관 32명(24.2%), 노인주간보호센터 26명(19.7%)순으로, 70대 이상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14명(28.6%), 노인복지관 8명(16.3%)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30명(21.7%),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30명(21.7%), 노인주간보호센터 26명(18.8%)순으로, 기혼은 노인복지관 111명(23.3%),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102명(21.4%)순으로, 이혼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7명(35.0%), 노인복지관 4명(20.0%)순으로, 사별은 노인복지관 9명(25.7%),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8명(22.9%)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노인복지관 74명(24.5%),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65명(21.5%)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60명(21.9%), 노인주간보호센터 50명(18.2%), 노인복지관 50명(18.2%),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50명(18.2%)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11명(45.8%), 노인복지관 4명(16.7%)순으로, 고졸은 노인주간보호센터 37명(20.9%),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37명(20.9%), 노인복지관 32명(18.1%)순으로, (전문)대졸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85명(22.5%), 노인복지관 75명(19.9%)순으로, 대학원 졸은 노인복지관 25명(34.2%),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15명(20.5%)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22명(31.9%), 노인주간보호센터 11명(15.9%)순으로, 2명은 노인복지관

33명(22.4%),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30명(20.4%)순으로, 3명은 노인복지관 33명(23.2%),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29명(20.4%)순으로, 4명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50명(22.6%), 노인주간보호센터 48명(21.7%)순으로, 5명 이상은 노인복지관 24명(24.5%), 노인주간보호센터 21명(21.4%)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15명(30.0%), 노인주간보호센터 9명(18.0%)순으로, 도두동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26명(51.0%), 노인주간보호센터 10명(19.6%)순으로, 봉개동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20명(38.5%), 노인주간보호센터 13명(25.0%)순으로, 삼양동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12명(22.6%), 노인주간보호센터 10명(18.9%)순으로, 애월읍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13명(28.9%),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11명(24.4%)순으로, 일도2동은 노인복지관 15명(29.4%), 노인주간보호센터 12명(23.5%)순으로, 연동은 노인복지관 17명(34.7%),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11명(22.4%)순으로, 외도동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15명(22.4%),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14명(19.7%)순으로, 이도2동은 노인주간보호센터 18명(29.0%), 노인복지관 18명(29.0%),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8명(12.9%)순으로, 오라동은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17명(34.0%), 노인주간보호센터 8명(16.0%), 노인복지관 8명(16.0%)순으로, 아라동은 노인복지관 31명(40.3%), 노인주간보호센터 10명(13.0%),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등) 10명(13.0%)순으로, 화북동은 노인복지관 16명(25.0%), 노인주간보호센터 13명(20.3%)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0> 우리 동네에 노인 돌봄에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계	
전체	124 (18.3)	145 (21.4)	68 (10.0)	141 (20.8)	28 (4.1)	37 (5.5)	116 (17.1)	18 (2.7)	677 (100.0)	
성별	여성	85 (18.8)	82 (18.2)	43 (9.5)	101 (22.4)	20 (4.4)	27 (6.0)	81 (18.0)	12 (2.7)	451 (100.0)
	남성	38 (17.0)	63 (28.1)	24 (10.7)	40 (17.9)	8 (3.6)	10 (4.5)	35 (15.6)	6 (2.7)	224 (100.0)
연령대	20대	12 (16.2)	15 (20.3)	12 (16.2)	12 (16.2)	5 (6.8)	2 (2.7)	15 (19.5)	2 (2.6)	74 (100.0)
	30대	14 (18.2)	27 (35.1)	4 (5.2)	10 (13.0)	3 (3.9)	2 (2.6)	15 (19.5)	2 (2.6)	77 (100.0)
	40대	27 (21.8)	34 (27.4)	12 (9.7)	17 (13.7)	2 (1.6)	7 (5.6)	21 (16.9)	4 (3.2)	124 (100.0)
	50대	36 (16.9)	33 (15.5)	22 (10.3)	60 (28.2)	9 (4.2)	13 (6.1)	35 (16.4)	5 (2.3)	213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계
	60대	26 (19.7)	21 (15.9)	11 (8.3)	32 (24.2)	7 (5.3)	11 (8.3)	21 (15.9)	3 (2.3)	132 (100.0)
	70대 이상	7 (14.3)	14 (28.6)	6 (12.2)	8 (16.3)	2 (4.1)	2 (4.1)	7 (14.3)	3 (6.1)	49 (100.0)
결혼여부	미혼	26 (18.8)	30 (21.7)	21 (15.2)	17 (12.3)	6 (4.3)	5 (3.6)	30 (21.7)	3 (2.2)	138 (100.0)
	기혼	89 (18.7)	102 (21.4)	36 (7.6)	111 (23.3)	20 (4.2)	30 (6.3)	74 (15.5)	14 (2.9)	476 (100.0)
	이혼	2 (10.0)	2 (10.0)	3 (15.0)	4 (20.0)	0 (0.0)	2 (10.0)	7 (35.0)	0 (0.0)	20 (100.0)
	사별	5 (14.3)	8 (22.9)	6 (17.1)	9 (25.7)	1 (2.9)	0 (0.0)	5 (14.3)	1 (2.9)	35 (100.0)
	기타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51 (16.9)	65 (21.5)	21 (7.0)	74 (24.5)	16 (5.3)	18 (6.0)	49 (16.2)	8 (2.6)
	맞벌이 아님	50 (18.2)	60 (21.9)	34 (12.4)	50 (18.2)	8 (2.9)	14 (5.1)	50 (18.2)	8 (2.9)	274 (100.0)
학력	중졸 이하	3 (12.5)	11 (45.8)	3 (12.5)	4 (16.7)	0 (0.0)	0 (0.0)	2 (8.3)	1 (4.2)	24 (100.0)
	고졸	37 (20.9)	37 (20.9)	22 (12.4)	32 (18.1)	8 (4.5)	7 (4.0)	27 (15.3)	7 (4.0)	177 (100.0)
	(전문) 대졸	67 (17.8)	85 (22.5)	32 (8.5)	75 (19.9)	18 (4.8)	23 (6.1)	69 (18.3)	8 (2.1)	377 (100.0)
	대학원	9 (12.3)	9 (12.3)	8 (11.0)	25 (34.2)	2 (2.7)	4 (5.5)	15 (20.5)	1 (1.4)	73 (100.0)
	1명(본인)	11 (15.9)	22 (31.9)	8 (11.6)	10 (14.5)	2 (2.9)	3 (4.3)	10 (14.5)	3 (4.3)	69 (100.0)
가족구성원수	2명	25 (17.0)	30 (20.4)	13 (8.8)	33 (22.4)	6 (4.1)	8 (5.4)	27 (18.4)	5 (3.4)	147 (100.0)
	3명	19 (13.4)	24 (16.9)	20 (14.1)	33 (23.2)	3 (2.1)	12 (8.5)	29 (20.4)	2 (1.4)	142 (100.0)
	4명	48 (21.7)	50 (22.6)	21 (9.5)	41 (18.6)	10 (4.5)	9 (4.1)	36 (16.3)	6 (2.7)	221 (100.0)
	5명 이상	21 (21.4)	19 (19.4)	6 (6.1)	24 (24.5)	7 (7.1)	5 (5.1)	14 (14.3)	2 (2.0)	98 (100.0)
	노형동	9 (18.0)	5 (10.0)	7 (14.0)	6 (12.0)	2 (4.0)	3 (6.0)	15 (30.0)	3 (6.0)	50 (100.0)
도두동	10 (19.6)	26 (51.0)	4 (7.8)	4 (7.8)	0 (0.0)	0 (0.0)	7 (13.7)	0 (0.0)	51 (100.0)	
봉개동	13 (25.0)	20 (38.5)	4 (7.7)	3 (5.8)	2 (3.8)	0 (0.0)	10 (19.2)	0 (0.0)	52 (100.0)	
삼양동	10 (18.9)	12 (22.6)	6 (11.3)	3 (5.7)	2 (3.8)	6 (11.3)	7 (13.2)	7 (13.2)	53 (100.0)	
애월읍	7 (15.6)	11 (24.4)	4 (8.9)	8 (17.8)	1 (2.2)	1 (2.2)	13 (28.9)	0 (0.0)	45 (100.0)	
현재거주지	일도2동	12 (23.5)	10 (19.6)	4 (7.8)	15 (29.4)	3 (5.9)	0 (0.0)	4 (7.8)	3 (5.9)	51 (100.0)
	연동	3 (6.1)	7 (14.3)	3 (6.1)	17 (34.7)	2 (4.1)	5 (10.2)	11 (22.4)	1 (2.0)	49 (100.0)
	외도동	11 (15.5)	14 (19.7)	10 (14.1)	12 (16.9)	1 (1.4)	4 (5.6)	15 (22.4)	4 (5.6)	71 (100.0)
	이도2동	18 (29.0)	6 (9.7)	4 (6.5)	18 (29.0)	5 (8.1)	3 (4.8)	8 (12.9)	0 (0.0)	62 (100.0)
	오라동	8 (16.0)	17 (34.0)	3 (6.0)	8 (16.0)	2 (4.0)	5 (10.0)	7 (14.0)	0 (0.0)	50 (100.0)
	아라동	10 (13.0)	7 (9.1)	10 (13.0)	31 (40.3)	5 (6.5)	6 (7.8)	8 (10.4)	0 (0.0)	77 (100.0)
	화북동	13	10	9	16	3	4	9	0	64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계
	(20.3)	(15.6)	(14.1)	(25.0)	(4.7)	(6.3)	(14.1)	(0.0)	(100.0)
① 노인주간보호센터		②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③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등)			
④ 노인복지관		⑤ 경로당				⑥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⑦ 계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⑧ 기타			

## 다. 정신 및 신체 건강

### 1) 현재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정신건강 관련 문제

“현재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21>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244명(34.1%), 외로움 167명(23.3%)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스트레스(151명, 31.3%), 외로움(126명, 26.1%)순으로, 남성은 스트레스(93명, 40.3%), 외로움(41명, 17.7%)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스트레스(28명, 37.3%), 우울/불안(9명, 12.0%)순으로, 30대는 스트레스(35명, 43.2%), 우울/불안(12명, 14.8%)순으로, 40대는 스트레스(59명, 45.7%), 인터넷/게임 과몰입(20명, 15.5%)순으로, 50대는 스트레스(85명, 35.7%), 외로움(55명, 23.1%)순으로, 60대는 외로움(59명, 43.4%), 스트레스(31명, 22.8%)순으로, 70대 이상은 외로움(19명, 38.8%), 치매(9명, 18.4%)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스트레스(58명, 40.6%), 우울/불안(17명, 11.9%)순으로, 기혼은 스트레스(168명, 33.1%), 외로움(133명, 26.2%)순으로, 이혼은 스트레스(7명, 30.4%), 외로움(4명, 17.4%), 폭력(가정 및 학교폭력 등)(4명, 17.4%)순으로, 사별은 외로움(11명, 31.4%), 스트레스(10명, 28.6%)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스트레스(115명, 35.2%), 외로움(72명, 22.0%)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스트레스(91명, 32.4%), 외로움(69명, 24.6%)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외로움(10명, 41.7%), 스트레스(3명, 12.5%), 치매(3명, 12.5%) 순으로, 고졸은 스트레스(57명, 31.3%), 외로움(51명, 28.0%)순으로, (전문)대졸은 스트레스(145명, 35.7%), 외로움(84명, 20.7%)순으로, 대학원 졸은 스트레스(29명, 37.2%), 외로움(15명, 19.2%)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외로움(23명, 32.4%), 스트레스(20명, 28.2%)순으로, 2명은 외로움(50명, 32.3%), 스트레스(41명, 26.5%)순으로, 3명은 스트레스(50명, 33.3%), 외로움(34명, 22.7%)순으로, 4명은 스트레스(82명, 35.0%), 외로움(43명, 18.4%)순으로, 5명 이상은 스트레스(51명, 48.1%), 외로움(17명, 16.0%)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스트레스(12명, 23.1%), 외로움(11명, 21.2%)

순으로, 도두동은 외로움(23명, 45.1%), 스트레스(9명, 17.6%)순으로, 봉개동은 스트레스(30명, 54.5%), 외로움(12명, 21.8%)순으로, 삼양동은 스트레스(26명, 44.1%), 외로움(12명, 20.3%)순으로, 애월읍은 외로움(21명, 42.0%), 스트레스(12명, 24.0%)순으로, 연동은 스트레스(20명, 38.5%), 외로움(14명, 26.9%)순으로, 외도동은 스트레스(27명, 37.5%), 우울/불안(13명, 18.1%)순으로, 이도2동은 외로움(17명, 25.4%), 스트레스(12명, 17.9%)순으로, 오라동은 스트레스(22명, 40.7%), 외로움(8명, 14.8%)순으로, 아라동은 스트레스(22명, 26.5%), 외로움(15명, 18.1%)순으로, 화북동은 스트레스(25명, 37.9%), 외로움(11명, 16.7%), 우울/불안(11명, 16.7%)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1> 현재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정신건강 관련 문제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총계	
전체	167 (23.3)	244 (34.1)	7 (1.0)	57 (8.0)	36 (5.0)	65 (9.1)	27 (3.8)	17 (2.4)	10 (1.4)	5 (0.7)	39 (5.4)	32 (4.5)	1 (0.1)	4 (0.6)	5 (0.7)	716 (100.0)	
성별	여성	126 (26.1)	151 (31.3)	4 (0.8)	42 (8.7)	22 (4.6)	43 (8.9)	16 (3.3)	11 (2.3)	6 (1.2)	4 (0.8)	31 (6.4)	22 (4.6)	1 (0.2)	1 (0.2)	3 (0.6)	483 (100.0)
	남성	41 (17.7)	93 (40.3)	2 (0.9)	15 (6.5)	13 (5.6)	22 (9.5)	11 (4.6)	6 (2.6)	4 (1.7)	1 (0.4)	8 (3.5)	10 (4.3)	0 (0.0)	3 (1.3)	2 (0.9)	231 (100.0)
연령대	20대	7 (9.3)	28 (37.3)	0 (0.0)	6 (8.0)	4 (5.3)	9 (12.0)	8 (10.7)	1 (1.3)	1 (1.3)	2 (2.7)	4 (5.3)	3 (4.0)	0 (0.0)	2 (2.7)	0 (0.0)	75 (100.0)
	30대	7 (8.6)	35 (43.2)	1 (1.2)	5 (6.2)	4 (4.9)	12 (14.8)	5 (6.2)	1 (1.2)	3 (3.7)	0 (0.0)	3 (3.7)	4 (4.9)	0 (0.0)	0 (0.0)	1 (1.2)	81 (100.0)
	40대	18 (14.0)	59 (45.7)	3 (2.3)	20 (15.5)	6 (4.7)	13 (10.1)	2 (1.6)	1 (0.8)	2 (1.6)	0 (0.0)	2 (1.6)	2 (1.6)	0 (0.0)	0 (0.0)	1 (0.8)	129 (100.0)
	50대	55 (23.1)	85 (35.7)	1 (0.4)	15 (6.3)	11 (4.6)	21 (8.8)	7 (2.9)	5 (2.1)	4 (1.7)	2 (0.8)	17 (7.1)	12 (5.0)	0 (0.0)	2 (0.8)	1 (0.4)	238 (100.0)
	60대	59 (43.4)	31 (22.8)	2 (1.5)	10 (7.4)	6 (4.4)	8 (5.9)	3 (2.2)	5 (3.7)	0 (0.0)	1 (0.7)	3 (2.2)	7 (5.1)	1 (0.7)	0 (0.0)	0 (0.0)	136 (100.0)
	70대 이상	19 (38.8)	4 (8.2)	0 (0.0)	0 (0.0)	4 (8.2)	2 (4.1)	2 (4.1)	4 (8.2)	0 (0.0)	0 (0.0)	9 (18.4)	3 (6.1)	0 (0.0)	0 (0.0)	2 (4.1)	49 (100.0)
결혼여부	미혼	16 (11.2)	58 (40.6)	2 (1.4)	9 (6.3)	7 (4.9)	17 (11.9)	8 (5.6)	4 (2.8)	4 (2.8)	2 (1.4)	7 (4.9)	7 (4.9)	0 (0.0)	2 (1.4)	0 (0.0)	143 (100.0)
	기혼	133 (26.2)	168 (33.1)	5 (1.0)	44 (8.7)	23 (4.5)	44 (8.7)	14 (2.8)	11 (2.2)	6 (1.2)	2 (0.4)	27 (5.3)	22 (4.3)	1 (0.2)	2 (0.4)	5 (1.0)	507 (100.0)
	이혼	4 (17.4)	7 (30.4)	0 (0.0)	1 (4.3)	3 (13.0)	1 (4.3)	4 (17.4)	0 (0.0)	0 (0.0)	1 (4.3)	1 (4.3)	1 (4.3)	0 (0.0)	0 (0.0)	0 (0.0)	23 (100.0)
	사별	11 (31.4)	10 (28.6)	0 (0.0)	3 (8.6)	1 (2.9)	3 (8.6)	0 (0.0)	1 (2.9)	0 (0.0)	0 (0.0)	4 (11.4)	2 (5.7)	0 (0.0)	0 (0.0)	0 (0.0)	35 (100.0)
	기타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72 (22.0)	115 (35.2)	4 (1.2)	34 (10.4)	15 (4.6)	31 (9.5)	10 (3.1)	6 (1.8)	4 (1.2)	1 (0.3)	17 (5.2)	13 (4.0)	1 (0.3)	1 (0.3)	3 (0.9)	327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총계
학력	맞벌이 아님	69 (24.6)	91 (32.4)	2 (0.7)	17 (6.0)	14 (5.0)	28 (10.0)	9 (3.2)	8 (2.8)	5 (1.8)	4 (1.4)	15 (5.3)	15 (5.3)	0 (0.0)	2 (0.7)	2 (0.7)	281 (100.0)
	중졸 이하	10 (41.7)	3 (12.5)	1 (4.2)	1 (4.2)	2 (8.3)	2 (8.3)	0 (0.0)	0 (0.0)	0 (0.0)	0 (0.0)	3 (12.5)	1 (4.2)	0 (0.0)	0 (0.0)	1 (4.2)	24 (100.0)
	고졸	51 (28.0)	57 (31.3)	1 (0.5)	11 (6.0)	7 (3.8)	11 (6.0)	15 (8.2)	6 (3.3)	0 (0.0)	3 (1.6)	8 (4.4)	9 (4.9)	1 (0.5)	1 (0.5)	1 (0.5)	182 (100.0)
	(전문) 대졸	84 (20.7)	145 (35.7)	4 (1.0)	38 (9.4)	22 (5.4)	40 (9.9)	10 (2.5)	7 (1.7)	10 (2.5)	2 (0.5)	24 (5.9)	15 (3.7)	0 (0.0)	2 (0.5)	3 (0.7)	406 (100.0)
	대학원 졸	15 (19.2)	29 (37.2)	1 (1.3)	5 (6.4)	3 (3.8)	12 (15.4)	1 (1.3)	3 (3.8)	0 (0.0)	0 (0.0)	2 (2.6)	6 (7.7)	0 (0.0)	1 (1.3)	0 (0.0)	78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본인)	23 (32.4)	20 (28.2)	1 (1.4)	3 (4.2)	2 (2.8)	6 (8.5)	3 (4.2)	2 (2.8)	3 (4.2)	1 (1.4)	6 (8.5)	1 (1.4)	0 (0.0)	0 (0.0)	0 (0.0)	71 (100.0)
	2명	50 (32.3)	41 (26.5)	1 (0.6)	7 (4.5)	7 (4.5)	17 (11.0)	6 (3.9)	7 (4.5)	1 (0.6)	0 (0.0)	8 (5.2)	5 (3.2)	1 (0.6)	0 (0.0)	4 (2.6)	155 (100.0)
	3명	34 (22.7)	50 (33.3)	0 (0.0)	11 (7.3)	10 (6.7)	15 (10.0)	4 (2.7)	3 (2.0)	3 (2.0)	1 (0.7)	10 (6.7)	5 (3.3)	0 (0.0)	3 (2.0)	1 (0.7)	150 (100.0)
	4명	43 (18.4)	82 (35.0)	4 (1.7)	21 (9.0)	15 (6.4)	19 (8.1)	11 (4.7)	4 (1.7)	3 (1.3)	3 (1.3)	13 (5.6)	15 (6.4)	0 (0.0)	1 (0.4)	0 (0.0)	234 (100.0)
	5명 이상	17 (16.0)	51 (48.1)	1 (0.9)	15 (14.2)	2 (1.9)	8 (7.5)	3 (2.8)	1 (0.9)	0 (0.0)	0 (0.0)	2 (1.9)	6 (5.7)	0 (0.0)	0 (0.0)	0 (0.0)	106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11 (21.2)	12 (23.1)	1 (1.9)	10 (19.2)	4 (7.7)	3 (5.8)	0 (0.0)	2 (3.8)	0 (0.0)	0 (0.0)	3 (5.8)	6 (11.5)	0 (0.0)	0 (0.0)	0 (0.0)	52 (100.0)
	도두동	23 (45.1)	9 (17.6)	0 (0.0)	1 (2.0)	2 (3.9)	4 (7.8)	3 (5.9)	0 (0.0)	0 (0.0)	0 (0.0)	6 (11.8)	3 (5.9)	0 (0.0)	0 (0.0)	0 (0.0)	51 (100.0)
	봉개동	12 (21.8)	30 (54.5)	0 (0.0)	2 (3.6)	1 (1.8)	2 (3.6)	0 (0.0)	2 (3.6)	3 (5.5)	0 (0.0)	1 (1.8)	2 (3.6)	0 (0.0)	0 (0.0)	0 (0.0)	55 (100.0)
	삼양동	12 (20.3)	26 (44.1)	0 (0.0)	4 (6.8)	4 (6.8)	1 (1.7)	1 (1.7)	3 (5.1)	1 (1.7)	0 (0.0)	2 (3.4)	3 (5.1)	0 (0.0)	1 (1.7)	1 (1.7)	59 (100.0)
	애월읍	21 (42.0)	12 (24.0)	0 (0.0)	5 (10.0)	3 (6.0)	3 (6.0)	1 (2.0)	1 (2.0)	1 (2.0)	0 (0.0)	2 (4.0)	0 (0.0)	0 (0.0)	0 (0.0)	1 (2.0)	50 (100.0)
	일도2동	10 (18.9)	27 (50.9)	2 (3.8)	2 (3.8)	1 (1.9)	4 (7.5)	1 (1.9)	1 (1.9)	1 (1.9)	0 (0.0)	2 (3.8)	2 (3.8)	0 (0.0)	0 (0.0)	0 (0.0)	53 (100.0)
	연동	14 (26.9)	20 (38.5)	0 (0.0)	2 (3.8)	2 (3.8)	5 (9.6)	0 (0.0)	1 (1.9)	0 (0.0)	1 (1.9)	2 (3.8)	2 (3.8)	1 (1.9)	2 (3.8)	0 (0.0)	52 (100.0)
	외도동	12 (16.7)	27 (37.5)	3 (4.2)	9 (12.5)	2 (2.8)	13 (18.1)	3 (4.2)	0 (0.0)	1 (1.4)	0 (0.0)	2 (2.8)	0 (0.0)	0 (0.0)	0 (0.0)	0 (0.0)	72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총계
이도2동	17 (25.4)	12 (17.9)	0 (0.0)	4 (6.0)	3 (4.5)	7 (10.4)	7 (10.4)	2 (3.0)	2 (3.0)	2 (3.0)	5 (7.5)	6 (9.0)	0 (0.0)	0 (0.0)	0 (0.0)	67 (100.0)
오라동	8 (14.8)	22 (40.7)	1 (1.9)	6 (11.1)	7 (13.0)	2 (3.7)	1 (1.9)	0 (0.0)	0 (0.0)	1 (1.9)	4 (7.4)	2 (3.7)	0 (0.0)	0 (0.0)	0 (0.0)	54 (100.0)
아라동	15 (18.1)	22 (26.5)	0 (0.0)	6 (7.2)	6 (7.2)	10 (12.0)	4 (4.8)	5 (6.0)	1 (1.2)	1 (1.2)	7 (8.4)	3 (3.6)	0 (0.0)	0 (0.0)	3 (3.6)	83 (100.0)
화북동	11 (16.7)	25 (37.9)	0 (0.0)	6 (9.1)	1 (1.5)	11 (16.7)	6 (9.1)	0 (0.0)	0 (0.0)	0 (0.0)	3 (4.5)	2 (3.0)	0 (0.0)	1 (1.5)	0 (0.0)	66 (100.0)

① 외로움

② 스트레스

③ 학교부적응

④ 인터넷/게임 과몰입

⑤ 약물남용(술, 담배, 카페인 등)

⑥ 우울/불안

⑦ 폭력(가정 및 학교폭력 등)

⑧ 불면증

⑨ 조현병

⑩ 조울증

⑪ 치매

⑫ 은둔/고립

⑬ 공황장애

⑭ 도박

⑮ 기타

## 2) 우리 동네에 주민정신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우리 동네에 주민정신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22>와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 223명(31.5%), 정신건강상담센터 220명(31.0%)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정신건강상담센터(155명, 32.6%),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51명, 31.7%)순으로, 남성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72명, 31.2%), 정신건강상담센터(64명, 27.7%)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정신건강상담센터(29명, 38.7%), 의료기관(정신과 의원 등)(19명, 25.3%)순으로, 30대는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7명, 33.3%), 정신건강상담센터(24명, 29.6%)순으로, 40대는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45명, 35.2%), 정신건강상담센터(39명, 30.5%)순으로, 50대는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86명, 36.8%), 정신건강상담센터(68명, 29.1%)순으로, 60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44명, 32.4%),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44명, 32.4%), 정신건강상담센터(37명, 27.2%)순으로, 70대 이상은 정신건강상담센터(21명, 44.7%),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12명, 25.5%)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정신건강상담센터(46명, 32.2%),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38명, 26.6%)순으로, 기혼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71명, 34.2%), 정신건강상담센터(150명, 30.0%)순으로, 이혼은 정신건강상담센터(8명, 36.4%), 의료기관(정신과 의원 등)(6명, 27.3%)순으로, 사별은 정신건강상담센터(14명, 38.9%),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10명, 27.8%)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18명, 36.6%), 정신건강상담센터(101명, 31.4%)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정신건강상담센터(83명, 29.6%),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79명, 28.2%)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10명, 41.7%), 정신건강상담센터(6명, 25.0%)순으로, 고졸은 정신건강상담센터(56명, 31.1%),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52명, 28.9%)순으로, (전문)대졸은 정신건강상담센터(130명, 32.3%),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30명, 32.3%),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78명, 19.4%)순으로, 대학원 졸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9명, 37.7%), 정신건강상담센터(23명, 29.9%)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공원 및 녹

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2명, 31.4%), 정신건강상담센터(21명, 30.0%)순으로, 2명은 정신건강상담센터(50명, 32.7%),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44명, 28.8%)순으로, 3명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48명, 32.2%), 정신건강상담센터(43명, 28.9%)순으로, 4명은 정신건강상담센터(74명, 31.8%),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74명, 31.8%),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43명, 18.5%)순으로, 5명 이상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36명, 34.6%), 정신건강상담센터(32명, 30.8%)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정신건강상담센터(22명, 42.3%),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4명, 26.9%)순으로, 도두동은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17명, 33.3%), 의료기관(정신과 의원 등)(15명, 29.4%)순으로, 봉개동은 의료기관(정신과 의원 등)(16명, 29.1%),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4명, 25.5%)순으로, 삼양동은 정신건강상담센터(17명, 28.8%),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16명, 27.1%)순으로, 애월읍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8명, 36.0%), 정신건강상담센터(15명, 30.0%)순으로, 일도2동은 정신건강상담센터(24명, 46.2%),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5명, 28.8%)순으로, 연동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0명, 38.5%), 정신건강상담센터(15명, 28.8%)순으로, 외도동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30명, 42.3%), 정신건강상담센터(18명, 25.4%)순으로, 이도2동은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22명, 33.3%), 정신건강상담센터(21명, 31.8%),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1명, 31.8%)순으로, 오라동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4명, 44.4%), 정신건강상담센터(13명, 24.1%)순으로, 아라동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32명, 40.0%), 정신건강상담센터(27명, 33.8%)순으로, 화북동은 정신건강상담센터(23명, 35.4%), 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20명, 30.8%)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2> 우리 동네에 주민정신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전체		152 (21.4)	108 (15.2)	220 (31.0)	223 (31.5)	6 (0.8)	709 (100.0)
성별	여성	107 (22.5)	59 (12.4)	155 (32.6)	151 (31.7)	4 (0.8)	476 (100.0)
	남성	44 (19.0)	49 (21.2)	64 (27.7)	72 (31.2)	2 (0.9)	231 (100.0)
연령대	20대	15 (20.0)	19 (25.3)	29 (38.7)	12 (16.0)	0 (0.0)	75 (100.0)
	30대	15 (18.5)	13 (16.0)	24 (29.6)	27 (33.3)	2 (2.5)	81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40대	12 (9.4)	32 (25.0)	39 (30.5)	45 (35.2)	0 (0.0)	128 (100.0)
	50대	52 (22.2)	24 (10.3)	68 (29.1)	86 (36.8)	4 (1.7)	234 (100.0)
	60대	44 (32.4)	11 (8.1)	37 (27.2)	44 (32.4)	0 (0.0)	136 (100.0)
	70대	12 (25.5)	8 (17.0)	21 (44.7)	6 (12.8)	0 (0.0)	47 (100.0)
	이상						
결혼여부	미혼	30 (21.0)	28 (19.6)	46 (32.2)	38 (26.6)	1 (0.7)	143 (100.0)
	기혼	105 (21.0)	69 (13.8)	150 (30.0)	171 (34.2)	5 (1.0)	500 (100.0)
	이혼	3 (13.6)	6 (27.3)	8 (36.4)	5 (22.7)	0 (0.0)	22 (100.0)
	사별	10 (27.8)	4 (11.1)	14 (38.9)	8 (22.2)	0 (0.0)	36 (100.0)
	기타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57 (17.7)	43 (13.4)	101 (31.4)	118 (36.6)	3 (0.9)	322 (100.0)
	맞벌이아님	72 (25.7)	45 (16.1)	83 (29.6)	79 (28.2)	1 (0.4)	280 (100.0)
학력	중졸이하	10 (41.7)	6 (25.0)	6 (25.0)	2 (8.3)	1 (4.2)	24 (100.0)
	고졸	44 (24.4)	28 (15.6)	56 (31.1)	52 (28.9)	1 (0.5)	182 (100.0)
	(전문)대졸	78 (19.4)	60 (14.9)	130 (32.3)	130 (32.3)	3 (0.7)	406 (100.0)
	대학원졸	15 (19.5)	9 (11.7)	23 (29.9)	29 (37.7)	0 (0.0)	78 (100.0)
가족구성원수	1명(본인)	12 (17.1)	15 (21.4)	21 (30.0)	22 (31.4)	0 (0.0)	70 (100.0)
	2명	44 (28.8)	15 (9.8)	50 (32.7)	43 (28.1)	1 (0.7)	153 (100.0)
	3명	33 (22.1)	25 (16.8)	43 (28.9)	48 (32.2)	0 (0.0)	149 (100.0)
	4명	43 (18.5)	39 (16.7)	74 (31.8)	74 (31.8)	3 (1.3)	233 (100.0)
	5명이상	20 (19.2)	14 (13.5)	32 (30.8)	36 (34.6)	2 (1.9)	104 (100.0)
현재거주지	노형동	10 (19.2)	4 (7.7)	22 (42.3)	14 (26.9)	2 (3.8)	52 (100.0)
	도두동	17 (33.3)	15 (29.4)	11 (21.6)	8 (15.7)	0 (0.0)	51 (100.0)
	봉개동	12 (21.8)	16 (29.1)	13 (23.6)	14 (25.5)	0 (0.0)	55 (100.0)
	삼양동	16 (27.1)	10 (16.9)	17 (28.8)	15 (25.4)	1 (1.7)	59 (100.0)
	애월읍	11 (22.0)	6 (12.0)	15 (30.0)	18 (36.0)	0 (0.0)	50 (100.0)
	일도2동	4 (7.7)	7 (13.5)	24 (46.2)	15 (28.8)	2 (3.8)	52 (100.0)
	연동	8 (15.4)	9 (17.3)	15 (28.8)	20 (38.5)	0 (0.0)	52 (100.0)
	외도동	13 (18.3)	9 (12.7)	18 (25.4)	30 (42.3)	1 (1.4)	71 (100.0)
	이도2동	22 (33.3)	2 (3.0)	21 (31.8)	21 (31.8)	0 (0.0)	66 (100.0)
	오라동	7	10	13	24	0	54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13.0)	(18.5)	(24.1)	(44.4)	(0.0)	(100.0)
아라동	12 (15.0)	9 (11.3)	27 (33.8)	32 (40.0)	0 (0.0)	80 (100.0)
화북동	20 (30.8)	11 (16.9)	23 (35.4)	11 (16.9)	0 (0.0)	65 (100.0)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

② 의료기관(정신과 의원 등)

③ 정신건강상담센터

④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

⑤ 기타

### 3) 현재 주민의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

“현재 주민의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23>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운동프로그램 지원 216명(30.2%),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 182명(25.5%)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운동프로그램 운영(156명, 32.4%),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17명, 24.3%)순으로, 남성은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65명, 28.0%), 체육시설 설치(64명, 27.6%)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체육시설 설치(22명, 29.3%),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22명, 29.3%), 운동프로그램 운영(15명, 20.0%)순으로, 30대는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22명, 27.2%), 체육시설 설치(20명, 24.7%)순으로, 40대는 체육시설 설치(39명, 30.5%),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34명, 26.6%)순으로, 50대는 운동프로그램 운영(76명, 31.9%),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30명, 25.2%)순으로, 60대는 운동프로그램 운영(55명, 39.9%),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28명, 20.3%)순으로, 70대 이상은 운동프로그램 운영(15명, 31.9%),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5명, 31.9%), 체육시설 설치(6명, 12.8%)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체육시설 설치(39명, 27.3%), 운동프로그램 운영(37명, 25.9%)순으로, 기혼은 운동프로그램 운영(158명, 31.2%),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30명, 25.7%)순으로, 이혼은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8명, 34.8%), 운동프로그램 운영(5명, 21.7%)순으로, 사별은 운동프로그램 운영(14명, 38.9%),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7명, 19.4%)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운동프로그램 운영(94명, 28.9%), 체육시설 설치(88명, 27.1%)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운동프로그램 운영(92명, 32.6%),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74명, 26.2%)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9명, 39.1%), 운동프로그램 운영(8명, 34.8%)순으로, 고졸은 운동프로그램 운영(65명, 35.5%),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40명, 21.9%)순으로, (전문)대졸은 운동프로그램 운영(111명, 27.4%), 체육시설 설치(98명, 24.2%)순으로, 대학원 졸은 체육시설 설치(24명, 30.8%), 운동프로그램 운영(24명, 30.8%),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6명, 20.5%)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운동프로그램 운영(23명, 32.4%),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9명, 26.8%)순으로, 2명은 운동프로그램 운영(50명, 32.1%),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43명, 27.6%)순으로, 3명은 운동프로그램 운영(47명, 31.5%),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37명, 24.8%)순으로, 4명은 체육시설 설치(70명, 30.0%), 운동프로그램 운영(66명, 28.3%)순으로, 5명 이상은 운동프로그램 운영(30명, 28.3%),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25명, 23.6%)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운동프로그램 운영(23명, 42.6%), 체육시설 설치(12명, 22.2%)순으로, 도두동은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9명, 38.0%), 운동프로그램 운영(13명, 26.0%)순으로, 봉개동은 체육시설 설치(20명, 36.4%),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7명, 30.9%)순으로, 삼양동은 운동프로그램 운영(24명, 40.7%), 체육시설 설치(12명, 20.3%),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2명, 20.3%)순으로, 애월읍은 운동프로그램 운영(23명, 46.0%),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1명, 22.0%)순으로, 일도2동은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7명, 32.1%), 운동프로그램 운영(13명, 24.5%)순으로, 연동은 운동프로그램 운영(17명, 32.7%), 체육시설 설치(15명, 28.8%)순으로, 외도동은 운동프로그램 운영(25명, 34.7%),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5명, 20.8%)순으로, 이도2동은 운동프로그램 운영(18명, 26.9%), 체육시설 설치(17명, 25.4%)순으로, 오라동은 체육시설 설치(18명, 33.3%),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12명, 22.2%), 운동프로그램 운영(12명, 22.2%)순으로, 아라동은 체육시설 설치(24명, 29.6%),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21명, 25.9%)순으로, 화북동은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21명, 31.8%), 운동프로그램 운영(18명, 27.3%)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3> 현재 주민의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계
전체	169 (23.6)	182 (25.5)	68 (9.5)	216 (30.2)	21 (2.9)	17 (2.4)	36 (5.0)	6 (0.8)	715 (100.0)
성별	여성	105 (21.8)	117 (24.3)	57 (11.9)	156 (32.4)	12 (2.5)	12 (2.5)	18 (3.7)	481 (100.0)
	남성	64 (27.6)	65 (28.0)	11 (4.7)	59 (25.4)	8 (3.4)	5 (2.2)	18 (7.8)	232 (100.0)
연령대	20대	22 (29.3)	22 (29.3)	10 (13.3)	15 (20.0)	0 (0.0)	1 (1.3)	5 (6.7)	75 (100.0)
	30대	20 (24.7)	22 (27.2)	9 (11.1)	19 (23.5)	3 (3.7)	3 (3.7)	5 (6.2)	81 (100.0)
	40대	39 (30.5)	34 (26.6)	11 (8.6)	31 (24.2)	3 (2.3)	4 (3.1)	6 (4.7)	128 (100.0)
	50대	57 (23.9)	60 (25.2)	23 (9.7)	76 (31.9)	7 (2.9)	5 (2.1)	9 (3.8)	238 (100.0)
	60대	24 (17.4)	28 (20.3)	10 (7.2)	55 (39.9)	5 (3.6)	3 (2.2)	10 (7.2)	138 (100.0)
	70대 이상	6 (12.8)	15 (31.9)	4 (8.5)	15 (31.9)	3 (6.4)	1 (2.1)	1 (2.1)	47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총계
결혼여부	미혼	39 (27.3)	35 (24.5)	20 (14.0)	37 (25.9)	1 (0.7)	3 (2.1)	8 (5.6)	0 (0.0)	143 (100.0)
	기혼	120 (23.7)	130 (25.7)	42 (8.3)	158 (31.2)	16 (3.2)	11 (2.2)	25 (4.9)	4 (0.8)	506 (100.0)
	이혼	2 (8.7)	8 (34.8)	2 (8.7)	5 (21.7)	1 (4.3)	3 (13.0)	1 (4.3)	1 (4.3)	23 (100.0)
	사별	8 (22.2)	7 (19.4)	2 (5.6)	14 (38.9)	3 (8.3)	0 (0.0)	1 (2.8)	1 (2.8)	36 (100.0)
	기타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88 (27.1)	84 (25.8)	28 (8.6)	94 (28.9)	10 (3.1)	6 (1.8)	15 (4.6)	0 (0.0)	325 (100.0)
	맞벌이아님	58 (20.6)	74 (26.2)	20 (7.1)	92 (32.6)	9 (3.2)	8 (2.8)	17 (6.0)	4 (1.4)	282 (100.0)
학력	중졸이하	2 (8.7)	9 (39.1)	1 (4.3)	8 (34.8)	2 (8.7)	0 (0.0)	0 (0.0)	1 (4.3)	23 (100.0)
	고졸	39 (21.3)	40 (21.9)	22 (12.0)	65 (35.5)	5 (2.7)	4 (2.2)	7 (3.8)	1 (0.5)	183 (100.0)
	(전문)대졸	98 (24.2)	112 (27.7)	35 (8.6)	111 (27.4)	11 (2.7)	9 (2.2)	25 (6.2)	4 (1.0)	405 (100.0)
	대학원	24 (30.8)	16 (20.5)	7 (9.0)	24 (30.8)	2 (2.6)	3 (3.8)	2 (2.6)	0 (0.0)	78 (100.0)
가족구성원수	1명(본인)	16 (22.5)	19 (26.8)	7 (9.9)	23 (32.4)	0 (0.0)	2 (2.8)	2 (2.8)	2 (2.8)	71 (100.0)
	2명	33 (21.2)	43 (27.6)	9 (5.8)	50 (32.1)	6 (3.8)	5 (3.2)	6 (3.8)	4 (2.6)	156 (100.0)
	3명	31 (20.8)	37 (24.8)	18 (12.1)	47 (31.5)	6 (4.0)	3 (2.0)	7 (4.7)	0 (0.0)	149 (100.0)
	4명	70 (30.0)	58 (24.9)	21 (9.0)	66 (28.3)	3 (1.3)	6 (2.6)	9 (3.9)	0 (0.0)	233 (100.0)
	5명이상	19 (17.9)	25 (23.6)	13 (12.3)	30 (28.3)	6 (5.7)	1 (0.9)	12 (11.3)	0 (0.0)	106 (100.0)
현재거주지	노형동	12 (22.2)	7 (13.0)	8 (14.8)	23 (42.6)	1 (1.9)	2 (3.7)	1 (1.9)	0 (0.0)	54 (100.0)
	도두동	12 (24.0)	19 (38.0)	2 (4.0)	13 (26.0)	2 (4.0)	0 (0.0)	1 (2.0)	1 (2.0)	50 (100.0)
	봉개동	20 (36.4)	17 (30.9)	3 (5.5)	9 (16.9)	2 (3.6)	1 (1.8)	3 (5.5)	0 (0.0)	55 (100.0)
	삼양동	12 (20.3)	12 (20.3)	4 (6.8)	24 (40.7)	1 (1.7)	1 (1.7)	4 (6.8)	1 (1.7)	59 (100.0)
	애월읍	4 (8.0)	11 (22.0)	4 (8.0)	23 (46.0)	2 (4.0)	5 (10.0)	1 (2.0)	0 (0.0)	50 (100.0)
	일도2동	11 (20.8)	17 (32.1)	8 (15.1)	13 (24.5)	1 (1.9)	0 (0.0)	3 (5.7)	0 (0.0)	53 (100.0)
	연동	15 (28.8)	13 (25.0)	6 (11.5)	17 (32.7)	1 (1.9)	0 (0.0)	0 (0.0)	0 (0.0)	52 (100.0)
	외도동	13 (18.1)	15 (20.8)	5 (6.9)	25 (34.7)	4 (5.6)	2 (2.8)	6 (8.3)	2 (2.8)	72 (100.0)
	이도2동	17 (25.4)	16 (23.9)	7 (10.4)	18 (26.9)	1 (1.5)	2 (3.0)	6 (9.0)	0 (0.0)	67 (100.0)
	오라동	18 (33.3)	12 (22.2)	6 (11.1)	12 (22.2)	2 (3.7)	3 (5.6)	1 (1.9)	0 (0.0)	54 (100.0)
	아라동	24 (29.6)	21 (25.9)	6 (7.4)	20 (24.7)	3 (3.7)	0 (0.0)	5 (6.2)	2 (2.5)	81 (100.0)
	화북동	11 (16.7)	21 (31.8)	9 (13.6)	18 (27.3)	1 (1.5)	1 (1.5)	5 (7.6)	0 (0.0)	66 (100.0)

① 체육시설 설치

②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

③ 생활습관 변화 지원(폭식 등)

④ 운동프로그램 운영

⑤ 운동 물품 지원

⑥ 체육시설까지 이동 지원(차량 등)

⑦ 운동동호회 조직 및 지원

⑧ 기타

#### 4) 우리 동네에 주민의 신체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우리 동네에 주민의 신체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24>와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 290명(40.7%),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 233명(32.7%)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201명, 42.0%),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66명, 34.7%)순으로, 남성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88명, 38.1%),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67명, 29.0%)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39명, 52.0%),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8명, 24.0%)순으로, 30대는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37명, 45.7%),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9명, 35.8%)순으로, 40대는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56명, 43.8%),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35명, 27.3%)순으로, 50대는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90명, 38.5%),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87명, 37.2%)순으로, 60대는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51명, 37.2%),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48명, 35.0%)순으로, 70대 이상은 의료기관(재활의원 등)(21명, 42.9%),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14명, 42.9%)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67명, 46.9%),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40명, 28.0%)순으로, 기혼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197명, 39.2%),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75명, 34.9%)순으로, 이혼은 의료기관(재활의원 등)(7명, 30.4%),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7명, 30.4%),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7명, 30.4%)순으로, 사별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17명, 47.2%), 의료기관(재활의원 등)(10명, 27.8%)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129명, 39.9%),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13명, 35.0%)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106명, 37.7%),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89명, 31.7%)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의료기관(재활의원 등)(12명, 50.0%),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8명, 33.3%)순으로, 고졸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67명, 37.0%),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66명, 36.5%)순으로, (전문)대졸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173명, 42.9%), 공원 및 녹지공간(걷

기, 헬스기구 등)(125명, 31.0%)순으로, 대학원 줄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34명, 43.6%),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7명, 34.6%)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29명, 40.8%),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9명, 26.8%)순으로, 2명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65명, 41.7%),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48명, 30.8%)순으로, 3명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68명, 45.6%),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50명, 33.6%)순으로, 4명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95명, 40.8%),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70명, 30.0%)순으로, 5명 이상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50명, 48.5%),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9명, 28.2%)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35명, 64.8%),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4명, 25.9%)순으로, 도두동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3명, 25.5%),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11명, 21.6%)순으로, 봉개동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22명, 40.0%),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6명, 29.1%)순으로, 삼양동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27명, 45.8%), 의료기관(재활의원 등)(12명, 20.3%)순으로, 애월읍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3명, 46.9%), 의료기관(재활의원 등)(14명, 28.6%)순으로, 일도2동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16명, 31.4%),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15명, 29.4%)순으로, 연동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24명, 46.2%),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1명, 40.4%)순으로, 외도동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26명, 36.1%),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4명, 33.3%)순으로, 이도2동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27명, 40.3%),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6명, 38.8%)순으로, 오라동은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26명, 50.0%), 의료기관(재활의원 등)(14명, 26.9%)순으로, 아라동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42명, 50.6%),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31명, 37.3%)순으로, 화북동은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39명, 60.0%), 의료기관(재활의원 등)(12명, 18.5%)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4> 우리 동네에 주민의 신체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전체	46 (6.5)	125 (17.6)	290 (40.7)	233 (32.7)	18 (2.5)	712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성별	여성	21 (4.4)	78 (16.3)	201 (42.0)	166 (34.7)	13 (2.7)	479 (100.0)
	남성	25 (10.8)	46 (19.9)	88 (38.1)	67 (29.0)	5 (2.2)	231 (100.0)
연령대	20대	8 (10.7)	9 (12.0)	39 (52.0)	18 (24.0)	1 (1.3)	75 (100.0)
	30대	7 (8.6)	8 (9.9)	37 (45.7)	29 (35.8)	0 (0.0)	81 (100.0)
	40대	8 (6.3)	27 (21.1)	56 (43.8)	35 (27.3)	2 (1.6)	128 (100.0)
	50대	10 (4.3)	42 (17.9)	90 (38.5)	87 (37.2)	5 (2.1)	234 (100.0)
	60대	13 (9.5)	17 (12.4)	51 (37.2)	48 (35.0)	8 (5.8)	137 (100.0)
	70대 이상	0 (0.0)	21 (42.9)	14 (28.6)	12 (24.5)	2 (4.1)	49 (100.0)
결혼여부	미혼	12 (8.4)	22 (15.4)	67 (46.9)	40 (28.0)	2 (1.4)	143 (100.0)
	기혼	32 (6.4)	82 (16.3)	197 (39.2)	175 (34.9)	16 (3.2)	502 (100.0)
	이혼	2 (8.7)	7 (30.4)	7 (30.4)	7 (30.4)	0 (0.0)	23 (100.0)
	사별	0 (0.0)	10 (27.8)	17 (47.2)	9 (25.0)	0 (0.0)	36 (100.0)
	기타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20 (6.2)	53 (16.4)	129 (39.9)	113 (35.0)	8 (2.5)	323 (100.0)
	맞벌이 아님	20 (7.1)	60 (21.4)	106 (37.7)	89 (31.7)	6 (2.1)	281 (100.0)
학력	중졸 이하	1 (4.2)	12 (50.0)	8 (33.3)	2 (8.3)	1 (4.2)	24 (100.0)
	고졸	11 (6.1)	34 (18.8)	66 (36.5)	67 (37.0)	3 (1.7)	181 (100.0)
	(전문) 대졸	26 (6.5)	66 (16.4)	173 (42.9)	125 (31.0)	13 (3.2)	403 (100.0)
	대학원 졸	7 (9.0)	9 (11.5)	34 (43.6)	27 (34.6)	1 (1.3)	78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본인)	3 (4.2)	17 (23.9)	29 (40.8)	19 (26.8)	3 (4.2)	71 (100.0)
	2명	13 (8.3)	24 (15.4)	48 (30.8)	65 (41.7)	6 (3.8)	156 (100.0)
	3명	7 (4.7)	23 (15.4)	68 (45.6)	50 (33.6)	1 (0.7)	149 (100.0)
	4명	16 (6.9)	47 (20.2)	95 (40.8)	70 (30.0)	5 (2.1)	233 (100.0)
	5명 이상	7 (6.8)	14 (13.6)	50 (48.5)	29 (28.2)	3 (2.9)	103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0 (0.0)	3 (5.6)	35 (64.8)	14 (25.9)	2 (3.7)	54 (100.0)
	도두동	2 (3.9)	25 (49.0)	11 (21.6)	13 (25.5)	0 (0.0)	51 (100.0)
	봉개동	6 (10.9)	9 (16.4)	22 (40.0)	16 (29.1)	2 (3.6)	55 (100.0)
	삼양동	5 (8.5)	12 (20.3)	27 (45.8)	11 (18.6)	4 (6.8)	59 (100.0)
	애월읍	1 (2.0)	14 (28.6)	11 (22.4)	23 (46.9)	0 (0.0)	49 (100.0)
	일도2동	8	11	15	16	1	51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15.7)	(21.6)	(29.4)	(31.4)	(2.0)	(100.0)
연동	2 (3.8)	3 (5.8)	24 (46.2)	21 (40.4)	2 (3.8)	52 (100.0)
외도동	6 (8.3)	10 (13.9)	26 (36.1)	24 (33.3)	6 (8.3)	72 (100.0)
이도2동	8 (11.9)	6 (9.0)	27 (40.3)	26 (38.8)	0 (0.0)	67 (100.0)
오라동	1 (1.9)	14 (26.9)	11 (21.2)	26 (50.0)	0 (0.0)	52 (100.0)
아라동	4 (4.8)	6 (7.2)	42 (50.6)	31 (37.3)	0 (0.0)	83 (100.0)
화북동	3 (4.6)	12 (18.5)	39 (60.0)	10 (15.4)	1 (1.5)	65 (100.0)

① 야외 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등)      ② 의료기관(재활 의원 등)      ③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  
 ④ 공원 및 녹지공간(걸기, 헬스기구 등)      ⑤ 기타

## 라. 기초생활유지

### 1) 기초생활유지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

“기초생활유지 문제로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표IV-25>와 같음. 분석 결과를 보면,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생계비 부족(식비, 의복 구입비 등)(185명, 26.2%)이 높게 나타났고, 주거비 부족(연세, 월세 등)\*주택구입비 제외(137명, 19.4%)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IV-25> 기초생활유지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  
(n=707)

구분	빈도(명)	비율(%)
① 생계비 부족(식비, 의복 구입비 등)	185	16.6
② 주거비 부족(연세, 월세 등) *주택구입비 제외	137	12.3
③ 의료비 부족(수술비, 진료비 등)	102	9.2
④ 교육비 부족(방과후 학원비, 교재구입비 등)	88	7.9
⑤ 냉난방비 부족(가스(등유)비 상승, 냉방비용 증가 등)	123	11.1
⑥ 통신비 부족(전화, 인터넷 등)	20	1.8
⑦ 가계재정 관리 어려움(과도한 지출, 부채 등)	105	9.4
⑧ 돌봄 비용 증가(치매 어르신 등)	109	9.8
⑨ 기타	11	1.0
⑩ 해당 없음	232	20.9
전체	1,112	100.0

\*다중응답

## 2) 현재 주민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현재 주민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26>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일자리 지원 210명(29.9%), 생계비 지원 198명(28.2%)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일자리 지원(142명, 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계비 지원(125명, 26.4%)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남성은 여성과 반대로 생계비 지원(72명, 31.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자리 지원(67명, 29.4%)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는 생계비 지원(27명, 36.5%), 일자리 지원(14명, 18.9%)순으로, 30대는 일자리 지원(22명, 27.8%), 생계비 지원(21명, 26.6%)순으로, 40대는 생계비 지원(45명, 35.2%), 일자리 지원(28명, 21.9%)순으로, 50대는 일자리 지원(76명, 33.2%), 생계비 지원(61명, 26.6%)순으로, 60대는 일자리 지원(54명, 40.0%), 생계비 지원(32명, 23.7%)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70대 이상은 생계비 지원(12명, 24.0%), 의료비 지원(9명, 18.0%), 일자리 지원(9명, 18.0%) 순으로 나타남.

결혼여부로 살펴보면, 미혼은 생계비 지원(48명, 33.8%), 일자리 지원(32명, 22.5%)순으로, 기혼은 일자리 지원(166명, 33.5%), 생계비 지원(126명, 25.4%) 순으로, 이혼은 생계비 지원(8명, 34.8%), 일자리 지원(4명, 17.4%)순으로, 사별은 생계비 지원(13명, 38.2%), 의료비 지원(7명, 20.6%)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일자리 지원(97명, 30.5%), 생계비 지원(91명, 28.6%)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일자리 지원(81명, 28.9%), 생계비 지원(76명, 27.1%)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생계비 지원(6명, 25.0%), 의료비 지원(5명, 20.8%), 일자리 지원(5명, 20.8%)순으로, 고졸은 생계비 지원(62명, 34.6%), 일자리 지원(49명, 27.4%), (전문)대졸은 일자리 지원(127명, 32.1%), 생계비 지원(102명, 25.8%)순으로, 대학원졸은 생계비 지원(21명, 26.9%), 일자리 지원(20명, 25.6%)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일자리 지원(19명, 27.1%), 생계비 지원(17명, 24.3%)순으로, 2명은 일자리 지원(48명, 31.6%), 생계비 지원(38명, 25.0%)순으로, 3명은 일자리 지원(43명, 29.1%), 생계비 지원(39명, 26.4%), 5명 이상은 일자리 지원(35명, 33.5%), 생계비 지원(31명, 29.5%)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일자리 지원(23명, 45.1%), 생계비 지원(10명, 19.6%)순으로, 도두동은 생계비 지원(15명, 29.4%), 일자리 지원(9명, 17.6%)순으로, 봉개동은 일자리 지원(22명, 40.0%), 생계비 지원(17명, 30.9%)순으로, 삼양동은 생계비 지원(18명, 31.6%), 일자리 지원(17명, 29.8%)순으로, 애월읍은 일자리 지원

(17명, 35.4%), 생계비 지원(10명, 20.8%)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도2동은 생계비 지원(14명, 26.4%), 일자리 지원(14명, 26.4%)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음. 연동은 생계비 지원(17명, 33.3%), 일자리 지원(16명, 31.4%), 외도동은 생계비 지원(17명, 24.3%), 일자리 지원(14명, 20.0%)순으로, 이도2동은 생계비 지원(24명, 36.4%), 일자리 지원(17명, 25.8%)순으로, 오라동은 일자리 지원(22명, 41.5%), 생계비 지원(17명, 32.1%)순으로, 아라동은 일자리 지원(25명, 30.5%), 생계비 지원(22명, 26.8%)순으로, 화북동은 생계비 지원(17명, 26.6%), 의료비 지원(12명, 18.8%), 일자리 지원(12명, 18.8%)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6> 현재 주민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계	
전체	198 (28.2)	93 (13.2)	49 (7.0)	210 (29.9)	19 (2.7)	34 (4.8)	9 (1.3)	31 (4.4)	36 (5.1)	24 (3.4)	703 (100.0)	
성별	여성	125 (26.4)	62 (13.1)	39 (8.2)	142 (30.0)	12 (2.5)	20 (4.2)	6 (1.3)	21 (4.4)	28 (5.9)	473 (100.0)	
	남성	72 (31.6)	31 (13.6)	10 (4.4)	67 (29.4)	7 (3.1)	14 (6.1)	3 (1.3)	10 (4.4)	8 (3.5)	228 (100.0)	
연령대	20대	27 (36.5)	13 (17.6)	5 (6.8)	14 (18.9)	0 (0.0)	1 (1.4)	3 (4.1)	2 (2.7)	5 (6.8)	74 (100.0)	
	30대	21 (26.6)	12 (15.2)	3 (3.8)	22 (27.8)	4 (5.1)	5 (6.3)	1 (1.3)	5 (6.3)	3 (3.8)	79 (100.0)	
	40대	45 (35.2)	24 (18.8)	3 (2.3)	28 (21.9)	6 (4.7)	4 (3.1)	2 (1.6)	7 (5.5)	3 (2.3)	128 (100.0)	
	50대	61 (26.6)	30 (13.1)	16 (7.0)	76 (33.2)	7 (3.1)	15 (6.6)	2 (0.9)	9 (3.9)	10 (4.4)	229 (100.0)	
	60대	32 (23.7)	12 (8.9)	13 (9.6)	54 (40.0)	2 (1.5)	5 (3.7)	1 (0.7)	4 (3.0)	10 (7.4)	135 (100.0)	
	70대 이상	12 (24.0)	2 (4.0)	9 (18.0)	9 (18.0)	0 (0.0)	4 (8.0)	0 (0.0)	4 (8.0)	4 (8.0)	6 (12.0)	50 (100.0)
결혼여부	미혼	48 (33.8)	20 (14.1)	10 (7.0)	32 (22.5)	2 (1.4)	7 (4.9)	4 (2.8)	2 (1.4)	8 (5.6)	142 (100.0)	
	기혼	126 (25.4)	64 (12.9)	30 (6.0)	166 (33.5)	17 (3.4)	23 (4.6)	4 (0.8)	25 (5.0)	27 (5.4)	496 (100.0)	
	이혼	8 (34.8)	6 (26.1)	1 (4.3)	4 (17.4)	0 (0.0)	1 (4.3)	0 (0.0)	2 (8.7)	0 (0.0)	23 (100.0)	
	사별	13 (38.2)	2 (5.9)	7 (20.6)	6 (17.6)	0 (0.0)	2 (5.9)	1 (2.9)	2 (5.9)	1 (2.9)	34 (10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91 (28.6)	47 (14.8)	15 (4.7)	97 (30.5)	14 (4.4)	15 (4.7)	6 (1.9)	14 (4.4)	14 (4.4)	318 (100.0)	
	맞벌이 아님	76 (27.1)	35 (12.5)	22 (7.9)	81 (28.9)	4 (1.4)	14 (5.0)	3 (1.1)	12 (4.3)	19 (6.8)	280 (100.0)	
학력	중졸 이하	6 (25.0)	1 (4.2)	5 (20.8)	5 (20.8)	0 (0.0)	1 (4.2)	1 (4.2)	1 (4.2)	0 (0.0)	4 (16.7)	24 (100.0)
	고졸	62 (34.6)	21 (11.7)	14 (7.8)	49 (27.4)	3 (1.7)	13 (7.3)	1 (0.6)	4 (2.2)	9 (5.0)	3 (1.7)	179 (100.0)
	(전문) 대졸	102 (25.8)	59 (14.9)	22 (5.6)	127 (32.1)	16 (4.0)	15 (3.8)	3 (0.8)	20 (5.1)	18 (4.5)	14 (3.5)	396 (100.0)
	대학원	21	11	7	20	0	4	2	5	5	3	78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총계
가족 구성원 수	졸	(26.9)	(14.1)	(9.0)	(25.6)	(0.0)	(5.1)	(2.6)	(6.4)	(6.4)	(3.8)	(100.0)
	1명 (본인)	17 (24.3)	11 (15.7)	6 (8.6)	19 (27.1)	0 (0.0)	8 (11.4)	0 (0.0)	2 (2.9)	1 (1.4)	6 (8.6)	70 (100.0)
	2명	38 (25.0)	17 (11.2)	11 (7.2)	48 (31.6)	1 (0.7)	9 (5.9)	1 (0.7)	12 (7.9)	10 (6.6)	5 (3.3)	152 (100.0)
	3명	39 (26.4)	17 (11.5)	16 (10.8)	43 (29.1)	4 (2.7)	8 (5.4)	4 (2.7)	6 (4.1)	5 (3.4)	6 (4.1)	148 (100.0)
	4명	73 (32.0)	37 (16.2)	12 (5.3)	65 (28.5)	8 (3.5)	5 (2.2)	1 (0.4)	7 (3.1)	16 (7.0)	4 (1.8)	228 (100.0)
	5명 이상	31 (29.5)	11 (10.5)	4 (3.8)	35 (33.5)	6 (5.7)	4 (3.8)	3 (2.9)	4 (3.8)	4 (3.8)	3 (2.9)	105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10 (19.6)	6 (11.8)	1 (2.0)	23 (45.1)	2 (3.9)	2 (3.9)	1 (2.0)	0 (0.0)	4 (7.8)	2 (3.9)	51 (100.0)
	도두동	15 (29.4)	6 (11.8)	5 (9.8)	9 (17.6)	1 (2.0)	4 (7.8)	0 (0.0)	2 (3.9)	6 (11.8)	3 (5.9)	51 (100.0)
	봉개동	17 (30.9)	6 (10.9)	2 (3.6)	22 (40.0)	2 (3.6)	1 (1.8)	0 (0.0)	1 (1.8)	4 (7.3)	0 (0.0)	55 (100.0)
	삼양동	18 (31.6)	8 (14.0)	2 (3.5)	17 (29.8)	0 (0.0)	1 (1.8)	0 (0.0)	5 (8.8)	4 (7.0)	2 (3.5)	57 (100.0)
	애월읍	10 (20.8)	6 (12.5)	2 (4.2)	17 (35.4)	2 (4.2)	4 (8.3)	0 (0.0)	2 (4.2)	5 (10.4)	0 (0.0)	48 (100.0)
	일도2동	14 (26.4)	5 (9.4)	5 (9.4)	14 (26.4)	3 (5.7)	3 (5.7)	3 (5.7)	3 (5.7)	1 (1.9)	2 (3.8)	53 (100.0)
	연동	17 (33.3)	3 (5.9)	3 (5.9)	16 (31.4)	1 (2.0)	2 (3.9)	2 (3.9)	3 (5.9)	3 (5.9)	1 (2.0)	51 (100.0)
	외도동	17 (24.3)	17 (24.3)	1 (1.4)	14 (20.0)	0 (0.0)	6 (8.6)	1 (1.4)	5 (7.1)	3 (4.3)	6 (8.6)	70 (100.0)
	이도2동	24 (36.4)	11 (16.7)	6 (9.1)	17 (25.8)	1 (1.5)	3 (4.5)	0 (0.0)	1 (1.5)	1 (1.5)	2 (3.0)	66 (100.0)
	오라동	17 (32.1)	6 (11.3)	2 (3.8)	22 (41.5)	1 (1.9)	0 (0.0)	1 (1.9)	2 (3.8)	2 (3.8)	0 (0.0)	53 (100.0)
	아라동	22 (26.8)	10 (12.2)	8 (9.8)	25 (30.5)	3 (3.7)	3 (3.7)	0 (0.0)	4 (4.9)	2 (2.4)	5 (6.1)	82 (100.0)
	화북동	17 (26.6)	9 (14.1)	12 (18.8)	12 (18.8)	3 (4.7)	5 (7.8)	1 (1.6)	3 (4.7)	1 (1.6)	1 (1.6)	64 (100.0)

- ① 생계비 지원                      ② 주거비 지원                      ③ 의료비 지원                      ④ 일자리 지원  
 ⑤ 교육비 지원                      ⑥ 냉난방비 지원                      ⑦ 통신비 지원                      ⑧ 부채 상환 지원  
 ⑨ 돌봄 비용 지원                      ⑩ 기타

## 마. 보호 및 안전

### 1) 안전 유지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

“안전 유지 문제로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표Ⅳ-27>과 같음.

분석 결과를 보면,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보행 시 불편(안전하지 않은 보행로 등)(224명, 31.9%)가 높게 나타났고, 야간 귀가 불안(CCTV 및 가로등 부족 등)(208명, 29.6%)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IV-27> 안전 유지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  
(n=702)

구분	빈도(명)	비율(%)
① 가정폭력	30	2.7
② 자녀의 학교폭력	66	5.9
③ 보행 시 불안(과속/음주 운전 등)	180	16.0
④ 보행 시 불편(안전하지 않은 보행로 등)	224	19.9
⑤ 불법 촬영 불안(몰카 등)	51	4.5
⑥ 치안 불안(도둑, 강도 등)	83	7.4
⑦ 야간 귀가 불안(CCTV 및 가로등 부족 등)	208	18.5
⑧ 재난 시 대피 어려움(화재 시 거동 불편 등)	75	6.7
⑨ 기타	9	0.8
⑩ 해당 없음	200	17.8
전체	1,126	100.0

\*다중응답

## 2)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IV-28>과 같음.

폭력예방교육 강화는 필요하다(398명, 57.7%), 매우 필요하다(125명, 18.1%)순으로, 위험 지역 순찰 강화는 필요하다(400명, 28.5%), 매우 필요하다(198명, 28.5%)순으로, 보행로 개선은 필요하다(402명, 58.0%), 매우 필요하다(167명, 24.1%)순으로, 비상벨, CCTV 확충은 필요하다(392명, 56.3%), 매우 필요하다(196명, 28.2%)순으로, 가로등 확충은 필요하다(377명, 54.3%), 매우 필요하다(182명, 26.2%)순으로, 소화전 등 소방기기 확충은 필요하다(421명, 61.1%), 매우 필요하다(134명, 19.4%)순으로, 재난대피 훈련 강화는 필요하다(433명, 62.7%), 매우 필요하다(135명, 19.5%)순으로, 안전예방/도움 관련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458명, 66.3%), 매우 필요하다(130명, 18.8%)순으로, 불법 촬영 단속은 필요하다(384명, 56.5%), 매우 필요하다(176명, 25.9%)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28>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총계	평균
① 폭력예방교육 강화	25 (3.6)	142 (20.6)	398 (57.7)	125 (18.1)	690 (100.0)	2.90

구분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총계	평균
② 위험 지역 순찰 강화	17 (2.4)	79 (11.4)	400 (28.5)	198 (28.5)	694 (100.0)	3.12
③ 보행로 개선	21 (3.0)	103 (14.9)	402 (58.0)	167 (24.1)	693 (100.0)	3.03
④ 비상벨, CCTV 확충	17 (2.4)	91 (13.1)	392 (56.3)	196 (28.2)	696 (100.0)	3.10
⑤ 가로등 확충	21 (3.0)	114 (16.4)	377 (54.3)	182 (26.2)	694 (100.0)	3.04
⑥ 소화전 등 소방기기 확충	18 (2.6)	116 (16.8)	421 (61.1)	134 (19.4)	689 (100.0)	2.97
⑦ 재난대피 훈련 강화	20 (2.9)	103 (14.9)	433 (62.7)	135 (19.5)	691 (100.0)	2.99
⑧ 안전예방/도움 관련 정보 제공	18 (2.6)	85 (12.3)	458 (66.3)	130 (18.8)	691 (100.0)	3.01
⑨ 불법 촬영 단속	20 (2.9)	100 (14.7)	384 (56.5)	176 (25.9)	680 (100.0)	3.05
⑩ 기타	19 (24.7)	10 (13.0)	30 (39.0)	18 (23.4)	77 (100.0)	2.61

## 2-1) 현재 거주지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표기해 주십시오”에 대한 현재 거주지별 분석 결과는 <표Ⅳ-29>와 같음.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폭력 예방 교육 강화(3.14), 불법 촬영 단속(3.27) 총 2개 항목에서, 애월읍은 비상벨, CCTV 확충(3.25), 소화전 등 소방기기 확충(3.17), 재난대피 훈련 강화(3.17) 총 3개 항목에서, 일도2동은 위험 지역 순찰 강화(3.31), 소화전 등 소방기기 확충(3.17), 안전예방/도움 관련 정보 제공(3.12) 총 3개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오라동은 보행로 개선(3.32), 가로등 확충(3.25) 총 2개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도두동, 봉개동, 삼양동, 연동, 외도동, 이도2동, 아라동, 화북동은 타 동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Ⅳ-29> 현재 거주지별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현재 거주지	노형동	50 (3.14)	50 (3.26)	50 (3.28)	49 (3.22)	49 (3.16)	49 (3.06)	50 (3.06)	49 (3.08)	49 (3.27)	2 (3.50)
	도두동	50 (2.58)	51 (2.78)	50 (2.58)	51 (2.88)	50 (2.54)	50 (2.54)	49 (2.67)	50(2.68)	51 (2.69)	3 (3.00)
	봉개동	56 (3.00)	56 (3.23)	56 (3.21)	56 (3.29)	55 (3.18)	54 (3.04)	55 (3.04)	56 (3.04)	56 (3.14)	10 (2.40)
	삼양동	54 (2.91)	55 (3.09)	56 (2.91)	56 (3.06)	56 (2.88)	55 (2.93)	55 (3.04)	56 (3.02)	55 (3.04)	5 (2.40)
	애월읍	47 (2.94)	46 (3.22)	47 (3.06)	48 (3.25)	47 (3.19)	46 (3.17)	47 (3.17)	46 (3.02)	46 (3.09)	13 (2.31)
	일도2동	52 (3.10)	52 (3.31)	52 (3.08)	51 (3.18)	52 (3.19)	52 (3.17)	52 (3.06)	51 (3.12)	50 (3.10)	17 (2.65)
	연동	49	48	48	48	50	48	50	49	47	13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12)	(3.29)	(3.25)	(3.21)	(3.06)	(3.04)	(3.02)	(3.14)	(3.17)	(2.69)
외도동	70 (2.84)	71 (3.08)	72 (3.00)	71 (3.00)	72 (3.04)	71 (2.99)	71 (2.96)	71 (3.03)	68 (3.00)	11 (2.91)
이도2동	65 (2.75)	67 (2.93)	64 (2.81)	66 (2.89)	66 (2.85)	66 (2.95)	65 (3.00)	66 (3.06)	64 (2.98)	3 (2.33)
오라동	53 (2.77)	53 (3.08)	53 (3.32)	53 (3.23)	53 (3.25)	53 (2.96)	53 (2.94)	53 (2.96)	52 (3.13)	0 (0.0)
아라동	79 (2.85)	80 (3.10)	80 (2.96)	82 (3.10)	80 (3.13)	80 (2.93)	79 (2.89)	79 (2.96)	78 (2.97)	0 (0.0)
화북동	63 (2.92)	63 (3.17)	63 (2.98)	63 (3.03)	62 (2.98)	63 (2.94)	63 (3.05)	63 (3.03)	62 (3.11)	0 (0.0)
전체	688 (2.90)	692 (3.12)	691 (3.03)	694 (3.10)	692 (3.04)	687 (2.97)	689 (2.99)	689 (3.01)	678 (3.05)	77 (2.61)
	F=2.824**	F=2.729**	F=5.036***	F=2.187*	F=4.115***	F=2.922**	F=1.687	F=1.708	F=2.109*	F=.509

- ① 폭력예방교육 강화      ② 위험 지역 순찰 강화      ③ 보행로 개선      ④ 비상벨, CCTV 개선  
 ⑤ 가로등 확충      ⑥ 소화전 등 소방기기 확충      ⑦ 재난대피 훈련 강화      ⑧ 안전예방/도움 관련 정보제공  
 ⑨ 불법 촬영 단속      ⑩ 기타

### 3) 우리 동네에 주민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우리 동네에 주민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IV-30>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비상벨, CCTV 218명(31.5%), 안전 보행로 170명(24.6%)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비상벨, CCTV(147명, 31.9%), 안전 보행로(113명, 24.5%)순으로, 남성은 비상벨, CCTV(71명, 31.0%), 안전 보행로(56명, 24.5%)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비상벨, CCTV(25명, 34.7%), 치안센터(16명, 22.2%)순으로, 30대는 비상벨, CCTV(22명, 27.2%), 치안센터(21명, 25.9%), 안전 보행로(21명, 25.9%)순으로, 40대는 비상벨, CCTV(42명, 33.9%), 안전 보행로(35명, 28.2%)순으로, 50대는 비상벨, CCTV(71명, 31.0%), 안전 보행로(63명, 27.5%)순으로, 60대는 비상벨, CCTV(41명, 31.5%), 안전 보행로(28명, 21.5%)순으로, 70대 이상은 비상벨, CCTV(15명, 31.3%), 가로등(11명, 22.9%), 안전 보행로(11명, 22.9%)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비상벨, CCTV(45명, 32.4%), 치안센터(32명, 23.0%)순으로, 기혼은 비상벨, CCTV(155명, 31.6%), 안전 보행로(123명, 25.1%)순으로, 이혼은 비상벨, CCTV(10명, 43.5%), 안전 보행로(6명, 26.1%)순으로, 사별은 안전 보행로(11명, 32.4%), 비상벨, CCTV(8명, 23.5%), 치안센터(8명, 23.5%)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비상벨, CCTV(100명, 31.7%), 안전 보행로(89명, 28.3%)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비상벨, CCTV(85명, 30.8%), 치안센터(58명, 21.0%), 안전 보행로(58명, 21.0%)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비상벨, CCTV(9명, 37.5%), 치안센터(4명, 16.7%), 가로등(4명, 16.7%), 안전 보행로(4명, 16.7%)순으로, 고졸은 비상벨, CCTV(55명, 32.4%), 안전 보행로(41명, 24.1%)순으로, (전문)대졸은 비상벨, CCTV(127명, 31.9%), 안전 보행로(101명, 25.4%)순으로, 대학원 졸은 치안센터(22명, 29.3%), 안전 보행로(18명, 24.0%)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비상벨, CCTV(18명, 25.7%), 안전 보행로(17명, 24.3%)순으로, 2명은 비상벨, CCTV(48명, 31.6%), 치안센터(34명, 22.4%)순으로, 3명은 비상벨, CCTV(45명, 31.7%), 안전 보행로(42명, 29.6%)순으로, 4명은 비상벨, CCTV(70명, 31.0%), 치안센터(62명, 27.4%)순으로, 5명 이상은 비상벨, CCTV(37명, 36.3%), 안전 보행로(25명, 24.5%)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비상벨, CCTV(13명, 26.0%), 치안센터(13명, 26.0%), 안전 보행로(13명, 26.0%), 가로등(7명, 14.0%)순으로, 도두동은 비상벨, CCTV(23명, 45.1%), 안전 보행로(11명, 21.6%)순으로, 봉개동은 비상벨, CCTV(20명, 36.4%), 치안센터(15명, 27.3%)순으로, 삼양동은 비상벨, CCTV(22명, 36.4%), 치안센터(12명, 20.3%)순으로, 애월읍은 비상벨, CCTV(13명, 28.3%), 가로등(14명, 30.4%)순으로, 일도2동은 비상벨, CCTV(14명, 29.2%), 안전 보행로(13명, 27.1%)순으로, 연동은 비상벨, CCTV(16명, 32.7%), 안전 보행로(12명, 24.5%)순으로, 위도동은 비상벨, CCTV(23명, 32.4%), 치안센터(19명, 26.8%)순으로, 이도2동은 안전 보행로(21명, 32.8%), 치안센터(17명, 26.6%)순으로, 오라동은 안전 보행로(25명, 46.3%), 비상벨, CCTV(15명, 27.8%)순으로, 아라동은 비상벨, CCTV(30명, 37.0%), 치안센터(23명, 28.4%)순으로, 화북동은 비상벨, CCTV(18명, 29.0%), 치안센터(14명, 22.6%), 안전 보행로(14명, 22.6%)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0> 우리 동네에 주민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총계
전체	218 (31.5)	149 (21.5)	115 (16.6)	170 (24.6)	21 (3.0)	19 (2.7)	692 (100.0)
성별	여성	147 (31.9)	98 (21.3)	78 (16.9)	113 (24.5)	10 (2.2)	461 (100.0)
	남성	71 (31.0)	50 (21.8)	37 (16.2)	56 (24.5)	11 (4.8)	229 (100.0)
연령대	20대	25 (34.7)	16 (22.2)	12 (16.7)	10 (13.9)	5 (6.9)	72 (100.0)
	30대	22 (27.2)	21 (25.9)	15 (18.5)	21 (25.9)	2 (2.5)	81 (100.0)
	40대	42 (33.9)	25 (20.2)	17 (13.7)	35 (28.2)	3 (2.4)	124 (100.0)
	50대	71 (31.0)	51 (22.3)	34 (14.8)	63 (27.5)	5 (2.2)	229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총계
	60대	41 (31.5)	26 (20.0)	24 (18.5)	28 (21.5)	4 (3.1)	7 (5.4)	130 (100.0)
	70대 이상	15 (31.3)	8 (16.7)	11 (22.9)	11 (22.9)	2 (4.2)	1 (2.1)	48 (100.0)
결혼여부	미혼	45 (32.4)	32 (23.0)	23 (16.5)	28 (20.1)	7 (5.0)	4 (2.9)	139 (100.0)
	기혼	155 (31.6)	102 (20.8)	83 (16.9)	123 (25.1)	14 (2.9)	13 (2.7)	490 (100.0)
	이혼	10 (43.5)	5 (21.7)	2 (8.7)	6 (26.1)	0 (0.0)	0 (0.0)	23 (100.0)
	사별	8 (23.5)	8 (23.5)	5 (14.7)	11 (32.4)	0 (0.0)	2 (5.9)	34 (100.0)
	기타	0 (0.0)	0 (0.0)	0 (0.0)	1 (10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100 (31.7)	68 (21.6)	46 (14.6)	89 (28.3)	6 (1.9)	6 (1.9)
	맞벌이 아님	85 (30.8)	58 (21.0)	51 (18.5)	58 (21.0)	13 (4.7)	11 (4.0)	276 (100.0)
학력	중졸 이하	9 (37.5)	4 (16.7)	4 (16.7)	4 (16.7)	2 (8.3)	1 (4.2)	24 (100.0)
	고졸	55 (32.4)	34 (20.0)	27 (15.9)	41 (24.1)	6 (3.5)	7 (4.1)	170 (100.0)
	(전문) 대졸	127 (31.9)	86 (21.6)	67 (16.8)	101 (25.4)	10 (2.5)	7 (1.8)	398 (100.0)
	대학원	17 (22.7)	22 (29.3)	14 (18.7)	18 (24.0)	2 (2.7)	2 (2.7)	75 (100.0)
가족구성원수	1명 (본인)	18 (25.7)	13 (18.6)	15 (21.4)	17 (24.3)	4 (5.7)	3 (4.3)	70 (100.0)
	2명	48 (31.6)	34 (22.4)	32 (21.1)	28 (18.4)	4 (2.6)	6 (3.9)	152 (100.0)
	3명	45 (31.7)	27 (19.0)	22 (15.5)	42 (29.6)	3 (2.1)	3 (2.1)	142 (100.0)
	4명	70 (31.0)	62 (27.4)	28 (12.4)	58 (25.7)	4 (1.8)	4 (1.8)	226 (100.0)
	5명 이상	37 (36.3)	13 (12.7)	18 (17.6)	25 (24.5)	6 (5.9)	3 (2.9)	102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13 (26.0)	13 (26.0)	7 (14.0)	13 (26.0)	2 (4.0)	2 (4.0)	50 (100.0)
	도두동	23 (45.1)	8 (15.7)	8 (15.7)	11 (21.6)	0 (0.0)	1 (2.0)	51 (100.0)
	봉개동	20 (36.4)	15 (27.3)	2 (3.6)	13 (23.6)	3 (5.5)	2 (3.6)	55 (100.0)
	삼양동	22 (37.3)	12 (20.3)	9 (15.3)	10 (16.9)	3 (5.1)	3 (5.1)	59 (100.0)
	애월읍	13 (28.3)	6 (13.0)	14 (30.4)	11 (23.9)	0 (0.0)	2 (4.3)	46 (100.0)
	일도2동	14 (29.2)	8 (16.7)	8 (16.7)	13 (27.1)	1 (2.1)	4 (4.3)	48 (100.0)
	연동	16 (32.7)	10 (20.4)	7 (14.3)	12 (24.5)	2 (4.1)	2 (4.1)	49 (100.0)
	외도동	23 (32.4)	19 (26.8)	9 (12.7)	18 (25.4)	1 (1.4)	1 (1.4)	71 (100.0)
	이도2동	10 (15.6)	17 (26.6)	14 (21.9)	21 (32.8)	2 (3.1)	0 (0.0)	64 (100.0)
	오라동	15 (27.8)	4 (7.4)	6 (11.1)	25 (46.3)	4 (7.4)	0 (0.0)	54 (100.0)
	아라동	30 (37.0)	23 (28.4)	18 (22.2)	8 (9.9)	1 (1.2)	1 (1.2)	81 (100.0)
	화북동	18	14	13	14	2	1	62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총계
	(29.0)	(22.6)	(21.0)	(22.6)	(3.2)	(1.6)	(100.0)
① 비상벨, CCTV	② 치안센터	③ 가로등		④ 안전 보행로			
⑤ 소화전 등 소방기기	⑥ 기타						

## 바. 교육

### 1)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로 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표Ⅳ-31>과 같음.

분석 결과를 보면, 해당 없음을 제외하고 교육비 부족(사교육비 증가 등)(245명, 35.2%)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의 어려움(교우관계 어려움 등)(208명, 29.6%)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Ⅳ-31>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  
(n=696)

구분	빈도(명)	비율(%)
① 교육비 부족(사교육비 증가 등)	245	24.6
② 학업유지 어려움(학업 흥미 상실 등)	156	15.7
③ 기초학습능력 부족(읽기, 쓰기, 말하기 등)	77	7.7
④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교우관계 어려움 등)	172	17.3
⑤ 기타	20	2.0
⑥ 해당 없음	326	32.7
전체	996	100.0

\*다중응답

### 2)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32>와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 212명(31.7%),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 164명(24.5%)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41명, 31.8%),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17명, 26.4%)순으로, 남성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71명, 31.8%),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47명, 21.1%)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21명, 30.0%), 교육비 지원(교재 구입비 등)(19명, 27.1%)순으로, 30대는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24명, 31.6%), 문화예술교육 지원(음악, 미술, 체육 등)(21명, 27.6%)순으로, 40대는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41명, 34.2%), 교육비 지원(교재 구입비 등)(26명, 21.7%)순으로, 50대는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69명, 30.9%),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60명, 26.9%)순으로, 60대는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43명, 33.9%),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37명, 29.1%)순으로, 70대 이상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3명, 28.3%),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0명, 21.7%)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로 살펴보면, 미혼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39명, 29.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30명, 22.4%)순으로, 기혼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53명, 32.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20명, 25.2%)순으로, 이혼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7명, 35.0%), 교육비 지원(교재 구입비 등)(3명, 15.0%),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3명, 15.0%), 문화예술교육 지원(음악, 미술, 체육 등)(3명, 15.0%)순으로, 사별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1명, 33.3%),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0명, 21.7%)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01명, 32.8%),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71명, 23.1%)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85명, 32.0%),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60명, 22.6%)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8명, 38.1%), 교육비 지원(교재 구입비 등)(4명, 19.0%), 기타(4명, 19.0%)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 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9명, 29.2%),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6명, 24.6%)순으로, 2명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42명, 29.0%),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37명, 25.5%)순으로, 3명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52명, 36.6%),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31명, 21.8%)순으로, 4명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72명, 33.2%),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55명, 25.3%)순으로, 5명 이상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30명, 30.0%),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22명, 22.0%)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21명, 41.2%),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4명, 27.5%)순으로, 도두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7명, 32.1%), 교육비 지원(교재 구입비 등)(11명, 22.9%)순으로, 봉개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7명, 32.1%), 문화예술교육 지원(음악, 미술, 체육 등)(13명, 24.5%)순으로, 삼양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7명, 30.9%),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2명, 21.8%)순으로, 애월읍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6명, 35.6%),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2명, 21.8%)순으로, 일도2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6명, 32.7%), 교육비 지원(교재 구입비 등)(13명, 26.5%)순으로, 연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5명, 31.9%),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1명, 23.4%)순으로, 외도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20명, 29.0%),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9명, 27.5%)순으로, 이도2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20명, 32.8%),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8명, 29.5%)순으로, 오라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5명, 30.6%),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11명, 22.4%)순으로, 아라동은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20명, 25.6%),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20명, 25.6%), 교육비 지원(교재 구입비 등)(15명, 19.2%)순으로, 화북동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20명, 32.3%),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18명, 29.0%)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Ⅳ-32>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총계	
전체	212 (31.7)	49 (7.3)	109 (16.3)	164 (24.5)	100 (14.9)	35 (5.2)	669 (100.0)	
성별	여성	141 (31.8)	31 (7.0)	64 (14.4)	117 (26.4)	66 (14.9)	25 (5.6)	444 (100.0)
	남성	71 (31.8)	17 (7.6)	45 (20.2)	47 (21.1)	33 (14.8)	10 (4.5)	223 (100.0)
연령대	20대	21 (30.0)	6 (8.6)	19 (27.1)	13 (18.6)	9 (12.9)	2 (2.9)	70 (100.0)
	30대	24 (31.6)	2 (2.6)	13 (17.1)	14 (18.4)	21 (27.6)	2 (2.6)	76 (100.0)
	40대	41 (34.2)	7 (5.8)	26 (21.7)	25 (20.8)	18 (15.0)	3 (2.5)	120 (100.0)
	50대	69 (30.9)	17 (7.6)	26 (11.7)	60 (26.9)	38 (17.0)	13 (5.6)	223 (100.0)
	60대	43 (33.9)	11 (8.7)	18 (14.2)	37 (29.1)	11 (8.7)	7 (5.5)	127 (100.0)
	70대 이상	13 (28.3)	6 (13.0)	6 (13.0)	10 (21.7)	3 (6.5)	8 (17.4)	46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총계
결혼여부	미혼	39 (29.1)	9 (6.7)	26 (19.4)	30 (22.4)	24 (17.9)	6 (4.5)	134 (100.0)
	기혼	153 (32.1)	34 (7.1)	76 (16.0)	120 (25.2)	67 (14.1)	26 (5.5)	476 (100.0)
	이혼	7 (35.0)	2 (10.0)	3 (15.0)	3 (15.0)	3 (15.0)	2 (10.0)	20 (100.0)
	사별	11 (33.3)	3 (9.1)	4 (12.1)	9 (27.3)	5 (15.2)	1 (3.0)	33 (10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1 (10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101 (32.8)	21 (6.8)	50 (16.2)	71 (23.1)	49 (15.9)	16 (5.2)	308 (100.0)
	맞벌이아님	85 (32.0)	22 (8.3)	47 (17.7)	60 (22.6)	36 (13.5)	16 (6.0)	266 (100.0)
학력	중졸이하	8 (38.1)	2 (9.5)	4 (19.0)	2 (9.5)	1 (4.8)	4 (19.0)	21 (100.0)
	고졸	52 (30.1)	15 (8.7)	22 (12.7)	42 (24.3)	30 (17.3)	12 (6.9)	173 (100.0)
	(전문)대졸	130 (34.5)	27 (7.2)	65 (17.2)	90 (100.0)	47 (12.5)	18 (4.8)	377 (100.0)
	대학원졸	18 (24.3)	4 (5.4)	15 (20.3)	18 (24.3)	19 (25.7)	0 (0.0)	74 (100.0)
가족구성원수	1명(본인)	16 (24.6)	2 (3.1)	10 (15.4)	19 (29.2)	13 (20.0)	5 (7.7)	65 (100.0)
	2명	42 (29.0)	18 (12.4)	20 (13.8)	37 (25.5)	14 (9.7)	14 (9.7)	145 (100.0)
	3명	52 (36.6)	6 (4.2)	25 (17.6)	31 (21.8)	19 (13.4)	9 (6.3)	142 (100.0)
	4명	72 (33.2)	14 (6.5)	34 (15.7)	55 (25.3)	36 (16.6)	6 (2.8)	217 (100.0)
	5명이상	30 (30.0)	9 (9.0)	20 (20.0)	22 (22.0)	18 (18.0)	1 (1.0)	100 (100.0)
현재거주지	노형동	21 (41.2)	3 (5.9)	6 (11.8)	14 (27.5)	5 (9.8)	2 (3.9)	51 (100.0)
	도두동	17 (35.4)	2 (4.2)	11 (22.9)	10 (20.8)	3 (6.3)	5 (10.4)	48 (100.0)
	봉개동	17 (32.1)	5 (9.4)	9 (17.0)	9 (17.0)	13 (24.5)	0 (0.0)	53 (100.0)
	삼양동	17 (30.9)	5 (9.1)	7 (12.7)	12 (21.8)	8 (14.5)	6 (10.9)	55 (100.0)
	애월읍	16 (35.6)	3 (6.7)	7 (15.6)	10 (22.2)	5 (11.1)	4 (8.9)	45 (100.0)
	일도2동	16 (32.7)	2 (4.1)	13 (26.5)	9 (18.4)	6 (12.2)	3 (6.1)	49 (100.0)
	연동	15 (31.9)	5 (10.6)	9 (19.1)	11 (23.4)	6 (12.8)	1 (2.1)	47 (100.0)
	외도동	20 (29.0)	3 (4.3)	9 (13.0)	19 (27.5)	13 (18.8)	5 (7.2)	69 (100.0)
	이도2동	20 (32.8)	6 (9.8)	8 (13.1)	18 (29.5)	8 (13.1)	1 (1.6)	61 (100.0)
	오라동	15 (30.6)	6 (12.2)	10 (20.4)	11 (22.4)	7 (14.3)	0 (0.0)	49 (100.0)
	아라동	20 (25.6)	6 (7.7)	15 (19.2)	20 (25.6)	10 (12.8)	7 (9.0)	78 (100.0)
	화북동	18 (29.0)	3 (4.8)	5 (8.1)	20 (32.3)	15 (24.2)	1 (1.6)	62 (100.0)

①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 ② EBS교육자료 활용 학습 강화 ③ 교육비 지원(교재 구입비 등)  
 ④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상담 등)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음악, 미술, 체육 등) ⑥ 기타

### 3) 현재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현재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33>과 같음.

야간, 주말 등 교육 시간 다양화는 필요하다(411명, 60.1%), 매우 필요하다(132명, 19.3%)순으로, 교육기관 접근성 강화(마을회관, 주민센터 등)는 필요하다(427명, 62.5%), 매우 필요하다(144명, 21.1%)순으로, 무료교육 확대는 필요하다(432명, 63.1%), 매우 필요하다(170명, 24.8%)순으로, 취업 연계 교육 확대는 필요하다(416명, 60.7%), 매우 필요하다(203명, 29.6%)순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필요하다(429명, 62.7%), 매우 필요하다(193명, 28.2%)순으로, 주민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415명, 61.1%), 매우 필요하다(148명, 21.8%)순으로, 주민교육센터 확충은 필요하다(421명, 61.8%), 매우 필요하다(149명, 21.9%)순으로, 교육기관 내 돌봄시설 설치(영유아, 어르신 등)는 필요하다(425명, 62.4%), 매우 필요하다(176명, 25.8%)순으로, 교육 정보 제공 강화는 필요하다(444명, 65.2%), 매우 필요하다(155명, 22.8%), 교육(시설) 환경 개선은 필요하다(429명, 63.7%), 매우 필요하다(169명, 25.1%)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Ⅳ-33> 현재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총계	평균
① 야간, 주말 등 교육 시간 다양화	23 (3.4)	118 (17.3)	411 (60.1)	132 (19.3)	684 (100.0)	2.95
② 교육기관 접근성 강화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13 (1.9)	99 (14.5)	427 (62.5)	144 (21.1)	683 (100.0)	3.03
③ 무료교육 확대	13 (1.9)	70 (10.2)	432 (63.1)	170 (24.8)	685 (100.0)	3.11
④ 취업 연계 교육 확대	10 (1.5)	56 (8.2)	416 (60.7)	203 (29.6)	685 (100.0)	3.19
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9 (1.3)	53 (7.7)	429 (62.7)	193 (28.2)	684 (100.0)	3.18
⑥ 주민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12 (1.8)	104 (15.3)	415 (61.1)	148 (21.8)	679 (100.0)	3.03
⑦ 주민교육센터 확충	11 (1.6)	100 (14.7)	421 (61.8)	149 (21.9)	681 (100.0)	3.04
⑧ 교육기관 내 돌봄시설 설치 (영유아, 어르신 등)	11 (1.6)	69 (10.1)	425 (62.4)	176 (25.8)	681 (100.0)	3.12
⑨ 교육 정보 제공 강화	11 (1.6)	71 (10.4)	444 (65.2)	155 (22.8)	681 (100.0)	3.09
⑩ 교육(시설) 환경 개선	14 (2.1)	61 (9.1)	429 (63.7)	169 (25.1)	673 (100.0)	3.12
⑪ 기타	17 (30.4)	6 (10.7)	21 (37.5)	12 (21.4)	56 (100.0)	2.50

### 3-1) 현재 거주지별 현재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현재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현재 거주지별 분석 결과는 <표Ⅳ-34>와 같음.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야간, 주말 등 교육 시간 다양화(3.16), 교육기관 접근성 강화(마을회관, 주민센터 등)(3.24), 무료교육 확대(3.34), 취업 연계 교육 확대(3.34),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3.36), 주민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3.30), 주민교육센터 확충(3.29), 교육(시설) 환경 개선(3.28) 총 8개 항목에서, 일도2동은 교육 정보 제공(3.22) 총 1개 항목에서, 오라동은 교육기관 내 돌봄 시설 설치(영유아, 어르신)(3.29) 총 1개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도두동, 봉개동, 삼양동, 애월읍, 연동, 외도동, 이도2동, 아라동, 화북동은 타 동에 비해 낮게 나타남.

<표Ⅳ-34> 현재 거주지별 현재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명, 점)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현재 거주지	노형동	50 (3.16)	50 (3.24)	50 (3.34)	50 (3.34)	50 (3.36)	50 (3.30)	49 (3.29)	50 (3.26)	50 (3.20)	50 (3.28)	1 (4.00)
	도두동	48 (2.77)	49 (2.84)	49 (2.86)	49 (2.92)	48 (2.94)	47 (2.89)	48 (2.90)	49 (2.94)	47 (2.89)	49 (2.86)	2 (3.50)
	봉개동	55 (2.84)	55 (3.11)	55 (3.24)	55 (3.16)	55 (3.24)	55 (3.02)	55 (3.00)	55 (3.20)	54 (3.15)	53 (3.23)	7 (1.71)
	삼양동	55 (2.84)	55 (2.96)	55 (3.07)	55 (3.16)	56 (3.20)	55 (2.95)	54 (2.91)	55 (3.16)	56 (3.05)	55 (2.96)	7 (2.71)
	애월읍	47 (3.13)	46 (3.15)	47 (3.09)	48 (3.19)	47 (3.21)	46 (3.09)	47 (3.11)	47 (3.11)	46 (3.13)	45 (3.16)	8 (2.75)
	일도2동	52 (3.08)	51 (3.16)	51 (3.25)	51 (3.29)	51 (3.25)	51 (3.10)	51 (3.10)	49 (3.24)	51 (3.22)	49 (3.27)	9 (3.11)
	연동	47 (2.94)	47 (3.00)	47 (3.15)	47 (3.28)	47 (3.19)	47 (3.13)	47 (3.06)	47 (3.11)	46 (3.17)	46 (3.20)	7 (3.00)
	외도동	70 (2.86)	71 (3.00)	71 (3.08)	71 (3.18)	71 (3.07)	71 (2.96)	71 (2.92)	71 (2.97)	71 (2.97)	67 (3.01)	16 (2.00)
	이도2동	64 (2.80)	64 (2.92)	64 (2.97)	63 (3.10)	63 (3.06)	63 (2.94)	63 (3.00)	63 (3.05)	64 (3.03)	63 (3.05)	0 (0.0)
	오라동	51 (2.84)	51(2.96)	51 (3.16)	51 (3.24)	51 (3.22)	51 (3.02)	51 (3.12)	51 (3.29)	51 (3.12)	51 (3.22)	0 (0.0)
	아라동	81 (2.93)	80 (3.00)	81 (3.00)	82 (3.16)	82 (3.13)	80 (2.93)	81 (3.05)	81 (3.07)	81 (3.06)	81 (3.11)	0 (0.0)
	화북동	62 (3.03)	62 (3.05)	62 (3.16)	61 (3.25)	61 (3.31)	61 (3.15)	62 (3.08)	61 (3.16)	62 (3.16)	62 (3.16)	0 (0.0)
전체	682 (2.95)	681 (3.03)	683 (3.11)	683 (3.19)	682 (3.18)	677 (3.03)	679 (3.04)	679 (3.12)	679 (3.09)	671 (3.12)	57 (2.54)	
	F=2.168*	F=1.561	F=2.343**	F=1.522	F=1.930*	F=1.758	F=1.498	F=1.693	F=1.301	F=2.175*	F=2.155	

- ① 야간, 주말 등 교육 시간 다양화      ② 교육기관 접근성 강화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③ 무료교육 확대      ④ 취업 연계 교육 확대  
 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⑥ 주민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⑦ 주민교육센터 확충      ⑧ 교육기관 내 돌봄 시설 설치 (영유아, 어르신 등)  
 ⑨ 교육 정보 제공 강화      ⑩ 교육(시설) 환경 개선      ⑪ 기타

사. 주거

1) 현재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서 지난 1년간 겪은 어려움 빈도

“현재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서 지난 1년간(2023.6.1.~2024.5.31.) 다음의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IV-35>와 같음.

화장실 열악(변기, 세면대, 목욕시설 등)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485명, 71.2%), 연 1~2회(123명, 18.1%)순으로, 주방시설 열악(싱크대, 조리 및 환기시설 등)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477명, 69.8%), 연1~2회(118명, 17.3%)순으로, 위생 상태 열악(악취, 벌레 등)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417명, 61.1%), 연1~2회(161명, 23.6%)순으로, 도배/장판 열악(습기, 곰팡이 등)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410명, 59.9%), 연1~2회(165명, 24.1%)순으로, 층간방음 열악(이웃 간 층간 소음 등)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385명, 56.5%), 연1~2회(154명, 22.6%)순으로, 냉난방 시설 열악(보일러, 에어컨 등)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487명, 71.6%), 연1~2회(121명, 17.8%)순으로, 전기/가스 시설 열악(낡은 전기 설비, 노후 가스 배관 등)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507명, 74.2%), 연 1~2회(114명, 16.7%)순으로, 상하수도 시설 열악(상하수도 시설 노후 등)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499명, 73.3%), 연1~2회(120명, 17.6%)순으로, 지붕 노후(누수 등)는 전혀 경험하지 않음(511명, 74.8%), 연1~2회(116명, 17.0%)순으로, 벽/담 등 노후(균열 등)는 전혀 경험하지 않음(474명, 70.2%), 연1~2회(142명, 21.0%)순으로, 거주 공간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 어려움(단차, 돌출물, 모퉁이 등으로 인한 이동 어려움)은 전혀 경험하지 않음(486명, 72.3%), 연1~2회(113명, 16.8%)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IV-35> 현재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서 지난 1년간 겪은 어려움 빈도

(단위: 명, %, 점)

구분	① 전혀 경험 하지 않음	② 연 1~2 회	③ 월 1~2 회	④ 주 1~2 회	⑤ 매일	총계	평균
① 화장실 열악(변기, 세면대, 목욕시설 등)	485 (71.2)	123 (18.1)	42 (6.2)	18 (2.6)	13 (1.9)	681 (100.0)	1.46
② 주방시설 열악(싱크대, 조리 및 환기시설 등)	477 (69.8)	118 (17.3)	59 (8.6)	13 (1.9)	16 (2.3)	683 (100.0)	1.50
③ 위생 상태 열악(악취, 벌레 등)	417 (61.1)	161 (23.6)	59 (8.6)	28 (4.1)	18 (2.6)	683 (100.0)	1.64
④ 도배/장판 열악(습기, 곰팡이 등)	410 (59.9)	165 (24.1)	51 (7.4)	31 (4.5)	28 (4.1)	685 (100.0)	1.69
⑤ 층간방음 열악(이웃 간 층간 소음 등)	385 (56.5)	154 (22.6)	74 (10.9)	43 (6.3)	26 (3.8)	682 (100.0)	1.78
⑥ 냉난방 시설 열악(보일러, 에어컨 등)	487 (71.6)	121 (17.8)	41 (6.0)	17 (2.5)	14 (2.1)	680 (100.0)	1.46

구분	① 전혀 경험 하지 않음	② 연 1~2 회	③ 월 1~2 회	④ 주 1~2 회	⑤ 매일	총계	평균
⑦ 전기/가스 시설 열악 (낡은 전기 설비, 노후 가스 배관 등)	507 (74.2)	114 (16.7)	32 (4.7)	16 (2.3)	14 (2.0)	683 (100.0)	1.41
⑧ 상하수도 시설 열악(상하수도 시설 노후 등)	499 (73.3)	120 (17.6)	37 (5.4)	19 (2.8)	6 (0.9)	681 (100.0)	1.40
⑨ 지붕 노후(누수 등)	511 (74.8)	116 (17.0)	21 (3.1)	21 (3.1)	14 (2.0)	683 (100.0)	1.41
⑩ 벽/담 등 노후(균열 등)	474 (70.2)	142 (21.0)	25 (3.7)	18 (2.7)	16 (2.4)	675 (100.0)	1.46
⑪ 거주 공간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 어려움 (단차, 돌출물, 모퉁이 등으로 인한 이동 어려움)	486 (72.3)	113 (16.8)	38 (5.7)	19 (2.8)	16 (2.4)	672 (100.0)	1.46
⑫ 기타	18 (72.0)	4 (16.0)	1 (4.0)	0 (0.0)	2 (8.0)	25 (100.0)	1.56

## 2)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IV-36>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 271명(38.6%), 주거비 지원 146명(20.8%)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00명, 42.6%),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94명, 20.0%)순으로, 남성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70명, 30.4%),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59명, 25.7%)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6명, 35.6%),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22명, 30.1%)순으로, 30대는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30명, 37.5%),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5명, 31.3%)순으로, 40대는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46명, 36.2%),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31명, 24.4%)순으로, 50대는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03명, 44.6%),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50명, 21.6%)순으로, 60대는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55명, 41.0%),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28명, 20.9%)순으로, 70대 이상은 냉난방비 지원(16명, 32.7%),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1명, 22.4%),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11명, 22.4%)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로 살펴보면, 미혼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52명, 36.9%),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50명, 21.6%)순으로, 기혼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98명, 40.0%),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99명, 20.0%)순으로, 이혼은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8명, 36.4%),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6명, 27.3%)순으로, 사별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5명, 41.7%), 냉난방비 지원(11명, 30.6%)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33명, 41.6%),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66명,

20.6%)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99명, 35.9%),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57명, 20.7%)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냉난방비 지원(9명, 39.1%),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4명, 17.4%),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4명, 17.4%)순으로, 고졸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59명, 33.3%),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41명, 23.2%)순으로, (전문)대졸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67명, 41.9%),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80명, 20.1%)순으로, 대학원 졸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9명, 37.2%),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20명, 25.6%)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3명, 34.3%), 냉난방비 지원(15명, 22.4%)순으로, 2명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64명, 41.8%),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29명, 19.0%)순으로, 3명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51명, 34.9%),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39명, 26.7%)순으로, 4명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91명, 39.4%), 냉난방비 지원(46명, 19.9%)순으로, 5명 이상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42명, 40.0%),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24명, 22.9%)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30명, 57.7%), 냉난방비 지원(9명, 17.3%)순으로, 도두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6명, 32.0%), 냉난방비 지원(12명, 24.0%)순으로, 봉개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0명, 35.7%),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15명, 26.8%)순으로, 삼양동은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17명, 29.8%),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4명, 24.6%),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14명, 24.6%)순으로, 애월읍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2명, 44.9%),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14명, 28.6%)순으로, 일도2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7명, 33.3%),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15명, 29.4%)순으로, 연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17명, 33.3%),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13명, 26.0%)순으로, 외도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4명, 33.8%), 냉난방비 지원(19명, 26.8%)순으로, 이도2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6명, 39.4%),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16명, 24.2%)순으로, 오라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4명, 45.3%), 냉난방비 지원(13명, 24.5%)순으로, 아라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32명, 40.0%),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20명, 25.0%)순으로, 화북동은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25명, 38.5%),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19명, 29.2%)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6>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전체		140 (19.9)	128 (18.2)	146 (20.8)	271 (38.6)	17 (2.4)	702 (100.0)
성별	여성	81 (17.2)	79 (16.8)	94 (20.0)	200 (42.6)	16 (3.4)	470 (100.0)
	남성	59 (25.7)	49 (21.3)	51 (22.2)	70 (30.4)	1 (0.4)	230 (100.0)
연령대	20대	14 (19.2)	11 (15.1)	22 (30.1)	26 (35.6)	0 (0.0)	73 (100.0)
	30대	9 (11.3)	15 (18.8)	30 (37.5)	25 (31.3)	1 (1.3)	80 (100.0)
	40대	28 (22.0)	22 (17.3)	31 (24.4)	46 (36.2)	0 (0.0)	127 (100.0)
	50대	50 (21.6)	38 (16.5)	37 (16.0)	103 (44.6)	3 (1.3)	231 (100.0)
	60대	28 (20.9)	25 (18.7)	17 (12.7)	55 (41.0)	9 (6.7)	134 (100.0)
	70대 이상	11 (22.4)	16 (32.7)	7 (14.3)	11 (22.4)	4 (8.2)	49 (100.0)
결혼여부	미혼	30 (21.3)	17 (12.1)	41 (29.1)	52 (36.9)	1 (0.7)	141 (100.0)
	기혼	99 (20.0)	92 (18.6)	92 (18.6)	198 (40.0)	14 (2.8)	495 (100.0)
	이혼	6 (27.3)	5 (22.7)	8 (36.4)	3 (13.6)	0 (0.0)	22 (100.0)
	사별	4 (11.1)	11 (30.6)	4 (11.1)	15 (41.7)	2 (5.6)	36 (100.0)
	기타	0 (0.0)	1 (10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 유무	맞벌이	66 (20.6)	56 (17.5)	62 (19.4)	133 (41.6)	3 (0.9)	320 (100.0)
	맞벌이 아님	57 (20.7)	49 (17.8)	60 (21.7)	99 (35.9)	11 (4.0)	276 (100.0)
학력	중졸 이하	3 (13.0)	9 (39.1)	4 (17.4)	4 (17.4)	3 (13.0)	23 (100.0)
	고졸	41 (23.2)	37 (20.9)	37 (20.9)	59 (33.3)	3 (1.7)	177 (100.0)
	(전문) 대졸	73 (18.3)	72 (18.0)	80 (20.1)	167 (41.9)	7 (1.8)	399 (100.0)
	대학원 졸	17 (21.8)	10 (12.8)	20 (25.6)	29 (37.2)	2 (2.6)	78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본인)	12 (17.9)	15 (22.4)	13 (19.4)	23 (34.3)	4 (6.0)	67 (100.0)
	2명	29 (19.0)	24 (15.7)	33 (21.6)	64 (41.8)	3 (2.0)	153 (100.0)
	3명	33 (22.6)	19 (13.0)	39 (26.7)	51 (34.9)	4 (2.7)	146 (100.0)
	4명	44 (19.0)	46 (19.9)	45 (19.5)	91 (39.4)	5 (2.2)	231 (100.0)
	5명 이상	22 (21.0)	24 (22.9)	16 (15.2)	42 (40.0)	1 (1.0)	105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5 (9.6)	9 (17.3)	6 (11.5)	30 (57.7)	2 (3.8)	52 (100.0)
	도두동	9 (18.0)	12 (24.0)	8 (16.0)	16 (32.0)	5 (10.0)	50 (100.0)
	봉개동	15 (26.8)	7 (12.5)	14 (25.0)	20 (35.7)	0 (0.0)	56 (100.0)

구분	①	②	③	④	⑤	총계
삼양동	14 (24.6)	10 (17.5)	17 (29.8)	14 (24.6)	2 (3.5)	57 (100.0)
애월읍	14 (28.6)	9 (18.4)	3 (6.1)	22 (44.9)	1 (2.0)	49 (100.0)
일도2동	15 (29.4)	8 (15.7)	10 (19.6)	17 (33.3)	1 (2.0)	51 (100.0)
연동	13 (26.0)	4 (8.0)	10 (20.0)	20 (40.0)	3 (6.0)	50 (100.0)
외도동	12 (16.9)	19 (26.8)	15 (21.1)	24 (33.8)	1 (1.4)	71 (100.0)
이도2동	14 (21.2)	9 (13.6)	16 (24.2)	26 (39.4)	1 (1.5)	66 (100.0)
오라동	9 (17.0)	13 (24.5)	7 (13.2)	24 (45.3)	0 (0.0)	53 (100.0)
아라동	13 (16.3)	15 (18.8)	20 (25.0)	32 (40.0)	0 (0.0)	80 (100.0)
화북동	7 (10.8)	13 (20.0)	19 (29.2)	25 (38.5)	1 (1.5)	65 (100.0)

①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      ② 냉난방비 지원      ③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  
 ④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      ⑤ 기타

## 아. 문화/여가

### 1) 주로 참여하는 문화(여가)활동

“주로 어떤 유형의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는 <표IV-37>과 같음.

분석 결과를 보면, 옥내 취미활동(TV시청, 음악감상, 독서 등)(232명, 32.5%)가 높게 나타났고, 영화 관람(191명, 26.8%)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IV-37> 주로 참여하는 문화(여가)활동  
(n=713)

구분	빈도(명)	비율(%)
① 옥내 취미활동(TV시청, 음악감상, 독서 등)	232	17.9
② 영화 관람	191	14.8
③ 공연 관람	75	5.8
④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48	3.7
⑤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	127	9.8
⑥ 놀이공원 방문(체험 시설, 동물원 등)	46	3.6
⑦ 여행	109	8.4
⑧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	179	13.8
⑨ 스포츠 관람(축구, 야구, 농구 등)	60	4.6

구분	빈도(명)	비율(%)
⑩ 지역축제 참여(축제 관람 등)	85	6.6
⑪ 해당 없음	62	4.8
⑫ 온라인 활동(유튜브 등)	60	4.6
⑬ 기타	20	1.5
전체	1,294	100.0

\*다중응답

## 2)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유형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38>과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 179명(25.1%),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 101명(14.2%)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44명, 30.0%),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69명, 14.4%)순으로, 남성은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39명, 17.0%),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34명, 14.8%)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24명, 32.4%),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12명, 16.2%), 여행(12명, 16.2%)순으로, 30대는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22명, 27.5%), 여행(10명, 12.5%),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10명, 12.5%)순으로, 40대는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47명, 36.7%), 여행(14명, 10.9%)순으로, 50대는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54명, 22.6%),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48명, 20.1%)순으로, 60대는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28명, 20.6%),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23명, 16.9%),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23명, 16.9%)순으로, 70대 이상은 해당없음(9명, 19.1%),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8명, 17.0%),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8명, 17.0%)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로 살펴보면, 미혼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35명, 24.6%), 여행(21명, 14.8%)순으로, 기혼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30명, 25.8%),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69명, 13.7%)순으로, 사별은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10명, 27.8%),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8명, 22.2%)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93명, 28.7%),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42명, 13.0%)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63명, 22.5%),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40명, 14.3%)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해당 없음(7명, 31.8%), 옥내 취미활동(TV시청, 음악감상, 독서 등)(5명, 22.7%)순으로, 고졸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40명, 22.2%),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28명, 15.6%),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28명, 15.6%)순으로, (전문)대졸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16명, 28.6%),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56명, 13.8%)순으로, 대학원 졸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9명, 24.1%), 여행(16명, 20.3%)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 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14명, 20.0%),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3명, 18.6%)순으로, 2명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37명, 24.0%),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26명, 16.9%)순으로, 3명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45명, 30.4%),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20명, 13.5%)순으로, 4명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57명, 24.4%), 여행(38명, 16.2%)순으로, 5명 이상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27명, 25.5%),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18명, 17.0%)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8명, 33.3%),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8명, 14.8%)순으로, 놀이공원 방문(체험 시설, 동물원 등)(8명, 8.2%),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7명, 14.3%)순으로, 봉개동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6명, 28.6%),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10명, 17.9%)순으로, 삼양동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2명, 20.3%),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10명, 16.9%)순으로, 애월읍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5명, 30.0%),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9명, 18.0%)순으로, 일도2동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9명, 36.5%),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9명, 17.3%)순으로, 연동은 여행(10명, 19.6%),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8명, 15.7%)순으로, 외도동은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체육 등)(14명, 19.7%),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3명, 18.3%), 여행(13명, 18.3%)순으로, 이도2동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6명, 23.9%),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15명, 22.4%)순으로, 오라동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2명, 22.2%), 여행(10명, 18.5%)순으로, 아라동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28명, 34.6%),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12명, 14.8%)순으로, 화북동은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19명, 28.8%),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9명, 13.6%), 여행(9명, 13.6%)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8>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유형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총계	
전체	25 (3.5)	41 (5.8)	179 (25.1)	33 (4.6)	101 (14.2)	21 (2.9)	95 (13.3)	94 (13.2)	32 (4.5)	39 (5.5)	35 (4.9)	9 (1.3)	8 (1.1)	712 (100.0)	
성별	여성	20 (4.2)	27 (5.6)	144 (30.0)	20 (4.2)	69 (14.4)	14 (2.9)	61 (12.7)	55 (11.5)	15 (3.1)	24 (5.0)	21 (4.4)	5 (1.0)	5 (1.0)	480 (100.0)
	남성	4 (1.7)	14 (6.1)	34 (14.8)	13 (5.7)	32 (13.9)	7 (3.0)	34 (14.8)	39 (17.0)	17 (7.4)	15 (6.5)	14 (6.1)	4 (1.7)	3 (1.3)	230 (100.0)
연령대	20대	1 (1.4)	1 (1.4)	24 (32.4)	12 (16.2)	2 (2.7)	3 (4.1)	12 (16.2)	7 (9.5)	5 (6.8)	5 (6.8)	1 (1.4)	1 (1.4)	0 (0.0)	74 (100.0)
	30대	3 (3.8)	2 (2.5)	22 (27.5)	3 (3.8)	8 (10.0)	7 (8.8)	10 (12.5)	10 (12.5)	5 (6.3)	5 (6.3)	4 (5.0)	1 (1.3)	0 (0.0)	80 (100.0)
	40대	2 (1.6)	7 (5.5)	47 (36.7)	7 (5.5)	7 (5.5)	6 (4.7)	14 (10.9)	13 (10.2)	11 (8.6)	9 (7.0)	4 (3.1)	1 (0.8)	0 (0.0)	128 (100.0)
	50대	10 (4.2)	15 (6.3)	54 (22.6)	6 (2.5)	48 (20.1)	2 (0.8)	37 (15.5)	32 (13.4)	10 (4.2)	9 (3.8)	12 (5.0)	2 (0.8)	2 (0.8)	239 (100.0)
	60대	1 (0.7)	10 (7.4)	23 (16.9)	5 (3.7)	28 (20.6)	3 (2.2)	19 (14.0)	23 (16.9)	0 (0.0)	10 (7.4)	5 (3.7)	3 (2.2)	6 (4.4)	136 (100.0)
	70대 이상	7 (14.9)	4 (8.5)	8 (17.0)	0 (0.0)	5 (10.6)	0 (0.0)	3 (6.4)	8 (17.0)	1 (2.1)	1 (2.1)	9 (19.1)	1 (2.1)	0 (0.0)	47 (100.0)
결혼여부	미혼	4 (2.8)	5 (3.5)	35 (24.6)	14 (9.9)	16 (11.3)	2 (1.4)	21 (14.8)	17 (12.0)	12 (8.5)	10 (7.0)	3 (2.1)	3 (2.1)	0 (0.0)	142 (100.0)
	기혼	20 (4.0)	33 (6.5)	130 (25.8)	18 (3.6)	69 (13.7)	16 (3.2)	70 (13.9)	68 (13.5)	16 (3.2)	27 (5.4)	25 (5.0)	5 (1.0)	7 (1.4)	504 (100.0)
	이혼	0 (0.0)	0 (0.0)	8 (34.8)	1 (4.3)	3 (13.0)	3 (13.0)	3 (13.0)	1 (4.3)	2 (8.7)	1 (4.3)	1 (4.3)	0 (0.0)	0 (0.0)	23 (100.0)
	사별	1 (2.8)	3 (8.3)	5 (13.9)	0 (0.0)	10 (27.8)	0 (0.0)	1 (2.8)	8 (22.2)	2 (5.6)	0 (0.0)	5 (13.9)	0 (0.0)	1 (2.8)	36 (100.0)
	기타	0 (0.0)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유무	맞벌이	8 (2.5)	17 (5.2)	93 (28.7)	13 (4.0)	42 (13.0)	13 (4.0)	51 (15.7)	36 (11.1)	14 (4.3)	18 (5.6)	15 (4.6)	2 (0.6)	2 (0.6)	324 (100.0)
	맞벌이 아님	12 (4.3)	18 (6.4)	63 (22.5)	11 (3.9)	37 (13.2)	7 (2.5)	34 (12.1)	40 (14.3)	15 (5.4)	15 (5.4)	19 (6.8)	5 (1.8)	4 (1.4)	280 (100.0)
학력	중졸	5	0	2	0	1	0	4	2	0	1	7	0	0	22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총계	
이하	(22.7)	(0.0)	(9.1)	(0.0)	(4.5)	(0.0)	(18.2)	(9.1)	(0.0)	(4.5)	(31.8)	(0.0)	(0.0)	(100.0)	
고졸	6 (3.3)	17 (9.4)	40 (22.2)	5 (2.8)	28 (15.6)	5 (2.8)	20 (11.1)	28 (15.6)	6 (3.6)	8 (4.4)	8 (4.4)	4 (2.2)	5 (2.8)	180 (100.0)	
(전문) 대졸	10 (2.5)	19 (4.7)	116 (28.6)	22 (5.4)	56 (13.8)	14 (3.4)	47 (11.6)	51 (12.6)	22 (5.4)	24 (5.9)	18 (4.4)	4 (1.0)	3 (0.7)	406 (100.0)	
대학원 졸	4 (5.1)	4 (5.1)	19 (24.1)	5 (6.3)	13 (16.5)	1 (1.3)	16 (20.3)	9 (11.4)	2 (2.5)	5 (6.3)	0 (0.0)	1 (1.3)	0 (0.0)	79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본인)	5 (7.1)	2 (2.9)	13 (18.6)	3 (4.3)	14 (20.0)	1 (1.4)	6 (8.6)	9 (12.9)	4 (5.7)	5 (7.1)	4 (5.7)	2 (2.9)	2 (2.9)	70 (100.0)
	2명	5 (3.2)	10 (6.5)	37 (24.0)	5 (3.2)	26 (16.9)	2 (1.3)	18 (11.7)	22 (14.3)	5 (3.2)	11 (7.1)	9 (5.8)	2 (1.3)	2 (1.3)	154 (100.0)
	3명	3 (2.0)	14 (9.5)	45 (30.4)	7 (4.7)	20 (13.5)	7 (4.7)	16 (10.8)	15 (10.1)	6 (4.1)	5 (3.4)	6 (4.1)	1 (0.7)	3 (2.0)	148 (100.0)
	4명	12 (5.1)	8 (3.4)	57 (24.4)	13 (5.6)	28 (12.0)	8 (3.4)	38 (16.2)	30 (12.8)	11 (4.7)	11 (4.7)	14 (6.0)	3 (1.3)	1 (0.4)	234 (100.0)
	5명 이상	0 (0.0)	7 (6.6)	27 (25.5)	5 (4.7)	13 (12.3)	3 (2.8)	17 (16.0)	18 (17.0)	6 (5.7)	7 (6.6)	2 (1.9)	1 (0.9)	0 (0.0)	106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2 (3.7)	2 (3.7)	18 (33.3)	2 (3.7)	6 (11.1)	1 (1.9)	5 (9.3)	8 (14.8)	3 (5.6)	4 (7.4)	1 (1.9)	0 (0.0)	2 (3.7)	54 (100.0)
	도두동	6 (12.2)	2 (4.1)	3 (6.1)	1 (2.0)	7 (14.3)	8 (8.2)	5 (10.2)	5 (10.2)	4 (8.2)	3 (6.1)	7 (14.3)	1 (2.0)	1 (2.0)	49 (100.0)
	봉개동	1 (1.8)	1 (1.8)	16 (28.6)	1 (1.8)	10 (17.9)	1 (1.8)	4 (7.1)	6 (10.7)	2 (3.6)	3 (5.4)	10 (17.9)	0 (0.0)	1 (1.8)	56 (100.0)
	삼양동	2 (3.4)	7 (11.9)	12 (20.3)	2 (3.4)	10 (16.9)	2 (3.4)	11 (18.6)	8 (13.6)	1 (1.7)	2 (3.4)	2 (3.4)	0 (0.0)	0 (0.0)	59 (100.0)
	애월읍	1 (2.0)	4 (8.0)	15 (30.0)	0 (0.0)	9 (18.0)	2 (4.0)	6 (12.0)	6 (12.0)	3 (6.0)	2 (4.0)	2 (4.0)	0 (0.0)	0 (0.0)	50 (100.0)
	일도2동	0 (0.0)	0 (0.0)	19 (36.5)	2 (3.8)	8 (15.4)	0 (0.0)	6 (11.5)	9 (17.3)	2 (3.8)	1 (1.9)	5 (9.6)	0 (0.0)	0 (0.0)	52 (100.0)
	연동	2 (3.9)	4 (7.8)	8 (15.7)	2 (3.9)	4 (7.8)	2 (3.9)	10 (19.6)	6 (11.8)	2 (3.9)	7 (13.7)	2 (3.9)	1 (2.0)	1 (2.0)	51 (100.0)
	외도동	4 (5.6)	5 (7.0)	13 (18.3)	6 (8.5)	14 (19.7)	2 (2.8)	13 (18.3)	5 (7.0)	5 (7.0)	2 (2.8)	0 (0.0)	0 (0.0)	2 (2.8)	71 (100.0)
	이도2동	3 (4.5)	4 (6.0)	16 (23.9)	6 (9.0)	6 (9.0)	1 (1.5)	9 (13.4)	15 (22.4)	0 (0.0)	2 (3.0)	1 (1.5)	3 (4.5)	1 (1.5)	67 (100.0)
	오라동	0	3	12	2	6	6	10	7	4	1	2	1	0	54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총계
	(0.0)	(5.6)	(22.2)	(3.7)	(11.1)	(11.1)	(18.5)	(13.0)	(7.4)	(1.9)	(3.7)	(1.9)	(0.0)	(100.0)
아라동	2 (2.5)	2 (2.5)	28 (34.6)	4 (4.9)	12 (14.8)	0 (0.0)	6 (7.4)	12 (14.8)	4 (4.9)	6 (7.4)	3 (3.7)	2 (2.5)	0 (0.0)	81 (100.0)
화북동	2 (3.0)	6 (9.1)	19 (28.8)	5 (7.6)	9 (13.6)	0 (0.0)	9 (13.6)	7 (10.6)	2 (3.0)	6 (9.1)	0 (0.0)	1 (1.5)	0 (0.0)	66 (100.0)

① 옥내 취미활동(TV시청, 음악감상, 독서 등)

② 영화 관람

③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

④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⑤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

⑥ 놀이공원 방문(체험 시설, 동물원 등)

⑦ 여행

⑧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

⑨ 스포츠 관람(축구, 야구, 농구 등)

⑩ 지역축제 참여(축제 관람 등)

⑪ 해당 없음

⑫ 온라인 활동(유튜브 등)

⑬ 기타

### 3)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Ⅳ-39>와 같음. 전체로 살펴보면, 문화(여가)시설 확대 221명(31.0%), 문화(여가)활동비 지원 214명(30.1%)순으로 높게 나타남.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55명, 32.4%),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36명, 28.4%)순으로, 남성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77명, 33.3%), 문화(여가)시설 확대(66명, 28.6%)순으로 높게 나타남.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문화(여가)활동비 지원(27명, 36.5%), 문화(여가)시설 확대(27명, 36.5%), 공연관람료 인하(9명, 12.2%)순으로, 30대는 문화(여가)활동비 지원(29명, 36.3%), 문화(여가)시설 확대(20명, 25.0%)순으로, 40대는 문화(여가)시설 확대(43명, 33.9%), 문화(여가)활동비 지원(41명, 32.3%)순으로, 50대는 문화(여가)시설 확대(77명, 32.4%), 문화(여가)활동비 지원(65명, 27.3%)순으로, 60대는 문화(여가)활동비 지원(43명, 31.6%), 문화(여가)시설 확대(36명, 26.5%)순으로, 70대 이상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6명, 32.7%), 가족돌봄지원(영유아, 어르신 등)(8명, 16.3%)순으로 높게 나타남.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51명, 35.9%), 문화(여가)시설 확대(43명, 30.3%)순으로, 기혼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59명, 31.5%),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47명, 29.2%)순으로, 이혼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8명, 34.8%), 문화(여가)시설 확대(4명, 17.4%), 문화(여가)활동 정보 제공(4명, 17.4%)순으로, 사별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3명, 36.1%), 문화(여가)활동비 지원(5명, 13.9%)순으로 높게 나타남. 맞벌이 유무별로 살펴보면, 맞벌이는 문화(여가)시설 확대(115명, 35.5%), 문화(여가)활동비 지원(92명, 28.4%)순으로, 맞벌이 아님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91명, 32.5%), 문화(여가)시설 확대(72명, 25.7%)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는 문화(여가)시설 확대(4명, 18.2%), 가족돌봄지원(영유아, 어르신 등)(4명, 18.2%), 기타(4명, 18.2%), 교통편 지원(3명, 13.6%)순으로, 고졸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60명, 33.0%), 문화(여가)시설 확대(50명, 27.5%)순으로, (전문)대졸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40명, 34.6%),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13명, 27.9%)순으로, 대학원 졸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30명, 38.5%), 문화(여가)시설 확대(20명, 25.6%)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족구성원 수별로 살펴보면, 1명(본인)은 문화(여가)시설 확대(21명, 30.0%),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8명, 25.7%)순으로, 2명은 문화(여가)시설 확대(47명, 30.1%), 문화(여가)활동비 지원(43명, 27.6%)순으로, 3명은 문화(여가)시설 확대(50명, 33.8%), 문화(여가)활동비 지원(44명, 29.7%)순으로, 4명은 문화(여가)시설 확대(76명, 32.6%), 문화(여가)활동비 지원(67

명, 28.8%)순으로, 5명 이상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42명, 40.0%), 문화(여가)시설 확대(27명, 25.7%)순으로 높게 나타남.

현재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노형동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4명, 25.9%),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4명, 25.9%), 공연관람료 인하(13명, 24.1%)순으로, 도두동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7명, 34.7%), 문화(여가)시설 확대(15명, 30.6%)순으로, 봉개동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26명, 46.4%), 문화(여가)시설 확대(12명, 21.4%)순으로, 삼양동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9명, 32.2%),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2명, 20.3%)순으로, 애월읍은 문화(여가)시설 확대(24명, 48.0%),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2명, 24.0%)순으로, 일도2동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23명, 44.2%), 문화(여가)시설 확대(15명, 28.8%)순으로, 연동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9명, 37.3%),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8명, 35.3%)순으로, 외도동은 문화(여가)시설 확대(25명, 35.2%), 문화(여가)활동비 지원(21명, 29.6%)순으로, 이도2동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8명, 26.9%),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1명, 16.4%)순으로, 오라동은 문화(여가)시설 확대(16명, 29.6%), 문화(여가)활동비 지원(14명, 25.9%)순으로, 아라동은 문화(여가)시설 확대(24명, 29.6%), 문화(여가)활동비 지원(20명, 24.7%)순으로, 화북동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26명, 39.4%), 문화(여가)시설 확대(18명, 27.3%)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V-39>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단위: 명,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총계
전체	214 (30.1)	221 (31.0)	71 (10.0)	46 (6.5)	33 (4.6)	55 (7.7)	18 (2.5)	42 (5.9)	12 (1.7)	712 (100.0)
성별	여성	136 (28.4)	155 (32.4)	56 (11.7)	27 (5.6)	17 (3.5)	38 (7.9)	10 (2.1)	29 (6.1)	479 (100.0)
	남성	77 (33.3)	66 (28.6)	15 (6.5)	19 (8.2)	16 (6.9)	17 (7.4)	8 (3.5)	12 (5.2)	231 (100.0)
연령대	20대	27 (36.5)	27 (36.5)	9 (12.2)	1 (1.4)	1 (1.4)	5 (6.8)	3 (4.1)	1 (1.4)	74 (100.0)
	30대	29 (36.3)	20 (25.0)	9 (11.3)	5 (6.3)	3 (3.8)	8 (10.0)	2 (2.5)	4 (5.0)	80 (100.0)
	40대	41 (32.3)	43 (33.9)	10 (7.9)	8 (6.3)	3 (2.4)	9 (7.1)	3 (2.4)	10 (7.9)	127 (100.0)
	50대	65 (27.3)	77 (32.4)	33 (13.9)	14 (5.9)	10 (4.2)	23 (9.7)	5 (2.1)	9 (3.8)	238 (100.0)
	60대	43 (31.6)	36 (26.5)	7 (5.1)	15 (11.0)	11 (8.1)	8 (5.9)	1 (0.7)	10 (7.4)	136 (100.0)
	70대 이상	6 (12.2)	16 (32.7)	2 (4.1)	2 (4.1)	4 (8.2)	2 (4.1)	4 (8.2)	8 (16.3)	5 (10.2)
결혼여부	미혼	51 (35.9)	43 (30.3)	14 (9.9)	10 (7.0)	5 (3.5)	12 (8.5)	4 (2.8)	3 (2.1)	142 (100.0)
	기혼	147 (29.2)	159 (31.5)	52 (10.3)	30 (6.0)	24 (4.8)	36 (7.1)	9 (1.8)	37 (7.3)	504 (100.0)
	이혼	8 (34.8)	4 (17.4)	3 (13.0)	2 (8.7)	2 (8.7)	4 (17.4)	0 (0.0)	0 (0.0)	23 (100.0)
	사별	5	13	2	3	2	3	4	2	36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총계
맞벌이 유무		(13.9)	(36.1)	(5.6)	(8.3)	(5.6)	(8.3)	(11.1)	(5.6)	(5.6)	(100.0)
	기타	0 (0.0)	1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100.0)
	맞벌이 아님	92 (28.4)	115 (35.5)	43 (13.3)	16 (4.9)	10 (3.1)	25 (7.7)	6 (1.9)	15 (4.6)	0 (0.6)	324 (100.0)
학력	중졸 이하	2 (9.1)	4 (18.2)	2 (9.1)	0 (0.0)	1 (4.5)	2 (9.1)	3 (13.6)	4 (18.2)	4 (18.2)	22 (100.0)
	고졸	60 (33.0)	50 (27.5)	12 (6.6)	14 (7.7)	11 (6.0)	15 (8.2)	4 (2.2)	13 (7.1)	3 (1.6)	182 (100.0)
	(전문) 대졸	113 (27.9)	140 (34.6)	51 (12.6)	21 (5.2)	17 (4.2)	30 (7.4)	8 (2.0)	21 (5.2)	4 (1.0)	405 (100.0)
	대학원 졸	30 (38.5)	20 (25.6)	5 (6.4)	10 (12.8)	3 (3.8)	5 (6.4)	1 (1.3)	3 (3.8)	1 (1.3)	78 (100.0)
가족 구성원 수	1명 (본인)	18 (25.7)	21 (30.0)	6 (8.6)	9 (12.9)	3 (4.3)	5 (7.1)	2 (2.9)	1 (1.4)	5 (7.1)	70 (100.0)
	2명	43 (27.6)	47 (30.1)	12 (7.7)	12 (7.7)	7 (4.5)	16 (10.3)	5 (3.2)	13 (8.3)	1 (0.6)	156 (100.0)
	3명	44 (29.7)	50 (33.8)	14 (9.5)	7 (4.7)	6 (4.1)	13 (8.8)	5 (3.4)	6 (4.1)	3 (2.0)	148 (100.0)
	4명	67 (28.8)	76 (32.6)	26 (11.2)	15 (6.4)	12 (5.2)	14 (6.0)	6 (2.6)	14 (6.0)	3 (1.3)	233 (100.0)
	5명 이상	42 (40.0)	27 (25.7)	13 (12.4)	3 (2.9)	5 (4.8)	7 (6.7)	0 (0.0)	8 (7.6)	0 (0.0)	105 (100.0)
현재 거주지	노형동	14 (25.9)	14 (25.9)	13 (24.1)	6 (11.1)	1 (1.9)	1 (1.9)	0 (0.0)	4 (7.4)	1 (1.9)	54 (100.0)
	도두동	17 (34.7)	15 (30.6)	1 (2.0)	1 (2.0)	2 (4.1)	2 (4.1)	5 (10.2)	0 (0.0)	6 (12.2)	49 (100.0)
	봉개동	26 (46.4)	12 (21.4)	2 (3.6)	3 (5.4)	4 (7.1)	4 (7.1)	2 (3.6)	3 (5.4)	0 (0.0)	56 (100.0)
	삼양동	12 (20.3)	19 (32.2)	7 (11.9)	4 (6.8)	2 (3.4)	3 (5.1)	3 (5.1)	7 (11.9)	2 (3.4)	59 (100.0)
	애월읍	12 (24.0)	24 (48.0)	4 (8.0)	4 (8.0)	1 (2.0)	2 (4.0)	0 (0.0)	3 (6.0)	0 (0.0)	50 (100.0)
	일도2동	23 (44.2)	15 (28.8)	2 (3.8)	2 (3.8)	2 (3.8)	3 (5.8)	1 (1.9)	4 (7.7)	0 (0.0)	52 (100.0)
	연동	18 (35.3)	19 (37.3)	5 (9.8)	2 (3.9)	1 (2.0)	4 (7.8)	1 (2.0)	1 (2.0)	0 (0.0)	51 (100.0)
	외도동	21 (29.6)	25 (35.2)	6 (8.5)	1 (1.4)	6 (8.5)	6 (8.5)	1 (1.4)	4 (5.6)	1 (1.4)	71 (100.0)
	이도2동	11 (16.4)	18 (26.9)	10 (14.9)	12 (17.9)	5 (7.5)	7 (10.4)	1 (1.5)	2 (3.0)	1 (1.5)	67 (100.0)
	오라동	14 (25.9)	16 (29.6)	4 (7.4)	5 (9.3)	2 (3.7)	6 (11.1)	3 (5.6)	4 (7.4)	0 (0.0)	54 (100.0)
	아라동	20 (24.7)	24 (29.6)	13 (16.0)	3 (3.7)	4 (4.9)	12 (14.8)	0 (0.0)	4 (4.9)	1 (1.2)	81 (100.0)
	화북동	26 (39.4)	18 (27.3)	4 (6.1)	3 (4.5)	3 (4.5)	5 (7.6)	1 (1.5)	6 (9.1)	0 (0.0)	66 (100.0)

① 문화(여가)활동비 지원

② 문화(여가)시설 확대

③ 공연관람료 인하

④ 함께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할 사람 연결

⑤ 문화(여가) 단체 활성화

⑥ 문화(여가)활동 정보 제공

⑦ 교통편 지원

⑧ 가족돌봄지원(영유아, 어르신 등)

⑨ 기타

### 3. 소결

-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좋은 동네라고 응답한 것과 거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서 조금 만족과 매우 만족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응답자의 대부분이 현재 거주지(환경)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보임. 이런 요인이 조사지역의 인구감소 위험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된 이유로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가족(고향, 결혼 등)과 직장(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요인들이 거주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 환경에 대한 질문에 매우 또는 대체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아 미래에도 현재 거주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체로 나빠질 것이다에 대한 응답 비중도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현 거주지에 대한 미래에 불안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이러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를 비롯해 조사 지역(읍, 동) 모두에서 교통 문제(주차, 대중교통 불편 등)와 주민 문화(여가, 스포츠 등)시설 및 (평생)교육 시설 부족을 꼽음. 특히 오라동에서는 교통 문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주차 시설과 문화 활동 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봉개동과 도두동에서는 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이런 결과를 볼 때, 조사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교통 문제(주차 시설) 해결과 문화 활동 및 교육시설 설치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 간 불균형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는 일자리(일자리 수, 일자리 질, 임금 수준 등)와 문화(여가)시설(문화센터 등)항목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영역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는 현재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불균형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인구 유입에 따라 일자리와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추후 세밀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돌봄]

- 현재 아동 돌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양육비, 교육비 지원과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돌봄에 대

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20대, 미혼에서, 연동과 이도2동에서 일 가정 양립제도 정착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아동 돌봄에 대한 지원도 중요 하지만 돌봄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 정착 또한 중요함을 알 수 있음. 나아가 이러한 부분은 저출생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 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응답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확대(체험, 여가, 동아리 등)와 청소년상담 프로그램 확대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공부(학업, 입시 등)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조사 결과처럼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청년 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응답으로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과 자기 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청년복지를 위해서는 우선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청년의 적성에 맞는 고용 및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중장년 복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응답으로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과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중장년들 또한 고용을 원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생애주기에 있어 (정신, 신체)건강에 대한 문제가 높은 주기라는 점에서 이러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현재 노인 돌봄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건강 의료 서비스(방문 간호 등), 동행 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러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사지역 상황에 따른 시급성에 따라 응답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남. 따라서 조사지역에 따른 결과 내용을 면밀히 살펴 지역 상황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우리 동네에 노인 돌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시설로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노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노인을 위한 기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사지역 상황에 따라 응답 내용이 다양하게 조사됨. 이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노인돌봄에 필요한 시설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정신 및 신체 건강]

- 현재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불안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조사지역의 결과 또한 순위만 다를 뿐 위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우선적으로 조사 결과 내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함.

- 우리 동네에 주민정신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로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 정신건강상담센터 순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조사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공원 및 녹지공간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조사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 공원 및 녹지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민의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운동프로그램 지원,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 체육시설 설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조사지역별로도 순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하게 나타남. 또한 주민의 신체 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로 실내 체육시설(수영장, 배드민턴 등)과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이 가장 높게남. 이는 현재 주민들이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욕구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기초생활유지]**

- 기초생활유지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으로 생계비 부족(식비, 의복 구입비 등)과 주거비 부족(연세, 월세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재 주민의 기초생활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일자리 지원,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조사지역별로도 순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하게 나타남. 이는 주민의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특히 기초생활유지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보호 및 안전]**

- 안전 유지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으로 보행 시 불편(안전하지 않은 보행로 등)과 야간 귀가 불편(CCTV 및 가로등 부족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도 위험 지역 순찰 강화와 비상벨, CCTV 확충 순으로 높게 나타남. 주민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로 비상벨, CCTV와 안전 보행로가 높게 나타남. 또한 조사지역별로는 조사지역 상황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에 상황에 맞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교육]**

-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로 주로 겪는 어려움으로 교육비 부족(사교육비 증가 등)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청소년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교육 강화(기초학력 지도교사 확충 등)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강화가 높게 나타났

고, 조사지역별로 동일하게 나타남. 이는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현재 주민의 교육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취업 연계 교육 확대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높게 나타났고, 조사지역별로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됨.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에 상황에 맞춰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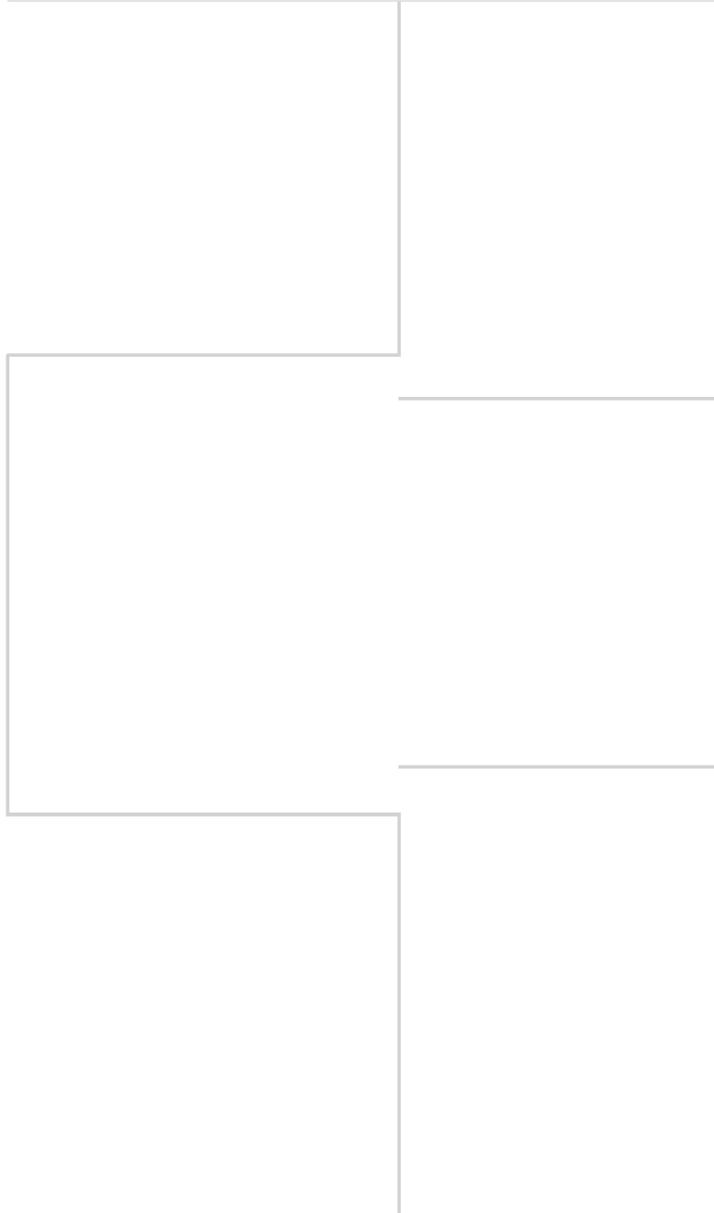
#### [주거]

-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과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사지역별로도 순위만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하게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문화/여가]

- 주로 참여하는 문화(여가)활동으로 옥내 취미활동(TV시청, 음악감상, 독서 등), 영화 관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문화(여가)활동 유형으로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과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문화(여가)시설 확대, 문화(여가)활동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현실과 원하는 것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역적 조건과 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공연 관람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V. 제언





## V. 제언

제주시 지역주민의 복지 실태 및 욕구 조사의 면접조사(FGI)와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 인구감소가 낮은 지역은 많은 인구에 의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형동은 주차에 대한 불만, 교통 체증과 안전 문제, 도두동은 마을 분리와 경로당의 분리로 인해 주민화합이 잘 안되는 문제, 봉개동은 인구 증가에 따른 전반적 인프라 부족 문제, 삼양동과 화북동은 편의시설 부족 등 인프라 부족 문제, 연동은 다양한 주거환경과 높은 인구 밀도로 이웃 간 소통에 대한 어려움 문제, 일도2동은 주차 문제 해결, 경로당의 냉난방비 및 식사 지원과 인력지원 등의 욕구가 있음.
- 애월읍은 경로당 인력 지원과 복지관 신설, 지역아동센터 확충, 원주민과 이주민의 화합 등의 욕구, 외도동은 대규모 실내체육시설 설치, 복지관과 병원 설립 등의 인프라 확충, 주민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욕구, 이도2동은 문화체육시설의 운영 시간 확대, 대규모 실내체육시설 설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주차 문제 해결, 복지관 설치 등의 욕구, 아라동과 오라동은 노인을 위한 소통 공간과 운동 공간 마련,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의 공통된 욕구와 함께 아라동은 도서관 설립,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욕구가, 오라동은 의료시설 확충과 주차빌딩 건립 등에 대한 욕구를 보임.
- 이러한 주민 요구는 거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결핍과 불편을 반영한 결과임. 따라서 각 지역 주민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2.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마련

-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등 각 생애 단계마다 요구 사항이 상이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함.
- 아동 돌봄의 경우, 돌봄 인력 및 시설 확대, 청소년 돌봄에서는 청소년활동과 상담프로그램 확대, 청년 돌봄에서는 고용 지원과 자기 탐색 지원, 중장년 돌봄에서는 고용 지원과 건강관리 지원, 노인 돌봄의 경우 건강 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 등이 높게 나온 점과 아동 돌봄에 있어 20대와 미혼에서 일 가정양립제도 정착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온 점을 놓고 보면,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름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생애주기에 따른 요구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는 만큼,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제 요구와 해당 생애 단계에서의 필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개선하여 주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3. 주차와 대중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

- 주차 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 개선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현재 거주지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많은 주민이 공통으로 주차와 대중교통 문제를 꼽은 것으로 보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
- 주차 문제는 인구 감소가 낮은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이므로 이에 따라 거주 지역의 특성과 인구 밀도를 고려한 주차 시설 확충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함.
- 특히, 대중교통 문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버스 운행량이 부족한 것인지, 다양한 노선을 원하는 것인지, 혹은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것인지에 따라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은 앞으로도 인구가 유지되거나 혹은 늘어날 수 있음.

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차와 대중교통 문제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주민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정주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주차와 대중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

- 따라서 주민 요구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4.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

- 주민의 정신 및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정신건강 관련 문제로 스트레스, 외로움, 우울/불안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됨. 주민들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민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위해 공통으로 공원 및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설치 등을 꼽은 결과를 보면, 이는 주민의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위한 욕구가 비슷하다는 것이므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정신 및 신체 건강은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주민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5. 주민 안전 유지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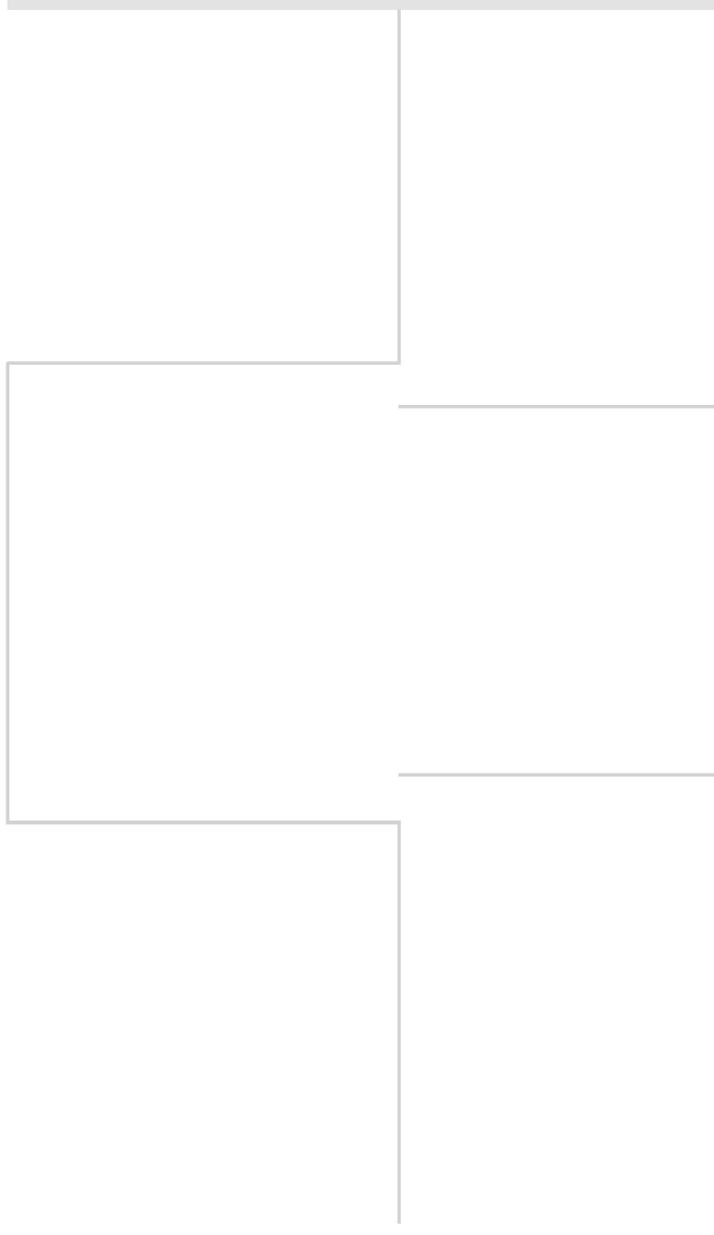
-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확충과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현재 거주지의 안전 유지 문제의 어려움으로 보행 시 불편과 야간 귀가 불편 그리고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위험 지역 순찰 강화와 비상벨, CCTV 확충을 꼽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조사 지역의 상황에 따라 시급성이 다를 수 있겠지만 주민들은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주민들의 일상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행 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 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 맞춤형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는 단순히 안전 문제 해결을 넘어 거주지역의 신뢰와 안정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함.
- 따라서 주민의 안전한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확충과 개선이 요구됨. 또한 조사 지역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을 본다면, 세부적인 추가 조사를 통해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6. 지역주민의 교육과 문화(여가)활동 지원 방안 모색

- 주민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행복한 일상생활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임. 조사 결과를 보면, 주민들은 취업 연계 교육 확대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공연 관람 및 동호회 활동과 같은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도 뚜렷하게 나타남.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필요함.
- 많은 주민이 공연 관람과 동호회 활동과 같은 문화(여가)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지역의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기존의 시설을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여가)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거주 지역에 가칭 '주민문화센터'를 설치하거나 기존 센터를 활성화해 모든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센터는 단순히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공연과 전시, 동호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주민 교육과 문화(여가)활동 지원은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므로 주민 의견과 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고려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고태호(2022). 제주형 인구감소지수 개발. 제주: 제주연구원.
- 강릉시(2022). 제5기(2023~2026년) 강릉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용역.
- 보건복지부(2024). 2023년 지역사회보장지표. 서울: 보건복지부.
- 박종서, 김동진,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이윤경, 최선영, 황남의, 송효진, 김영란, 김수진(2022).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각론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울복지재단(2022). 제5기(2023~2026)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서울: 서울복지재단.
- 신윤정, 고든솔, 박소은, 안수란, 우해봉, 이다미, 이원진, 장인수, 정연, 이지혜, 임지혜, 계봉오, 윤홍식, 전광희, MA Chunhua, Toru SUZUKI, Yeun-wen Ku, Cherng-Tay Hsueh, Yue-Chune Lee, Pramote Prasartkul, Napaphat Satchanawakul, Thang Leng Leng, Stuart Gietel-Basten(2021).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채은 외 18(2022).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 오윤정, 박정훈, 김은정(2021). 제5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제주: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유정원, 이사라(2018). 제4기 지역사회보장육구조사 분석 연구: 인구 100만 도시를 중심으로. 경기: 경기복지재단.
- 이상호(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고용동향 브리프 2018년 7월호, 2-21.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2023). 2022년도 제주지역 읍면동별 인구감소위험 수준 분석. 제주: 제주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2022). 2022 제주의 사회지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부록

설문지



# 지역주민의 복지실태 및 욕구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지역주민의 복지실태와 복지 욕구를 확인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향후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끝까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5장 제33조(비밀보장)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 기간 2024년 6~8월
- 연구 책임 김도영(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 위원장)
- 전화 문의 064)702-3784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

### 1. 인구사회학적 특성 (9문항)

※ 귀하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2.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3. 결혼 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이혼 ④ 사별    ⑤기타(    )	4. 맞벌이 유무	① 맞벌이 ② 맞벌이 아님
5.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학원 졸	6. 현 지역 거주기간	대략 _____년
7. 가족 구성원 수	① 1명(본인)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8. 현재 거주지	① 노형동      ⑦ 연동 ② 도두동      ⑧ 외도동 ③ 봉개동      ⑨ 이도2동 ④ 삼양동      ⑩ 오라동 ⑤ 애월읍      ⑪ 아라동 ⑥ 일도2동      ⑫ 화북동
9. 직업	① 전문직 ② 관리/사무직 ③ 서비스/판매직 ④ 기술/기능직 ⑤ 농업/임업/어업 종사	⑥ 단순/노무직 ⑦ 전업주부 ⑧ 학생 ⑨ 고용주/자영업자 ⑩ 무급가족종사자	⑪ 일시 휴직 ⑫ 구직 활동 중 ⑬ 무직 ⑭ 기타(      )

## 2. 복지실태 인식 (7문항)

1.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네 ② 아니오

2. 현재 거주지에 살고 있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 ① 직장(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② 가족(고향, 결혼 등)            |
| ③ 주택(주택 구입, 전세, 월세 등)    | ④ 교육(자녀 교육, 학업 등)         |
| ⑤ 거주 환경(교통, 문화 및 편의시설 등) | ⑥ 자연환경(건강, 좋은 공기, 전원생활 등) |
| ⑦ 기타( )                  |                           |

3.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 환경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① 매우 불만족      ② 조금 불만족      ③ 조금 만족      ④ 매우 만족

4.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환경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나빠질 것이다    ② 조금 나빠질 것이다    ③ 대체로 좋아질 것이다    ④ 매우 좋아질 것이다

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어르신,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돌봄 문제            | ② 의료시설 부족 등 주민건강 문제    |
| ③ 이웃에 대한 무관심 등 주민(선주민과 이주민) 소통 부족 문제 | ④ 쓰레기 등 환경 문제          |
| ⑤ 노후된 주택 등 열악한 주거(생활)환경 문제           | ⑥ 치안 불안 등 안전 문제        |
| ⑦ 주민 문화(여가, 스포츠 등) 시설 및 (평생)교육 시설 부족 | ⑧ 자녀 교육의 어려움           |
| ⑨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설치 미흡           | ⑩ 교통 문제(주차, 대중교통 불편 등) |
| ⑪ 공원 등 녹지공간 부족                       | ⑫ 기타( )                |

6.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당장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영유아 돌봄 시설
- ② 아동청소년 돌봄 및 교육 시설
- ③ 어르신 돌봄 시설
- ④ 장애인 돌봄 시설
- ⑤ 종합사회복지관
- ⑥ 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 등 안전 시설
- ⑦ 문화 활동 시설
- ⑧ 동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공간
- ⑨ 주민 건강을 위한 의료 시설
- ⑩ 대중교통 시설
- ⑪ 주차 시설
- ⑫ 주민(평생)교육 시설
- ⑬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
- ⑭ 공원 등 녹지공간
- ⑮ 쓰레기 해결 등을 위한 환경 시설
- ⑯ 체육 시설
- ⑰ 기타( )

7.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제주도내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볼 때, 지역 간 불균형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현재 거주지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음	② 별로 심각하지 않음	③ 조금 심각함	④ 매우 심각함
7-1. 소득 및 자산(거주 지역 주민의 평균적 소득 수준 등)				
7-2. 주거(주택 및 주변시설 낙후 정도 등)				
7-3. 일자리(일자리 수, 일자리 질, 임금 수준 등)				
7-4. 교육시설 및 서비스(초중고등학교, 사설 학원 등)				
7-5. 사회복지서비스(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제공 서비스 등)				
7-6. 의료시설 및 서비스(병원, 의원 등)				
7-7. 생활편의시설(마트, 편의점, 미용실, 식당 등)				
7-8. 문화(여가)시설(문화센터 등)				
7-9. 대중교통				
7-10. 공원 등 녹지공간				
7-11. 체육 시설(걷기 시설, 공원 내 운동기구, 체육관 등)				
7-12. 기타( )				
7-13. 전반적인 삶의 질 여건				



**[청년 돌봄]**

5. 우리 지역의 청년 복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자기탐색 지원(적성, 진로 등)
- ② 사회적 관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 ③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 ④ 생활비 지원(식비, 교통비 등)
- ⑤ 주거 지원(임대주택, 월세 등)
- ⑥ 문화(여가)활동 지원
- ⑦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⑧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 ⑨ 은둔 고립 청년 지원
- ⑩ 청년 수당 지원
- ⑪ 청년 지역 정착 지원
- ⑫ 영케어러(가족돌봄) 청년 지원
- ⑬ 학자금 지원
- ⑭ 기타( )

**[중장년 돌봄]**

6. 우리 지역의 중장년 복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고용 지원(취업, 창업 등)
- ② 경제적 지원(물품, 부채 경감, 자산형성 지원 등)
- ③ 문화(여가)활동 지원
- ④ 교육 훈련 지원
- ⑤ 주거 지원(임대주택, 연세, 월세 등)
- ⑥ 건강관리 지원(정신, 신체 등)
- ⑦ 기타( )

**[노인 돌봄]**

7. 주로 이용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2개만 표시)

- ① 요양서비스(방문요양 등)
- ② 보건의료서비스(방문간호 등)
- ③ (고령)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④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사지원 등)
- ⑤ 시설 서비스(주간보호 등)
- ⑥ 주야간, 단기보호서비스
- ⑦ 기타( )
- ⑧ 해당 없음

8. 현재 노인돌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일상생활 도움 서비스(분리수거, 전구 교체 등)
- ② (기본 식생활 유지를 위한)식사지원 서비스
- ③ 동행지원 서비스(병원 동행 등)
- ④ 돌봄 비용 지원
- ⑤ 이동지원 서비스(교통약자이동 지원 등)
- ⑥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⑦ 건강 의료서비스(방문 간호 등)
- ⑧ 여가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 ⑨ 방문돌봄 서비스
- ⑩ 안전 보장(학대, 치안 등)
- ⑪ 단기시설 서비스(주야간과 주말, 긴급돌봄 등)
- ⑫ 노인돌봄시설 확대(주간보호센터 등)
- ⑬ 기타( )

9. 우리 동네에 노인돌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노인주간보호센터
- ②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
- ③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등)
- ④ 노인복지관
- ⑤ 경로당
- ⑥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 ⑦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과 단기 보호 등)
- ⑧ 기타( )

## 4. 정신 및 신체 건강 (4문항)

1. 현재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정신건강 관련 문제는 무엇입니까? ( )

- ① 외로움
- ② 스트레스
- ③ 학교부적응
- ④ 인터넷/게임 과몰입
- ⑤ 약물남용(술, 담배, 카페인 등)
- ⑥ 우울/불안
- ⑦ 폭력(가정 및 학교폭력 등)
- ⑧ 불면증
- ⑨ 조현병
- ⑩ 조울증
- ⑪ 치매
- ⑫ 은둔/고립
- ⑬ 공황장애
- ⑭ 도박
- ⑮ 기타( )

2. 우리 동네에 주민정신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주간재활 및 중독자재활시설 등)
- ② 의료기관(정신과 의원 등)
- ③ 정신건강상담센터
- ④ 공원 및 녹지공간(걷기, 헬스기구 등)
- ⑤ 기타( )

3. 현재 주민의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체육시설 설치
- ② 신체 건강 증진 비용 지원
- ③ 생활습관 변화 지원(폭식 등)
- ④ 운동프로그램 운영
- ⑤ 운동 물품 지원
- ⑥ 체육시설까지 이동 지원(차량 등)
- ⑦ 운동동호회 조직 및 지원
- ⑧ 기타( )





구분	① 전혀 필요없다	② 필요없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3-1. 야간, 주말 등 교육 시간 다양화				
3-2. 교육기관 접근성 강화(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3-3. 무료교육 확대				
3-4. 취업 연계 교육 확대				
3-5.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3-6. 주민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3-7. 주민교육센터 확충				
3-8. 교육기관 내 돌봄시설 설치(영유아, 어르신 등)				
3-9. 교육 정보 제공 강화				
3-10. 교육(시설) 환경 개선				
3-11. 기타( )				

## 8. 주거 (2문항)

1. 현재 거주하는 주거 공간에서 지난 1년간(2023.6.1.~2024.5.31.) 다음의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다까?

구분	①전혀 경험하지 않음	② 연~2회	③ 월1~2회	④ 주1~2회	⑤ 매일
1-1. 화장실 열악(변기, 세면대, 목욕시설 등)					
1-2. 주방시설 열악(싱크대, 조리 및 환기시설 등)					
1-3. 위생 상태 열악(악취, 벌레 등)					
1-4. 도배/장판 열악(습기, 곰팡이 등)					
1-5. 층간방음 열악(이웃 간 층간 소음 등)					
1-6. 냉난방 시설 열악(보일러, 에어컨 등)					
1-7. 전기/가스 시설 열악 (낡은 전기 설비, 노후 가스 배관 등)					
1-8. 상하수도 시설 열악(상하수도 시설 노후 등)					
1-9. 지붕 노후(누수 등)					
1-10. 벽/담 등 노후(균열 등)					
1-11. 거주 공간 내 장애물로 인한 이동 어려움 (단차, 돌출물, 모퉁이 등으로 인한 이동 어려움)					
1-12. 기타( )					

2.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주거공간 개보수 지원(화장실, 냉난방 등)
- ② 냉난방비 지원
- ③ 주거비 지원(전세, 연세, 월세 등)
- ④ 주거 공간 주변 환경 개선
- ⑤ 기타( )

## 9. 문화/여가 (3문항)

1. 주로 어떤 유형의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 ) (2개만 표시)

- ① 옥내 취미활동(TV시청, 음악감상, 독서 등)
- ② 영화 관람
- ③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
- ④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 ⑤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
- ⑥ 놀이공원 방문(체험 시설, 동물원 등)
- ⑦ 여행
- ⑧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
- ⑨ 스포츠 관람(축구, 야구, 농구 등)
- ⑩ 지역축제 참여(축제 관람 등)
- ⑪ 해당 없음
- ⑫ 온라인 활동(유튜브 등)
- ⑬ 기타( )

2.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 )

- ① 옥내 취미활동(TV시청, 음악감상, 독서 등)
- ② 영화 관람
- ③ 공연 관람(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
- ④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 ⑤ 동호회 활동(음악, 미술, 운동 등)
- ⑥ 놀이공원 방문(체험 시설, 동물원 등)
- ⑦ 여행
- ⑧ 스포츠 활동(조깅, 헬스 등)
- ⑨ 스포츠 관람(축구, 야구, 농구 등)
- ⑩ 지역축제 참여(축제 관람 등)
- ⑪ 해당 없음
- ⑫ 온라인 활동(유튜브 등)
- ⑬ 기타( )

3.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문화(여가)활동비 지원
- ② 문화(여가)시설 확대
- ③ 공연관람료 인하
- ④ 함께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할 사람 연결
- ⑤ 문화(여가) 단체 활성화
- ⑥ 문화(여가)활동 정보 제공
- ⑦ 교통편 지원
- ⑧ 가족돌봄지원(영유아, 어르신 등)
- ⑨ 기타( )

■ 설문 응답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주시 지역주민의 복지 실태 및 욕구 조사  
-인구 감소 위험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24년 12월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발행인 : 고 승 화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전 화 : 064)702-3784
- 팩 스 : 064)702-3383
- 홈페이지: [www.jejubokji.net](http://www.jejubokji.net)
- 인 쇄 : 하늘출판인쇄

이 책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